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0263-14

최종보고서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연구

2024. 10.

• 연구책임자  
김 규 환(인천대학교)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연구

2024.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 
- 연구수행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 연구원 : 김 규 환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 연구원 : 김 수 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 옥 남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대 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최 현 주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장 수 현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 I. 서론 /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2.1 연구의 내용	22
2.2 연구의 방법	23
3. 기대 효과	24

## II.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현황 / 25

1.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정책	27
1.1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종류	27
1.2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규정	29
1.3 온라인 자료의 수집 우선순위	31
1.4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별 제외 자료	33
2.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36
2.1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	36
2.2 자체수집 전략	37
2.3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의 특징	39
3.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40
3.1 일반 현황	40
3.2 수집 방식별 자료 종류 현황	42

3.3 공공 및 민간영역별 자료 종류 현황 .....	46
3.4 종합 .....	47
4.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수집 현황 .....	48
4.1 납본·자체수집·수증 비율 .....	48
4.2 온라인자료 납본법 시행일 기준, 발행년별 수집 방식의 차이 ..	49
4.3 납본·자체수집·수증별 상위 5위 발행기관 .....	49
4.4 ISBN 발급 전자출판물 현황 .....	49
5. 종합 및 시사점 .....	51

### III.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정의 및 수집 영역 / 53

1. 온라인 K-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5
1.1 ‘온라인’의 의미 .....	55
1.2 ‘K-콘텐츠’의 의미 .....	56
2. 온라인 K-콘텐츠의 정의 .....	60
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 .....	61
3.1 공공영역 .....	61
3.2 민간영역 .....	62
3.3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수집 방식 차별화 .....	63
4. 공공 및 민간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 현황 조사 .....	64
4.1 공공영역 현황 .....	64
4.2 민간영역 현황 .....	70

### IV.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 및 동향 분석 / 75

1. FGI 개요 .....	77
2. 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 .....	79
2.1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종류 .....	79
2.2 주요 이해관계자 .....	79
2.3 주요 유통 플랫폼의 특징 및 주요 이용자층 .....	80



3. 국가 차원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의 필요성	82
3.1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보존해야 하는 이유	82
3.2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82
3.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온라인 K-콘텐츠 유형과 선정기준	83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방법 및 전략	85
4.1 공공기관 콘텐츠 및 아카이브 수집 방식	85
4.2 민간 콘텐츠 수집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	85
4.3 민간 기관과의 협력 방식에서 효과적인 방법	86
4.4 민간 및 공공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 사항	86
4.5 수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	87
5. 민간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의 입장	88
5.1 온라인 K-콘텐츠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및 우려사항	88
5.2 부정적 입장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 및 지원 요구사항	88
5.3 타 기관과의 협력의 성공 사례	89
5.4 온라인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89
6.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	90
6.1 온라인 K-콘텐츠 납본·기증 유도 방안	90
6.2 참여 저해 요인 및 극복 방안	90
6.3 보상·인센티브 방안 및 효과성	90
6.4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91
6.5 추가 논의 사항	91
7. 종합 및 시사점	92
7.1 수집전략 일반	92
7.2 공공영역 수집전략 방향성	92
7.3 민간영역 수집전략 방향성	93

1. 국내·외 선행연구	97
1.1 국내 선행연구	97
1.2 국외 선행연구	99
1.3 시사점	100
2. 국외 유사 사례 조사	101
2.1 유럽연합(EU)	101
2.2 미국 의회도서관	104
2.3 영국 국가도서관	109
2.4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112
2.5 호주 국립도서관	116
2.6 프랑스 국립도서관	121
2.7 독일 국가도서관	126
2.8 스페인 국가도서관	130
2.9 시사점	134
3. 종합 및 방향성	137

1.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의 방향성	141
1.1 전문가 그룹 검증	141
1.2 주요 방향성 설정	146
2.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150
2.1 공공영역	150
2.2 민간영역	162
3. 능동적 납본 및 자체 수집 전략	184
3.1 능동적 납본 전략	184
3.2 자체수집 전략	194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209

4.1 법제도 근거 마련 .....	209
4.2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224
4.3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 .....	240
4.4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248
<b>5.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 .....</b>	<b>249</b>
5.1 중장기 로드맵 구성 .....	249
5.2 단계별 추진 과제 .....	253

## VII. 결론 및 제언 / 255

■ 참고문헌 .....	259
■ [부록 1] FGI 질문지 .....	263
■ [부록 2]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안) 검증 질문지 .....	266

## 표 목차

〈표 II-1〉 「도서관법」 상 온라인 자료 정의 .....	28
〈표 II-2〉 온라인 자료의 종류(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	29
〈표 II-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규정 .....	30
〈표 II-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종류별 수집 우선순위 .....	33
〈표 II-5〉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2023년) .....	38
〈표 II-6〉 공공간행물 자체수집 대상 수집처 및 수집주기 .....	38
〈표 II-7〉 국립중앙도서관 민간영역 자체 수집자료 현황 .....	39
〈표 II-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종류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2017~2023) .....	41
〈표 II-9〉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방식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2017~2023) .....	42
〈표 II-10〉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	43
〈표 II-11〉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	44
〈표 II-12〉 수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	46
〈표 II-13〉 공공 및 민간별 온라인 자료 종류 수집 현황(2023) .....	47
〈표 III-1〉 「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콘텐츠” 검토 .....	56
〈표 III-2〉 K-콘텐츠 정의 관련 기타 참고문헌 정리 .....	58
〈표 III-3〉 재외 한국문화원 면담 내용 및 결과 .....	65
〈표 III-4〉 전국 콘텐츠 코리아랩 설치 현황 .....	67
〈표 III-5〉 전국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포털 아카이브 현황 .....	69
〈표 IV-1〉 FGI 질문 문항 .....	78
〈표 IV-2〉 주요 유통 플랫폼의 특징 .....	80
〈표 V-1〉 국외 온라인 자료 수집 .....	136

〈표 VI-1〉 전문가 그룹 대상 질문 영역 및 질문 문항 .....	142
〈표 VI-2〉 정부 및 공공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	152
〈표 VI-3〉 문화진흥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	154
〈표 VI-4〉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	156
〈표 VI-5〉 지역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	158
〈표 VI-6〉 해외 소재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	161
〈표 VI-7〉 웹툰 수집의 우선순위 .....	165
〈표 VI-8〉 웹소설 수집의 우선순위 .....	169
〈표 VI-9〉 음원 수집의 우선순위 .....	173
〈표 VI-10〉 동영상 수집의 우선순위 .....	177
〈표 VI-11〉 OTT 수집대상 우선순위 .....	182
〈표 VI-12〉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발간기관(정부기관) .....	185
〈표 VI-13〉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 발행기관(지방자치단체) ·	186
〈표 VI-14〉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 발행기관(공공기관) .....	186
〈표 VI-15〉 공공누리 참여기관(국가기관) .....	188
〈표 VI-16〉 공공누리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	189
〈표 VI-17〉 공공누리 참여기관(공공기관) .....	189
〈표 VI-18〉 공공누리 참여기관(기타기관) .....	190
〈표 VI-19〉 협업대상 문화유산 관리기관 및 보유현황 .....	191
〈표 VI-20〉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 웹진 수집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191
〈표 VI-21〉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기관 웹툰 수집처 .....	192
〈표 VI-22〉 능동적 납본 전략을 위한 수집 대상 기관 .....	193
〈표 VI-23〉 UCI 등록관리기관(RA)별 콘텐츠 유형, 원문유무, 등록건수 .....	196
〈표 VI-24〉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2018~2022) .....	198
〈표 VI-25〉 콘텐츠산업별 상장사 현황(2024년 3월 31일 기준) .....	198
〈표 VI-26〉 출판산업 상장사 .....	199
〈표 VI-27〉 만화(웹툰)산업 상장사 .....	199
〈표 VI-28〉 음악산업 상장사 .....	200
〈표 VI-29〉 게임산업 상장사 .....	200
〈표 VI-30〉 영화산업 상장사 .....	201
〈표 VI-31〉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상장사 .....	201

---

〈표 Ⅵ-32〉 방송산업 상장사 .....	202
〈표 Ⅵ-33〉 광고산업 상장사 .....	202
〈표 Ⅵ-34〉 지식정보산업 상장사 .....	203
〈표 Ⅵ-35〉 콘텐츠솔루션 상장사 .....	203
〈표 Ⅵ-36〉 신탁관리단체 운영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	204
〈표 Ⅵ-37〉 음악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	205
〈표 Ⅵ-38〉 어문 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	205
〈표 Ⅵ-39〉 영화, 방송, 뉴스, 공공 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	206
〈표 Ⅵ-40〉 적극적 자체수집을 위한 분야별 수집 기관(안) .....	208
〈표 Ⅵ-41〉 도서관법 개정안 .....	213
〈표 Ⅵ-42〉 저작권법 개정안 .....	218
〈표 Ⅵ-4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223
〈표 Ⅵ-44〉 EDM 권리설명문 옵션 .....	229
〈표 Ⅵ-45〉 유로피아나 재단, 에그리게이터, 콘텐츠 제공기관의 업무 .....	229
〈표 Ⅵ-46〉 DPLA의 장서개발 원칙 .....	232
〈표 Ⅵ-47〉 유로피아나, DPLA,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수집 모델 비교 .....	233
〈표 Ⅵ-48〉 기관별 담당 업무 .....	235
〈표 Ⅵ-49〉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예산(안) .....	247
〈표 Ⅵ-50〉 단계별 추진과제 .....	253

〈그림 II -1〉 수집방식별 ISBN 발급 비율 .....	48
〈그림 V -1〉 EU 웹 아카이브 검색 페이지 .....	103
〈그림 V -2〉 뉴질랜드 만화 아카이브 .....	115
〈그림 V -3〉 호주 Pandora 아카이브 화면 .....	121
〈그림 V -4〉 프랑스 웹 아카이브 .....	126
〈그림 V -5〉 스페인 웹 아카이브 .....	134
〈그림 VI -1〉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	224
〈그림 VI -2〉 주제별 에그리제이터 예시 .....	227
〈그림 VI -3〉 중장기 수집 모델을 위한 조직구조 .....	235
〈그림 VI -4〉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성도 .....	241

- 본 연구는 온라인 K-콘텐츠를 “한국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공공영역의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담긴 자료부터 민간 부문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문자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등에 더욱 집중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정의하였음. 이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 및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집전략 일반 기준, 공공영역 수집 전략 방향성과 민간영역 수집 전략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에 적용할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였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제시하였음
-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 공공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일차적으로 기관유형별로 수립함. 각 공공기관이 여러 유형의 콘텐츠(예, 보고서, 동영상, 이미지 등)를 생산하기 때문에 콘텐츠 유형별로 수집 절차를 분리하기 어려움. 또한, 기관유형별(예, 정부 및 공공기관, 문화유산저작물관리기관 등)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일차적으로 콘텐츠 유형별로 수립함. 콘텐츠 생산 기관이나 유통플랫폼은 콘텐츠 유형별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예시: 네이버 웹툰-웹툰). 따라서 특정 유형의 콘텐츠 수집 시 관련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콘텐츠 유형별로 저작권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웹툰, 음원, OTT 등 각 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법제도 마련 및 저작권 협의 절차가 필요함



- 공공 및 민간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수집 대상 콘텐츠의 가치, 수집 콘텐츠 유형, 법적 검토, 인프라 구축, 기관의 유형 및 주요 기관,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단계별 수집의 우선순위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제안하였음

#### □ 납본 및 자체 수집별 추진 전략

- 납본을 위한 추진 전략은 첫째, ISBN을 발급하는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발행기관 중 미납본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수집하며, 둘째, 기작성된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셋째, 공공간행물은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공공누리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저작물 관리 기관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 자체수집을 위한 추진 전략은 첫째, ISBN을 발급받았으나 온라인 납본법 시행 이전에 제작·발행된 자료의 발행기관을 수집 대상으로 하며, 둘째, 온라인 K-콘텐츠의 특성상 UCI 식별자가 발급되는 비율이 증가함을 고려하였을 때 UCI 발급기관(RA) 중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수집 대상으로 함. 셋째, K-콘텐츠의 정의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에 국내 콘텐츠 산업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상장사들을 수집 대상으로 삼음. 넷째, K-콘텐츠는 민간에서 제작·발행되는 콘텐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민간영역의 콘텐츠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원문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저자(제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들을 수집대상에 포함함

####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 법제도 근거 마련: 현재의 도서관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분석하여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였음. 분석 결과, 민간 콘텐츠의 공공성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과 법령 개정이 필요함.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콘텐츠 수집 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법: 도서관법 제21조와 제22조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온라인 자료 수집 시 저작권자와의 협력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납본 의무와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음

- 저작권법: 공익적 목적의 저작권 예외 조항 신설 및 저작권자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이에 더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허용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을 강조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 수집과 보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 및 기술적 보호조치 명확화를 제안하였음
- 협력체제 구축: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모델을 제안하였음. 유럽의 유로피아나와 미국의 DPLA 모델을 참고하여 메타데이터 및 원문을 수집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UCI 기반으로 콘텐츠를 수집, 관리, 저작권 보호 및 접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안하였음. 콘텐츠 제공자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며, UCI가 자동 발급되고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저장됨.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검색 기능이 포함되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함

####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중장기 로드맵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콘텐츠 유형, 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이 상이하므로 수집 수행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임. 민간 콘텐츠의 경우, 공공성과 민간의 가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온라인 납본보다는 중요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원본을 확보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콘텐츠 수집, 법제도 개정, 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과제가 설정되었음
- 단기 계획(1~2년)으로는 연간 4만 8천 건 수집 목표 설정, 공공 콘텐츠 및 웹툰, 웹소설 우선 수집, 온라인 납본 의무화 및 UCI 등록 의무화, 표준 계약서 개발, 권리신탁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협의체 중심으로 콘텐츠 수집 기준 마련, UCI 등록 시스템 기반 플랫폼 구축 및 보안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 중기 계획(3~4년)으로는 웹툰, 웹소설 외에 음원, 영상, OTT 콘텐츠 수집 확대,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 법적 지원 강화, 민간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 확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

---

템 확장 등을 제안하였음

- 장기 계획(5년~)으로는 차세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수집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 표준 준수 및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글로벌 협력 확대 및 다자간 협력 체계 강화, 첨단 기술을 통한 장기 보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I.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기대 효과



# I.

---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송신되는 자료’로 정의되며, 이는 전자책, 전자저널, 웹사이트,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포함함. 이러한 온라인 자료는 인쇄 자료와 달리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납본, 자체수집, 수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웹소설, 웹툰, 영상자료, 오디오북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는 수집 체계가 아직 미비한 상태임
- 온라인 K-콘텐츠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전통적인 출판물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K-콘텐츠는 그 자체로 상업적, 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임.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는 온라인 K-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K-콘텐츠가 유실되거나 보존되지 못

---

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K-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온라인 K-콘텐츠의 체계적 수집은 한국의 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1.2 연구의 목적

- 온라인 K-콘텐츠는 단순한 디지털 자료의 한 유형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콘텐츠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임. 또한 온라인 K-콘텐츠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통해 향후 연구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와 온라인 K-콘텐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 온라인 K-콘텐츠를 포함한 수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K-콘텐츠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연구의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수집 정책을 평가하고 그 한계점을 도출함. 특히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영상자료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현황을 검토하고, 이들 디지털 콘텐츠들의 체계적인 수집의 필



---

요성 여부를 검토함

- 온라인 K-콘텐츠의 정의와 수집 영역 설정
  - 법령과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을 구체화함. 수집 영역별로 온라인 K-콘텐츠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할 온라인 K-콘텐츠의 구체적 범위와 우선 수집 대상 콘텐츠를 도출함
- 국내·외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조사
  - 국외 주요 도서관,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가도서관 등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를 조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도출함.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제안
  -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제안함. 수집 전략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능동적 납본 및 자체 수집 추진 전략, 기반 환경 구축 전략을 포함함
-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 제시
  - 향후 5년간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을 마련함. 중장기 로드맵은 단계별로 수집 대상과 수집 방식을 구체화하고,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함

## 2.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에 기반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음
- 문헌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법령 및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등 법적 근거를 분석함
- 사례조사
  - 해외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를 조사하였음. 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가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 전략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도출함

- 전문가 인터뷰

- 국내 콘텐츠 분야 전문가, 저작권 및 법학 전문가, 웹소설과 웹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온라인 K-콘텐츠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작권, 기술적 문제, 법적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실무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구체화함

### 3. 기대 효과

- 온라인 K-콘텐츠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 자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국가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이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적인 인쇄 자료와 온라인 콘텐츠가 균형을 이루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될 것임
- 웹소설, 웹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K-콘텐츠는 자칫 유실될 위험이 큼.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온라인 K-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온라인 K-콘텐츠의 유실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존과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온라인 K-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 제공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한 온라인 K-콘텐츠의 보존 및 유통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

## Ⅱ.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현황

---

1.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정책
2.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3.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4.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수집 현황
5. 종합 및 시사점



## II.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현황

본 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과 수집 현황을 분석함.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종류, 온라인 자료 수집의 우선순위와 제외 규정,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을 살펴본 후,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1.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정책

#### 1.1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종류

##### 1) 온라인 자료의 정의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국민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사명을 가짐
- 도서관법 제3(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 되는 자료’임
  - 해당 정의에서의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공중송신은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을 의미함
  -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보존 대상 온라인 자료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통해 유·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해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의미함
- CD, DVD 등으로 유통되는 자료는 온라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표 II-1〉 「도서관법」 상 온라인 자료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2)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

-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2-2호에서 정의하고 있음
  -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크게 웹사이트와 웹자료로 구분됨
  - 웹자료는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 등),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로 세분됨
-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와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표 II-2〉 온라인 자료의 종류(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등 국내외 표준기구 및 표준체계에 따라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 1.2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규정

-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은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수집 방식임.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체수집)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함
  - (수증)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양도받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함
-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별로 온라인 자료가 갖춰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표 II-3〉 참조)
  -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

- (자체수집) 국제표준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제도 시행 전(2016년 8월) 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자료 및 CCL 자료,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 가능한 공개된 온라인 자료,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
- (수증)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 디지털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 외국에서 발간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저자(제작자)가 한국인이거나 그 내용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

〈표 II-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규정

구분		내용
납본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li> </ul>
	납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li> </ul>
	기한 및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2부 (복제 동의 시 1부)</li> </ul>
	납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li> <li>• 해당자료와 서지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송부</li> <li>• 해당자료와 서지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제공받아 직접 수집</li> </ul>
	보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용인 경우 정가 보상</li> </ul>
자체수집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제도 시행 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li> <li>•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li> <li>•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자료 및 CCL 자료</li> <li>•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 가능한 공개된 온라인 자료</li> <li>•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li> </ul>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li> </ul>
	수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기관·단체, 저작권자를 통한 수집</li> <li>•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다운로드 수집</li> <li>• 대량 수집이 필요한 경우,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li> <li>• 판매용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 수집</li> </ul>
	보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판매용인 경우 정가 보상</li> <li>• (음원) 1곡당 770원</li> </ul>
수증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장 자료</li> <li>• 디지털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li> <li>• 외국에서 발간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저자(제작자)가 한국인이거나 그 내용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li> </ul>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li> </ul>
	수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자(개인, 단체)가 이용동의서와 함께 자료 송부</li> </ul>
	보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보상</li> </ul>



### 1.3 온라인 자료의 수집 우선순위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지침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음
  - 온라인 자료는 디지털 형태의 보존과 이용 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 수집하며,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료를 우선 수집하되,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 장서를 보완하거나 충실화하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함
  - 전자책, 웹툰과 같은 웹자료는 대상에 따라 언어, 주제, 내용, 기능성, 파일형식, 이용자 요구, 출판사·저자 권위, 선정도구, 접근성, 기술적 문제, 유지와 갱신 등을 고려하여 수집함
  - 웹사이트는 신뢰성, 유일성, 적합성, 유용성, 가치성, 대중성, 언어, 시급성,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파일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여 온라인 자료 종류별 세부 수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집하고 있음. 온라인 자료 종류별 세부 수집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술적으로 수집 가능하며 유효한 웹사이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를 정량화된 방법으로 방문 수, 갱신빈도 등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수집·보존함
    - ▶ 한국 관련 콘텐츠와 관련하여, 한국과 한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으로 가치 있는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주제별로 큐레이션 해 수집·보존함
    - ▶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신설 또는 개편된 주요 기관의 개별 웹사이트, 국가적 행사·주제 컬렉션, 국가재난아카이브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관련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수집·보존함
    - ▶ 해당 주제의 웹사이트 외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 깊이 및 주기를 달리하여 수집·보존함
  -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의 디지털 포맷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인 문자자료는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포맷을 수집하되,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 수집함

- ▶ 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등은 최대한 수집 하되  
세미나 결과 보고 등 관련 문서류는 선별적으로 수집함
-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와 같은 음성·음향자료는 자료의 파일형식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WAV, MP3 파일을 우선 수집함
  - ▶ 오디오북의 경우, 자료의 최신성 및 작품별 판매율이 높은 오디오북을 우선  
수집함
  - ▶ 음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 자료, 국내 아티스트의 대중음악 자료, 인디 음  
악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함
-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와 같은 영상자료는 국내 지상 공중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수상작과 디지털매체(CD, DVD 등)로 입수되  
지 않은 방송 및 교육 관련 이러닝 자료로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품질 인증  
을 받은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자료의 파일형식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MPEG4 파일을 우선 수집함
  - ▶ 또한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일반·아동용 교육 관련 자료를 우선 수집함
- (이미지자료)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자료로써 사진,  
회화 등의 자료인 이미지자료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상과 풍속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와 세계 주요 미술품 및 건축물, 권위 있는 기관의 수상작 등 이용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자료의 파일형식이 여러 종  
류일 경우에는 TIFF, JPEG 파일을 우선 수집함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방  
법 중 보완수집을 위한 '매체변환'에 해당함
  -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중 매체변환 대상자료의 경우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와 동북아 지역의 발  
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함

〈표 II-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종류별 수집 우선순위

자료종류	세부 수집 우선순위	비고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으로 수집 가능하며 유효한 사이트를 수집·보존</li> <li>한국과 한국인 관련된 역사적 기록으로 가치있는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주제별로 큐레이션하여 수집</li> <li>신설 또는 개편된 주요 기관의 개별 웹사이트, 국가적 재난 및 행사, 특정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수집</li> <li>정량화된 방법으로 방문 수, 갱신빈도 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선별</li> </ul>	
문자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등은 최대한 수집 하되 세미나 결과 보고 등 관련 문서류는 선별적으로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 국제 표준 포맷 (PDF/A) 및 전자책 표준포맷(ePUB)을 우선 수집</li> </ul>
음성·음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의 최신성 및 작품별 판매율이 높은 오디오북을 우선 수집</li> <li>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 자료, 국내 아티스트의 대중음악 자료, 인디 음악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li> <li>원본에서 바로 추출된 무손실 위주의 고음질 파일 또는 비트 전송률이 높은 음원을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AV, MP3 파일을 우선 수집</li> </ul>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일반·아동용 교육 관련 자료를 우선 수집</li> <li>국내 지상 공중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수상작을 중점 수집</li> <li>디지털매체(CD, DVD 등)로 입수되지 않은 방송 및 교육 관련 이러닝 자료로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자료를 중점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PEG4 파일을 우선 수집</li> </ul>
이미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상과 풍속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li> <li>세계 주요 미술품 및 건축물, 권위 있는 기관의 수상작 등 이용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IFF, JPEG 파일을 우선 수집</li> </ul>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li> <li>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li> <li>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li> </ul>	

## 1.4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별 제외 자료

- 2023년 개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지침에 명시된 수집 제외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에 명시된 납본 제외 대상 및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국립

---

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에 따른 납본 제외 자료

- 자료의 용량, 성격, 기술적 문제 등으로 수집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 그 밖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 그러나 해당 수집 제외 자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음

## 1) 납본

- 납본 제외 대상과 관련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록 내용은 중복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에 명시된 납본 제외 규정을 제시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에 명시된 납본 제외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 다음과 같은 자료
    - ▶ 파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미기재자료,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50면(본문)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분량(글자수 등)에 상응하지 않는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됨)
    - ▶ 출판사항, 형태사항, 파일형식 등은 다르면서 내용이 동일한 복본자료
    - ▶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일반도서를 납본 시행일 이후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료
    - ▶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오픈 액세스 자료, 인공지능 기반 자동생성 자료, 저작권 만료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됨)
    - ▶ 족보, 영인자료, 단순 스캔자료
    - ▶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출판(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자료
    - ▶ 통상적인 유통경로나 판매 방식에 따라 판매·유통·제공되지 않는 자료
    -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
    -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납본 제외 자료 및 그와 유사한 자료

- 
-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 ▶ 보도자료, 홍보인쇄물 등 낱장 자료
    - ▶ 국가 안보 등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
    - ▶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한 자료
    - ▶ 표지, 판권지(면) 등 자료의 등록을 위한 정보원이 현저히 부족한 자료
    - ▶ 단순 발표 용도로 제작된 프리젠테이션(PPT 등) 형식의 자료
    - ▶ 그 밖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납본 제외 기준에 포함되는 자료

## 2) 자체수집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에 명시된 자체수집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외설적 성인용 자료이거나 특정 단체, 광고, 판촉, 상품정보 홍보를 위한 자료
  - 그 외 납본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명시된 자체수집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특정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OS) 환경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 워터마크가 포함된 자료
  - 공지사향, 공모문 등 단순 사실 전달 및 서식에 해당하는 자료
  - 잘린 파일, 표지나 목차만 있는 경우 등 온전하지 않은 자료

## 3) 수증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에 명시된 수증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이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자료
  - 그 외 납본 제외 기준과 자체수집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 2.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 2.1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

- 국립중앙도서관 입장에서 납본 전략은 「의무적 납본 수집 전략」과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의무적 납본 수집 전략」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을 저자(발행인)가 자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방식을 의미함
  -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납본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함.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중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은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의 주요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1)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 등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자료 시범 수집을 위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과 같은 웹툰 플랫폼과 웹툰 콘텐츠 수집 관련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2)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납본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플랫폼과 함께 웹툰 콘텐츠 수집 관련 협력 회의를 4회 진행함
-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국고지원사업 산출물 납본 수집 확대를 위한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4)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2월 지역자료수집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자료 납본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
-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학위논문 디지털파일을 연계하여 납본 받는 등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온라인 자료의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일반도서 납본대행 사업'을 통해서 일반 도서에 대한 「능동적 납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은 국내 발행·제작 신간 도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본 수집을 통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추진내용을 보면, 납본의무자(출판사)를 대상으로 납본제도 안내 등 납본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본 홍보를 통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현장 방문 납본 안내 및 미납본시 과태료 징수(도서관법 제55조) 안내를 하고 있음

## 2.2 자체수집 전략

- 자체수집의 경우, 자체수집 방식 자체가 국립중앙도서관의 「능동적 수집 전략」으로 볼 수 있음. 자체수집의 기본적인 목적은 납본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수집을 추진하는 것임
- 자체수집 전략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공공영역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간행물 수집 전담팀(이하 공공간행물팀)을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민간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1) 공공영역 자체 수집 전략

- ▶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간행물의 원활한 자체수집을 위해 공공간행물을 발간하는 정부 기관의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있음
- ▶ 수집되는 공공간행물은 기관보고서, 홍보 동영상, 웹진, 이미지송, 음원, 웹툰 등 다양함
- ▶ 2023년 기준,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에는 총 24,692개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표 II-5〉 참조).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는 매년 갱신되며 기관의 유

형별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함

〈표 II-5〉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2023년)

기관 유형	개수	전년도 대비 증감
정부기관	614	+ 1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1,238	+ 12
공공기관	327	-20
지방공기업	1,210	+ 122
특수법인	293	+ 3
대학	413	-4
학교	20,597	-1,144
합계	24,692	-1,019

- ▶ 2024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자체수집 대상 수집처 및 수집주기는 〈표 II-6〉과 같음. 공공간행물 자체 수집을 위해 다양한 수집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간행물 자체 수집 주기는 전반적으로 6개월 간격을 두고 있음

〈표 II-6〉 공공간행물 자체수집 대상 수집처 및 수집주기

수집처	수집주기
정부부처 기관 발간자료	2개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웹진 발간자료	6개월
공공기관 교육 웹툰	6개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자료	6개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정책자료	6개월
KISTI, NKIS, NCS 등을 통한 대량 납본	6개월

## 2) 민간영역 자체 수집 전략

- ▶ 전자책의 경우,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표준(KS) 원본파일 및 메타데이터가 수집 대상이며, 연 1회 한국표준협회 담당자에게 건적서 요청 후 협회로 자료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 보상금은 보상금(구독비) 명목으로 지급함
- ▶ 웹툰의 경우, 수집대상은 ISBN 부여 웹툰(납본) 및 ISBN 미부여 웹툰(수집)이며, 납본 의무가 있는 ISBN 부여 웹툰을 중심으로 협의하며, ISBN 미부여 자료까지 대형 플랫폼 유통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음. 납본은 플랫폼별 납본 대상 목록



을 추출 후 11개 플랫폼에 온라인 자료(웹툰) 납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ISBN 미부여 웹툰(수집)은 「웹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실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보상금 미지급)을 통하여 연1회 자료를 수집하며 납본은 119종 1,633건을, 수집은 2,943종 170,835건을 수집함

- ▶ 판매용 동영상 경우, 유통업체 11개 기관에 수집 제안목록을 요청 후 공정성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목록을 확정하여 유통업체에 납품을 요청함. 납품받은 자료는 검수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 ▶ 음원(음성음향)의 경우 장서관발과 비도서 납본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인수한 음원을 인계 받아 등록함
- ▶ 국립중앙도서관이 민간영역에서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한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7〉 국립중앙도서관 민간영역 자체 수집자료 현황

수집 구분	자료 유형	2020	2021	2022	2023
자체 수집	웹툰(회차)	133,116	11,948	15,139	10,888
	음원	27,653	13,492	24,266	22,831
	판매용 동영상	11,236	9,205	9,958	4,245

## 2.3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의 특징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 및 민간 저자(발행인)의 자발적 납본을 토대로 한 「의무적 납본 수집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한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영역 온라인 자료의 능동적 납본 수집을 위해서 공공간행물팀을 운영하고 민간영역 온라인 자료에 대한 자체 수집을 위해서 민간 기관(협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능동적 수집 수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3.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 3.1 일반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 현황과 함께 최근 7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추세를 수집 방식과 자료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출처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함
  -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
  -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안)
  -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주요업무계획

##### 1) 자료 종류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종류별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현황을 보면 웹사이트, 전자저널 등은 7년간 수집량이 가장 높았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료를 보면 웹툰(2023년), 이미지(2020년) 자료 등이 있음(<표 II-8> 참조)
  -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7년간 웹사이트(1,105,452건)와 전자저널(2,037,183건)을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함
    -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2017년 242,623건을 수집한 이후 꾸준히 수집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7,371건을 수집함
    - ▶ 전자저널은 2017년 1,290,994건이 수집되었으며, 이는 최근 7년간 수증을 통한 자료 수집 중 약 63.3%에 육박하는 수치로 나타남
    - ▶ 이미지자료는 2020년부터 수집을 시작하여 51,290건을 수집하였으며, 웹툰 또한 2020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10,888건을 수집함

〈표 II-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종류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2017~2023)

자료 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웹사이트		242,623 (5.72%)	220,247 (5.19%)	195,372 (4.61%)	133,354 (3.14%)	128,438 (3.03%)	128,047 (3.02%)	57,371 (1.35%)	1,105,452 (26.06%)
문 자 자 료	전자책	60,471 (1.43%)	38,281 (0.90%)	41,281 (0.97%)	75,503 (1.78%)	44,384 (1.05%)	44,016 (1.04%)	45,983 (1.08%)	349,919 (8.25%)
	전자저널	1,290,994 (30.44%)	51,240 (1.21%)	61,006 (1.44%)	231,131 (5.45%)	136,920 (3.23%)	128,399 (3.03%)	137,493 (3.24%)	2,037,183 (48.04%)
	학위논문	34,679 (0.82%)	36,103 (0.85%)	40,149 (0.95%)	35,434 (0.84%)	32,883 (0.78%)	32,617 (0.77%)	34,549 (0.81%)	246,414 (5.81%)
	공공간행물	11,525 (0.27%)	24,303 (0.57%)	36,635 (0.86%)	27,162 (0.64%)	27,019 (0.64%)	25,682 (0.61%)	33,765 (0.80%)	186,091 (4.39%)
	웹툰	- -	- -	- -	2,322 (0.05%)	380 (0.01%)	152 (0.00%)	12,160 (0.29%)	15,014 (0.35%)
음성·음향자료		36,381 (0.86%)	24,566 (0.58%)	23,981 (0.57%)	32,860 (0.77%)	29,803 (0.70%)	24,719 (0.58%)	24,695 (0.58%)	197,005 (4.65%)
영상자료		5,246 (0.12%)	5,986 (0.14%)	6,093 (0.14%)	11,236 (0.26%)	9,205 (0.22%)	9,958 (0.23%)	4,246 (0.10%)	51,970 (1.23%)
이미지자료		-	-	-	23,840 (0.56%)	19 (0.00%)	1,427 (0.03%)	26,004 (0.61%)	51,290 (1.21%)
합계		1,681,919 (39.65%)	400,726 (9.45%)	404,517 (9.54%)	572,842 (13.51%)	409,051 (9.64%)	395,017 (9.31%)	376,266 (8.87%)	4,240,338 (10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결과보고서(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참고) 웹툰의 경우 2022년까지는 작품의 종수이며, 2023년은 회차 수로 단순수치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 2) 수집 방식

- 최근 7년(2017~2023)간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II-9〉 참조)
-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7년간 자체수집(39.41%), 수증(37.95%), 납본(22.64%) 순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음
  - 납본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2022년까지 감소하였음. 2023년도에는 178,470건으로 증가하였음
  - 자체수집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7년부터 꾸준히 20만건 이상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023년 182,599건으로 감소함
  - 수증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7년에 1,346,167건을 수집하였음. 2017년도 수집량은 최근 7년간 수증을 통한 자료 수집 중 약 80.0%에 차지하는 수치임. 2020년 이후 수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 수집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표 II-9〉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방식별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2017~2023)

수집 방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납본	71,192 (1.68%)	87,464 (2.06%)	111,102 (2.62%)	222,709 (5.25%)	151,788 (3.58%)	137,219 (3.24%)	178,470 (4.21%)	959,944 (22.64%)
자체수집	<b>264,560</b> <b>(6.24%)</b>	<b>246,498</b> <b>(5.81%)</b>	<b>222,002</b> <b>(5.24%)</b>	<b>289,357</b> <b>(6.82%)</b>	<b>231,639</b> <b>(5.46%)</b>	<b>234,485</b> <b>(5.53%)</b>	<b>182,599</b> <b>(4.31%)</b>	<b>1,671,140</b> <b>(39.41%)</b>
수증	1,346,167 (31.75%)	66,764 (1.57%)	71,413 (1.68%)	60,776 (1.43%)	25,624 (0.60%)	23,313 (0.55%)	15,197 (0.36%)	1,609,254 (37.95%)
합계	1,681,919 (39.66%)	400,726 (9.45%)	404,517 (9.54%)	572,842 (13.51%)	409,051 (9.65%)	395,017 (9.32%)	376,266 (8.87%)	4,240,338 (10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결과보고서(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 3) 요약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종류 중에서 웹사이트와 문자자료(전자저널, 전자책, 학위논문, 공공간행물)을 주로 수집하고 있음. 반면, 문자자료 중 웹툰, 그리고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는 상대적으로 수집건수가 많지 않음. 이미지자료 및 웹툰은 2020년 이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자체수집과 수증 방식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납본에 의한 수집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었음. 한편, 자체수집의 경우 2020년 이후 수집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증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에 납본의 경우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3.2 수집 방식별 자료 종류 현황

### 51)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

- 전체적으로 보면, 납본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종류는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음성·음향자료임.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집 현황은 〈표 II-10〉과 같음

〈표 II-10〉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자료 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문 자 자 료	전자책	16,785 (1.75%)	16,998 (1.77%)	17,001 (1.77%)	22,598 (2.35%)	23,406 (2.44%)	19,391 (2.02%)	141,035 (14.69%)
	전자저널	5,190 (0.54%)	5,285 (0.55%)	11,174 (1.16%)	132,308 (13.78%)	64,025 (6.67%)	59,372 (6.18%)	361,856 (37.70%)
	공공 간행물	11,525 (1.20%)	24,303 (2.53%)	36,635 (3.82%)	27,162 (2.83%)	27,019 (2.81%)	25,682 (2.68%)	186,091 (19.39%)
	학위 논문	34,679 (3.61%)	36,103 (3.76%)	40,149 (4.18%)	35,434 (3.69%)	32,883 (3.43%)	32,617 (3.40%)	246,414 (25.67%)
	음성· 음향자료	3,013 (0.31%)	4,775 (0.50%)	6,143 (0.64%)	5,207 (0.54%)	4,455 (0.46%)	157 (0.02%)	24,548 (2.56%)
합계		71,192 (7.42%)	87,464 (9.11%)	111,102 (11.57%)	222,709 (23.20%)	151,788 (15.81%)	137,219 (14.29%)	959,944 (1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결과보고서(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참고) 음성·음향의 경우 2022년부터 통계기준이 “건→종”으로 변경되어 단순수치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전자책)의 경우 총 누적 141,035건이 납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특히 2023년은 24,856건이 수집되는 등, 19,391건이 수집된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자저널)의 경우 총 누적 361,856건이 납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수집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간행물)의 경우 총 누적 186,091건이 납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가장 많은 공공간행물이 수집된 해는 2019년으로 총 36,635건의 공공간행물이 납본을 통해 수집됨
- (학위논문)의 경우 총 누적 246,414건이 납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 방식으로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음성·음향)의 경우 총 누적 24,548건이 납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타 유형의 온라인 자료보다 수집량이 적은 편에 속함. 2021년 이후 수집량이 감소한 부분은 2022년부터 오디오북 등록 및 서비스 방법 변경으로 통계기준이 “건→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함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납본 유형으로 가장 많이 수집된 온라인 자료 종류는 전자저널(37.70%)이며, 학위논문(25.67%), 공공간행물(19.39%), 전자책(14.69%), 음성·음향(2.56%) 순으로 많이 나타남

## 2) 자체수집을 통한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수집을 통해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 종류는 웹사이트,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웹툰),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구성됨.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집 현황은 <표 II-11>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협력으로 음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협력으로는 웹툰, 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으로는 전자저널을 수집하고 있음<sup>1)</sup>
  - 국립중앙도서관은 관련 기관의 협력, 관련 연구 용역 진행,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보상체계 수립 등 자체수집 범위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II-11>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자료 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웹사이트		242,623 (14.52%)	220,247 (13.18%)	195,372 (11.69%)	133,354 (7.98%)	128,438 (7.69%)	128,047 (7.66%)	57,371 (3.43%)	1,105,452 (66.15%)
문 자 자 료	전자책	7 (0.00%)	20,265 (1.21%)	20,537 (1.23%)	34,074 (2.04%)	20,716 (1.24%)	24,485 (1.47%)	22,392 (1.34%)	145,257 (8.53%)
	전자 저널	-	-	-	56,884 (3.40%)	47,592 (2.85%)	45,862 (2.74%)	37,802 (2.26%)	188,140 (11.26%)
	웹툰	-	-	-	2,316 (0.14%)	321 (0.02%)	144 (0.01%)	10,888 (0.65%)	13,669 (0.82%)
음성· 음향자료		16,684 (1.00%)	-	-	27,653 (1.65%)	25,348 (1.52%)	24,562 (1.47%)	23,897 (1.43%)	118,144 (7.07%)
영상자료		5,246 (0.31%)	5,986 (0.36%)	6,093 (0.36%)	11,236 (0.37%)	9,205 (0.55%)	9,958 (0.60%)	4,245 (0.25%)	51,969 (3.11%)
이미지자료		-	-	-	23,840 (1.43%)	19 (0.00%)	1,427 (0.09%)	26,004 (1.56%)	51,290 (3.07%)
합계		264,560 (15.83%)	246,498 (14.75%)	222,002 (13.28%)	289,357 (17.31%)	231,639 (13.86%)	234,485 (14.03%)	182,599 (10.93%)	1,671,140 (10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결과보고서(2017~2023)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참고) 웹툰의 경우 2022년까지는 작품의 종수이며, 2023년은 회차 수로 단순수치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1) 노영희 외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 종류별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웹사이트)는 총 누적 1,105,452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는 자체 수집을 통한 전체 수집 건수 중 6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전자책)은 총 누적 145,257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납본을 통해 수집된 전자책 자료보다 4,222건 많은 수치임
  - (전자저널)은 2020년부터 수집이 시작되어 총 누적 188,140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이 시작된 2020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웹툰)은 2020년부터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13,669건이 수집됨
  - (음성·음향자료)는 총 누적 118,144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자체 수집을 통한 수집이 진행되지 않았음
  - (영상자료)는 총 누적 51,969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수집 건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미지자료)는 총 누적 51,920건이 자체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체 수집을 통한 수집이 진행되지 않았음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 수집을 통해 가장 많이 수집된 온라인 자료 종류는 웹사이트(66.2%)이며, 전자저널(11.3%), 전자책(8.7%), 음성·음향(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수증을 통한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

- 수증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자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는 전자저널(1,487,187건)이며, 전자책(67,753건), 음성·음향(54,314건), 영상(1건) 순임
- 전자책과 전자저널은 꾸준히 수증을 통해 수집되었으나, 음성·음향자료는 2020년 이후로 수집되지 않음
- 또한 전자책과 전자저널 모두 2020년부터 계속해서 수집량이 감소하고 있음

〈표 II-12〉 수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 종류 현황(2017~2023)

자료 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문 자 자 료	전자책	43,679 (2.71%)	1,018 (0.06%)	3,743 (0.23%)	18,837 (1.17%)	321 (0.02%)	148 (0.01%)	7 (0.00%)	67,753 (4.21%)
	전자 저널	1,285,804 (79.90%)	45,955 (2.86%)	49,832 (3.10%)	41,939 (2.61%)	25,303 (1.57%)	23,165 (1.44%)	15,189 (0.94%)	1,487,187 (92.41%)
음성· 음향자료		16,684 (1.04%)	19,791 (1.23%)	17,838 (1.11%)	-	-	-	1 (0.00%)	54,314 (3.38%)
합계		1,346,167 (83.65%)	66,764 (4.15%)	71,413 (4.44%)	60,776 (3.78%)	25,624 (1.59%)	23,313 (1.45%)	15,197 (0.94%)	1,609,254 (100.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결과보고서(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 4) 요약

-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모든 수집 방식을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 종류는 문자 자료 중에서는 전자책과 전자저널, 그리고 음성·음향자료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책: 자체수집(145,257건) > 납본(141,035건) > 수증(67,753건) 순
  - 전자저널: 수증(1,487,187건) > 납본(361,856건) > 자체수집(188,140건) 순
  - 음성·음향자료: 자체수집(118,144건) > 수증(54,314건) > 납본(24,548건)
- 납본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는 자료 종류는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이었음
- 자체수집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는 자료 종류는 웹사이트, 영상자료, 이미지자료이었음
- 수증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는 자료 종류는 없었음

### 3.3 공공 및 민간영역별 자료 종류 현황<sup>2)</sup>

- 2023년 기준, 공공 및 민간별 온라인 자료 종류 수집 현황은 다음 〈표 II-13〉과 같음
  - 공공영역에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총 44,787건(11.90%)이며 주로 전자책(웹툰 포함)과 전자저널, 웹사이트인 것을 알 수 있음

2)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와 주요업무계획'



〈표 II-13〉 공공 및 민간별 온라인 자료 종류 수집 현황(2023)

구분	문자자료		음성· 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 자료	웹사이트	합계
	전자책 (웹툰)	전자저널					
공공	35,734 (9.50%)	5,858 (1.56%)	62 (0.02%)	382 (0.10%)	0 (0.00%)	2,751 (0.73%)	44,787 (11.90%)
민간	86,589 (23.01%)	135,769 (36.08%)	24,633 (6.55%)	3,864 (1.03%)	26,004 (6.91%)	54,620 (14.52%)	331,479 (88.10%)
합계	122,323 (32.51%)	141,627 (37.64%)	24,695 (6.56%)	4,246 (1.13%)	26,004 (6.91%)	57,371 (15.25%)	376,266 (100.00%)

출처: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주요업무계획

- 민간영역에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총 331,476건(88.10%)이며 공공영역보다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특히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수집되고 있다고 보임

### 3.4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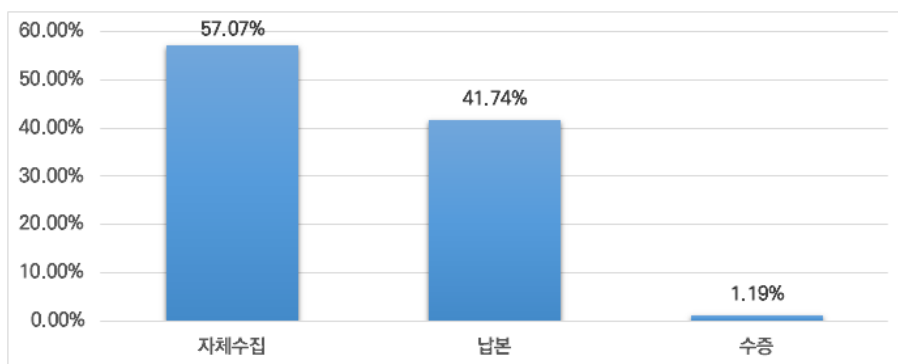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웹사이트와 문자자료(전자저널, 전자책, 학위논문, 공공간행물)를 주로 수집하고 있음. 반면, 웹툰(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는 상대적으로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이미지자료 및 웹툰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 대상으로 삼았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자체수집과 수증 방식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납본에 의한 수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
- 전자책과 전자저널, 음성·음향자료는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모든 수집 방식을 통해서 수집되고 있음
  - 공공간행물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의무적 납본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체수집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학위논문은 납본 방식으로만 수집되었음
  - 웹사이트,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는 자체 수집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민간영역에서 제작·발행된 온라인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는 거의 민간영역의 온라인 자료임

## 4.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수집 현황<sup>3)</sup>

여기서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현황을 분석함. 이를 위해서 최근 3년(2020~2022)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된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을 조사함

### 4.1 납본·자체수집·수증 비율

-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수집방식별 비율을 보면, 자체수집이 57.07%, 납본이 41.74%, 수증이 1.19%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 수집방식별 ISBN 발급 비율

- 자체수집(57.07%)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민간영역의 웹툰인 것으로 나타났다음
- 납본(41.74%)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공공영역이 20.11%, 민간영역이 21.6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 수증은 1.19%로 매우 적었음

3) 김규환 외 (2023). 국내 전자출판물 통계조사 기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 4.2 온라인자료 납본법 시행일 기준, 발행년별 수집 방식의 차이

- 2016년 8월 4일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주로 ‘자체 수집’ 방식으로 입수되었고,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주로 ‘납본’ 방식으로 입수되었음. 반면, 최근 2021년과 2022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납본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4.3 납본·자체수집·수증별 상위 5위 발행기관

- 납본의 경우는 주로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시대고시기회’, ‘조아라’, ‘영상출판미디어’가 포함되어 있음
- 자체수집의 경우는 주로 웹툰 발행기관들이 포함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네이버만화’, ‘네이버웹툰’, ‘피키투’이 있음
- 수증의 경우는 주로 ‘과학기술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가 포함되어 있음

## 4.4 ISBN 발급 전자출판물 현황

최근 3년(2020~2022)간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 대상으로 ISBN 발급 현황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ISBN을 발급받은 전체 발행기관은 6,534개 기관이었으며, 이들이 발급받은 ISBN 건수는 513,136건이었음
  - 발급된 ISBN 발급 건수 중 약 36%는 상위 20개 발행기관에서 발급되었음
  - 상위 20개 발행기관이 발급받은 ISBN의 총 건수는 182,808건임
-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자료 종류는 ‘전자책’으로 전체의 96.2%인 것으로 나타남. ISBN 신청 시 전자책에 웹소설과 웹툰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통계에서는 전자책에 웹소설과 웹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주제 분야는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 음. 전체 ISBN 발급건수 중에서 74.1%를 차지하였음
-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은 파일형식은 'epub2'였으며, 다음으로 'pdf'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ISBN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발행년별 ISBN 발급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에 발행된 전자출판물들이 가장 많았음. 한편, 1990년대 발행된 자료들도 최근 3년간 전자출판물로 ISBN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존에 발행된 인쇄본 자료를 전자출판물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5. 종합 및 시사점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종합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능동적 납본 수집 확대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수집과 수증 방식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음. 반면 납본에 의한 수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
-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의 납본율은 저자(제작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본을 해야 하지만, 실제 납본율은 일반도서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ISBN 발급건수 상위 10위 발행기관이나 ISBN 발급건수 200건 이상 발행기관 중에서 납본율이 50% 미만인 발행기관을 납본 독려 발행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자(제작자)의 자발적 납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납본 대상 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에는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 미납본된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율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2) 민간영역 웹툰,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의 자체수집 확대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웹사이트와 문자자료(전자저널, 전자책, 학위논문, 공공공간행물)를 주로 수집해 왔음. 반면, 웹툰(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는 수집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다만, 2020년 이후에 이미지자료와 웹툰 수집을 확대하고 있음
- 웹툰,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는 주로 민간영역에서 제작·발행한 자료인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문제, 상업적 이익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며,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들 자료의 수집이

---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영역에서 제작·발행한 웹툰,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수집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공공영역의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필요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의 88%가 민간영역에서 수집되었음. 공공영역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영역에서도 웹툰,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가 제작·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영역의 문자자료와 함께 웹툰,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에 대한 수집 전략 또한 필요함

### Ⅲ.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정의 및 수집 영역

---

1. 온라인 K-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온라인 K-콘텐츠의 정의
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
4. 공공 및 민간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 현황 조사





### Ⅲ.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정의 및 수집 영역

본 장에서는 온라인 K-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의 개념과 수집 영역을 정의하고 수집 영역별로 온라인 K-콘텐츠 현황을 조사함

### 1. 온라인 K-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1 ‘온라인’의 의미

- ‘온라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을 의미함
  -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공중송신」은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을 의미함
  - 온라인 K-콘텐츠에서 ‘온라인’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통해 유·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해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의미함
  - CD, DVD 등으로 유통되는 자료는 온라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1.2 ‘K-콘텐츠’의 의미

### 1) ‘콘텐츠’의 개념

-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임
-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에 제시된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콘텐츠’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문자, 음성·음향, 이미지, 영상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보면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제시된 ‘콘텐츠’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는 개념적으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콘텐츠’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과 연계성이 깊은 만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경우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보존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표 III-1〉 『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콘텐츠” 검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 2) ‘K-콘텐츠’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K-’ 접두어가 붙은 ‘K-콘텐츠’는 “국적성을 뛰어넘어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양식, 즉 한국 스타일(Korean Style)의 모든 콘텐츠”라고 의미를 가짐(이응규, 김용완, 2024)<sup>4)</sup>
- 흔히 한류(韓流)로 불린 K-콘텐츠 문화상품은 대장금 등의 드라마에서 시작되어

4) 이응규, 김용완 (2024). 지방소멸에 대응한 K-콘텐츠 중심의 위케이션 정책추진 방향 연구. 한국과 세계, 6(2), 217-240. <https://doi.org/10.22743/kwr.2024.6.2.217>

- K-팝으로 확장되어 발전되어 왔음. K-콘텐츠는 K-팝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기도 함(산업자원통상부, 2021a)<sup>5)</sup>
- 2011년 6월 10~11일 프랑스 파리 ‘SM타운’ 콘서트가 열렸을 때 ‘한류’가 아니라 ‘케이팝(K-PO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 2012년 9월 29일 자 미국 빌보드 Hot 100에서 싸이가 11위를 차지했고 그 뒤 7주간이나 2위를 기록했음(김현식, 2022)<sup>6)</sup>
  - ‘케이팝(K-POP)’은 일시적인 유행을 말하는 한류와 질적으로 다름. 다른 누군가가 타칭(他稱)하는 용어도 아님. 유행과 상관없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음. 당연히 K-콘텐츠도 그런 중심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개념임
  -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 중심의 한류에서 세계의 K-culture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K-콘텐츠로 인식하게 됨(정태일, 김연희, 2022)
    - K-콘텐츠는 아시아의 한류에서 세계의 한류로 확장된 K-culture의 다양한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K-콘텐츠는 한류로 인식되는 K-드라마, K-팝, K-영화 등을 뛰어넘어 한국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산업제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K-콘텐츠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K-콘텐츠가 한류라는 한국적 문화콘텐츠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K-드라마보다 K-팝, K-영화, K-뷰티, K-음식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연계되면서 역할을 하였음
  -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분류기준은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26개국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 2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 관련 실태조사임
    - 조사분야는 한류 관련 11개 분야로,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게임, 패션, 뷰티, 음식임
    -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은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66.1%로 나타났음

5) 산업자원통상부 (2021a). 키워드로 보는 K콘텐츠. 『통상』, vol.108, 6-7.

산업자원통상부 (2021b). K콘텐츠의 성과와 도전. 『통상』, vol.108, 19.

6) 김현식 (2022). [대중문화칼럼] 한류와 K-콘텐츠의 차이. 『천지일보』, 2022.1.4.

- 2023년 K-콘텐츠 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9개국 총 2,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한국 콘텐츠(8개 장르) 중 2개 이상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함
  - 조사분야는 총 8개로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패션, 신기술 융합 콘텐츠임
  - 장르별 충성도는 패션, 신기술 융합 콘텐츠가 매우 높았으며, 음악,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순으로 나타남
- 이상을 통해 볼 때, K-콘텐츠는 출판,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세계인의 관심에 따라 공연, 미술,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이들 영역의 경우 주로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유형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음
- 주요 연구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감안한 K-콘텐츠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Ⅲ-2〉 참조)
  - 한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한국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함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냄. 즉,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문화적, 교육적 콘텐츠는 민간영역의 콘텐츠 제작에 영감을 주고, 배경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촉진함. 민간영역에서 제작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는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국가 브랜딩 및 문화유산 홍보에 기여함

〈표 Ⅲ-2〉 K-콘텐츠 정의 관련 기타 참고문헌 정리

구분	관련 내용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는 한류의 영역을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물, 웹툰, 게임, 패션 제품/스타일, 뷰티 제품, 음식의 11개 영역으로 한정함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따라 순수예술(K-아트) 등 타 분야로도 관심 확산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음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K-콘텐츠는 한국콘텐츠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서비스 포함)이며, 그 분야는 영화·출판·인쇄·방송영상물·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디자인·광고·공연·미술·대중문화·전통문화 등(디지털 형태와 기술 융합 및 융복합 포함)임

구분	관련 내용
K-콘텐츠 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역대 정부는 문화강국을 표방하며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해 옴</li> <li>• 한 국가에서 생산된 문화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 국가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가지며, 그 문화역량이 국가 소프트파워의 구성요소로 기능하게 되므로 문화는 국가전략에 포함되어야 함</li> <li>•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견지하여 문화정책이 불필요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문화산업과 국가의 정책이 긴밀한 조화를 이루어 정부-민간영역 간의 협업을 이루는 것이 국가 문화전략의 핵심임</li> <li>• K-콘텐츠가 확산된다는 것은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확대는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K-콘텐츠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는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관련 생산 및 서비스 기업의 매출 및 수출 증가, 고용기회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양적, 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li> </ul>
이슈보고서_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콘텐츠 및 영향 소비재 분류 및 코드로 K-콘텐츠를 방송, 음악, 영화, 출판,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로 구분</li> </ul>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의 추진전략 중 하나는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으로, 한류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창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li> <li>• 이러한 추진 방향은 차세대 · 고품질 K-콘텐츠 창출 · 활용 지원, K-콘텐츠 보호체계 강화,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과 같은 콘텐츠 창출 지원과 피해 방지 대응으로 한정됨</li> </ul>
(보도자료) 우리 문화재와 K콘텐츠를 해외 도서관에 알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6월 1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간한 '국외한국문화재 총서' 1,000여 책을 기증받았으며, 해외자료교환용 자료 기준을 통해 해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의 한국학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뿐 아니라 K-문화 콘텐츠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힘.</li> </ul>
(보도자료) 국가 지성의 상징,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와 연구를 꽃피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 이외에 웹툰 · 웹소설 · 동영상 · AR/VR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발굴과 수집을 강화한다. 국내외 공공도메인에 공개되어있는 온라인 K-콘텐츠 4.4만 건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새로운 콘텐츠 창작에 활용되도록 제공한다.</li> </ul>
(보도자료) 케이-콘텐츠 세계적 약진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11년 연속 흑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콘텐츠 산업은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li> </ul>

### 3)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 K-콘텐츠 정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전문가 그룹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K-콘텐츠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K-콘텐츠의 수집이 불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논란 발생이 우려가 있음. K-콘텐츠 수출로 인해 생산 및 고용 유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국가 이미지 제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문화적 효과’도 같이 수반됨
- K-콘텐츠는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창작자가 제작한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닌 그 주체가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창작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K-드라마, K-팝, K-무비, 웹툰, K-예능, K-게임, 라이브 방송 등의 다양한 종류를 고려하였을 때 문자자료보다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동영상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웹소설, 웹툰 등의 문자자료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수집되어야 함

## 2. 온라인 K-콘텐츠의 정의

- 앞서 살펴본 ‘온라인’, ‘콘텐츠’, ‘K-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검토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K-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음
  - ‘온라인’은 CD나 DVD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된다는 의미임
  - ‘콘텐츠’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을 토대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속성을 포함할 수 있음
  - ‘K-콘텐츠’는 ‘한국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공공영역의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가 담긴 콘텐츠부터 민간 부문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문자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자료 형태에 더 집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함
-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K-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한국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공공영역의 문화적·예술적·사회적 가치가 담긴 콘텐츠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문자자료(웹소설, 웹툰 등)는 물론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아우른다.」

### 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

온라인 K-콘텐츠는 한국에서 창작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로, 공공 영역의 문화적·예술적·사회적 가치가 담긴 온라인 콘텐츠부터 민간 부문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포함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수립을 위해서, 온라인 K-콘텐츠를 공공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와 민간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수집 영역을 구체화함

#### 3.1 공공영역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공공영역 온라인 K-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공공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원에 의해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로서, 문화적·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함. 공공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발행된 콘텐츠

-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작한 정책 홍보 및 교육용 자료, 공공 캠페인 영상 등
- 외국어로 제작·발행되어 국외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관련 웹자료

##### 2) 문화진흥기관에서 생산·발행한 콘텐츠

- 문화진흥기관에서 공적 자금으로 제작·유통한 콘텐츠 및 해당 콘텐츠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이관 받아 국가 콘텐츠로 장기 보존 및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문화 콘텐츠

- 
- 문화진흥기관에서 생산하는 자체 기관 간행물

### 3) 문화유산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 한국 전통 공연, 음악, 미술, 문학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한 콘텐츠, 디지털화된 역사적 문서 등
-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아카이브
  - e뮤지엄(중앙박물관), 민속(민속박물관), 현대사(역사박물관), 공연예술(극장), 미술관, 문화포털 등의 아카이브

### 4) 지역 콘텐츠

- 지역 홍보 동영상, 지역 축제·행사의 영상, 사진 등
-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상을 담고 있는 콘텐츠
-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료
- 지역 아카이브

### 5) 해외 소재 콘텐츠

-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주요국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한국 관련 온라인 콘텐츠
- 재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원, 세종학당 등에서 생산하는 한류 관련 현지 행사 영상, 사진, 결과보고서, 홍보용 콘텐츠 등

## 3.2 민간영역

민간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는 한류(K-culture)로 대표되는 예술적, 문화적 콘텐츠부터 다양한 상업적·비상업적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함. 민간영역에서 제작된 온라인 K-콘텐츠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디지털 콘텐츠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들 콘텐츠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대중문화 콘텐츠

- K-팝: 한국의 대중음악 콘텐츠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음원, 뮤직 비디오, 공연 영상 등
- K-드라마, K-영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 온라인 OTT 플랫폼(예: 티빙, 쿠팡플레이, Netflix, 왓챠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
- 웹소설 및 웹툰: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운영하는 웹소설, 웹툰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 2) 엔터테인먼트 및 상업 콘텐츠

- 게임 콘텐츠: 한국에서 제작된 디지털 게임, e-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 및 유통 콘텐츠
- 민간 출판사의 전자책, 잡지, 오디오북: 상업적으로 출판된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출판물 등
- 음원: 멜론, 유튜브, 네이버, 벅스 등에서 유통되는 음악 콘텐츠

## 3) 창작자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

-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 개인 창작자가 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어 유튜브가 제작한 영상, 팟캐스트 등
-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현상과 관련된 창작물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

## 3.3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수집 방식 차별화

- 공공영역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납본, 자체수집, 수증을 통해 주요 공공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음
- 민간영역은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부문의 콘텐츠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상업적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 수집할 수 있음

## 4. 공공 및 민간영역의 온라인 K-콘텐츠 현황 조사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공공 및 민간영역별 온라인 K-콘텐츠와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되는 현황을 조사 분석함

### 4.1 공공영역 현황

#### 1)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문화콘텐츠 현황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도서관을 운영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만화 이론 관련 콘텐츠 전문도서 28,219권(2024.01.01. 기준)과 일반도서, 기타자료를 포함한 130,244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K-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간행물을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고 있으며 원문을 보유함
- KOCCA 포커스 등 정기간행물 1,46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대한 표기가 부착되어 있음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인문 플랫폼 '360', 국내 최대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학광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으며, 문예연감(47건), 백서(18건), 간행물(370건) 등이 수록되어 있음

##### ③ 한국문화원연합회

- '지역N문화'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문화원이 기획하고 제작한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이미지, 동영상, 전자책,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함
- 지역문화 Pick(504건), 테마스토리(11,574건), 포스트 큐레이션(48건), 지방문화원 자료(1,394,259건), 지역문화정보(51,031건), 웹툰(144건) 등 콘텐츠를 보유함

## 2) 재외 한국문화원의 문화콘텐츠

- 31개국 35개관이며, 재외 문화홍보관은 7개관이 운영 중임
- 각 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 관련 도서, 영상, 간행물 등 다수의 K-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문화원에 따라 다양함
- 문화콘텐츠를 보유 중인 2개 재외 한국문화원에 이메일 서면조사를 통해 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3>과 같음
  - (보유콘텐츠)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및 주일본 한국문화원 모두 영상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 (원본 보유현황) 두 문화원 모두 원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일본 한국문화원은 자체 제작 영상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
  - (보유원문 및 저작권)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은 활동 및 행사 관련 사진, 포스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상권자 동의하에 해당 내용을 등재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의향)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의 경우 국가적으로 엄격한 초상권 관리로 인해 제공이 불가하며, 주일본 한국문화원의 경우 교육,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제공 의향이 있음

<표 III-3> 재외 한국문화원 면담 내용 및 결과

구분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주일본 한국문화원
보유콘텐츠	• 영상콘텐츠 약 100건, 출판물 약 2,000건 등	• 영상콘텐츠 712건(협업 또는 외부 영상 포함) • 실제 영상콘텐츠 660건
원본 보유 현황	• 원본 보유	• 자체 제작 영상 중심 보유
보유원문 및 저작권	• 한국문화원 활동 및 행사 관련 사진, 포스터 • 문화원 플랫폼에 비상업적인 용도로 초상권자 동의하에 등재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의향	• 제공 의향 없음 • (스웨덴의 엄격한 초상권 관리)	• 한국문화의 교육, 홍보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제공
제공을 위한 기관차원 문제	•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 • 참가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	•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해결 문제	•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	• 영상제작 후 유튜브에 업로드 시 영상 파일이 커 납본 시 시스템을 통한 해결 필요

- (제공을 위한 기관 차원의 문제) 두 기관 모두 초상권의 문제 및 개인 이용 동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은 저작권 및 초상권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일본 한국문화원은 영상 파일이 커서 업로드 시 시스템적 문제 해결이 필요함

### 3)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아카이브

#### ① 전국박물관소장품 검색 포털 'e뮤지엄'

- 운영기관: 국립중앙박물관
- 소장자료: 361개 기관의 2,576,960개(2024.05.26. 기준)의 소장품을 아카이브하고 있음

#### ②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

- 소장자료: 전체 콘텐츠 수는 196,864건(2024.05.27. 기준)이며 이는 작품 자체의 아카이브뿐만이 아닌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를 포함함
- 콘텐츠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콘텐츠별 저작권자가 있음

#### ③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

- 운영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소장자료: 홍보물, 간행물,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70,994건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
- ACC 활동자료는 홍보물, 간행물,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6,718건이며, 이는 사진과 같은 화상자료부터 홍보물, 음성자료, VR자료를 포함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기록뿐만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의 소장자료,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함
- 콘텐츠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 ④ 국립극단 아카이브

- 운영기관: 국립극단
- '공연/활동, 인물/단체, 작품, 장소, 공연자료, 학술/보도, 사건, 등장인물'의 총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이용이 가능함

#### 4) 지역문화도시사업, 지역별 특화 콘텐츠 등 지역문화콘텐츠

##### 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4~2019) ➤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이후)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2014~2019)
-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0년을 기점으로 지방이양대상사업이 되었으며, 2019년까지 누적 8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문화도시형’과 ‘문화마을형’으로 구분됨
-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0년(7개소), 2021년(5개소), 2022년(6개소), 2023년(6개소)

- 경기도 부천시: 전체 469건의 지역문화자료를 법정문화도시 문화도시 부천 아카이브에 수집·관리(영상자료, 발간자료, 사진자료 등)
- 충북 청주시: 전체 443건의 지역문화자료를 법정문화도시 문화도시청주 아카이브에 수집·관리(건축, 국악, 공예, 문학 등)

##### ② 지역문화재단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코리아랩, 지역스토리랩, 음악창작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소재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콘텐츠 기업 대상 창·제작지원, 사업화,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역에 콘텐츠코리아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III-4〉 전국 콘텐츠 코리아랩 설치 현황

구분	내용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웹툰 교육, 플랫폼 마케팅 지원,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li>•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ul>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창업캠프,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웹소설 데뷔 프로젝트, 캐릭터 상품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li>•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ul>
인천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콘텐츠 입문,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게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li>•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ul>

구분	내용
광주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과 성장 단계에 따라 약 79개에 달하는(2024년 기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대전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예비창업자 제작지원사업, 콘텐츠 클라우드펀딩 모집, 웹소설작가 창작지원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총 94건이며, 영상 콘텐츠, 웹툰 등이 있음</li> </ul>
울산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소설 창작 아카데미, 로맨스 웹소설 PD특강, 캐릭터 굿즈 창작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마케팅 지원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2023 K-콘텐츠 영화·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드라마, 영화 4편이 방영되었거나, 내년 방영 및 제작을 앞두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툰, 캐릭터 창작공모전, 콘텐츠 제작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총 220건에 달함. 이중 웹툰 46건, 애니메이션 5건, 게임 5건, 실감콘텐츠 18건은 강원콘텐츠코리아랩 포털에서 원문을 직접 이용할 수 있음</li> </ul>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캐릭터콘 캐릭터 굿즈 상품화 과정 등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창/제작 지원, 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네트워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프로그램, 대학 우수 콘텐츠 발굴,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는 약 110건 이상이며, 주로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및 플랫폼임</li> </ul>
전북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지원 사업, 강사초청 세미나, 스타트업 캠프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는 총 178건으로 일러스트, 조형물, 웹툰, 기획/서비스, 영상/공연/음악, 기타/공예품으로 하위 분류를 갖추고 있음</li> </ul>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툰 창작 아카데미, 영상 창작 아카데미, 프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 양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총 9건으로 웹툰, 영상, 콘텐츠창작물, 기타 등으로 나뉘어짐</li> </ul>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 지원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온라인교육, 지원사업, 공모전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하위 분류에 따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경남형 스포츠 제작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총 102건이며, 창/제작지원, 교육지원,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li> </ul>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마케팅,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스토리, 캐릭터 등 아이디어 생성 지원 사업, 음향콘텐츠 제작 교육 과정 등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음</li> <li>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총 173건임</li> <li>콘텐츠는 제작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캐릭터, 영상 콘텐츠, 스토리, 음악, 만화/캐릭터, 만화/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제작 및 유통, 공간 콘텐츠 기획, 스포츠영상콘텐츠 등으로 분류됨</li> </ul>

- 지역에 위치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포털에서 아카이브하고 있는 콘텐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I-5〉 전국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포털 아카이브 현황

구분	내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아카이브하고 있는 K-콘텐츠 관련 플랫폼 및 콘텐츠는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오픈 플랫폼 K-SOUND LIBRARY가 있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운영사업’, ‘전남관광 VR 콘텐츠 제작사업’ 등이 있음 • 이 중 전남관광 VR 콘텐츠 제작사업의 경우, ‘VR전남관광’유튜브 채널을 통해 86개의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영상복합문화관, 음악진흥센터, 글로벌게임센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메타버스지원센터 등 다양한 산하 기관을 통해 콘텐츠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CGI센터는 촬영스튜디오 사업을 통해 생산한 영상 콘텐츠 38건을 아카이브하고 있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콘텐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문화콘텐츠 시장창출 지원사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대전음악창작소 운영사업, 대전 웹툰캠퍼스 운영사업 등이 있음 • 대전음악창작소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음원 콘텐츠 8건을 자체 포털에 아카이브하고 있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강원콘텐츠코리아랩, 강원음악창작소,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강원창작개발센터,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산하 기관을 통해 콘텐츠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강원음악창작소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영상 콘텐츠 75건을 자체 포털에 아카이브하고 있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사업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사업의 결과들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포털 사이트에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과보고서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음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 대구웹툰캠퍼스,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대구글로벌게임센터, 대구VRAR제작거점센터, K-Digital Platform 등 다양한 산하 기관을 통해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대구웹툰캠퍼스는 공모전 수상작 21건, 간행물 ‘대구웹툰’ 5건, 창작프로그램 결과물 126건을 아카이브하고 있음

## 5) 한류 관련 현지 행사 영상, 사진, 결과보고서, 홍보용 콘텐츠 등 외국어로 제작·발행되어 국외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관련 웹자료

- ① 유튜브에서 ‘K-Contents’를 검색하여 외국어로 제작·발행되어 국외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관련 콘텐츠 주요 생산자 확인함

- 한국 관련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음
- Netflix K-Content 등 민간영역의 K-콘텐츠를 소개하는 외국어로 제작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수 확인함

## ② 주요채널

- Imagine Your Korea(한국관광공사): 2011년 6월 22일에 개설되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서 구독자 109만명(2024.05.27. 기준)임. 총 영상 개수는 797개이며, 조회수 합계는 3,647,402,088회임
- KOREAZ(외교부): KOREAZ는 2013년 10월 10일에 개설되어 외교부에서 공공 외교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서 구독자 12만명(2024.05.27. 기준)임. 총 영상 개수는 1,258개이며, 조회수 합계는 32,542,179회임
- KCULTURESCENE(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0월 21일에 개설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한국문화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서 구독자 1,33만명(2024.05.27. 기준)임. 총 영상 개수는 81개이며, 조회수 합계는 2,681,572회임

## 6) 국제기구·국제회의 및 주요국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 국제기구 UNESCO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 온라인 콘텐츠는 1,107건을 확인함

## 4.2 민간영역 현황

- 민간영역은 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OTT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웹툰 영역

- 「2023년 2분기 만화·웹툰 유통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만화·웹툰 유통 플랫폼은 총 34개이며, 출판사는 178개임



- 2023년 2분기 만화·웹툰 유통 작품수는 웹툰 5,350작품이며, 출판만화 1,089권, 전자책 21,044권임<sup>7)</sup>
- 웹툰 등록작품 5,350작품 중 기성작품은 1,349작품이며, 신작은 4,001작품이었으며, 플랫폼 중복 연재를 제외한 신작은 1,070작품임
- 2024년 5월 기준 네이버시리즈 만화는 46,257건, 카카오웹툰 16,093건, 미스터블루는 웹툰 2,502건과 만화 41,715건, 무툰은 웹툰 667건과 만화 5,573건이 있음
- 만화(웹툰)산업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네이버, 디엔씨미디어, 키다리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웹툰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웹툰사업체 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sup>8)</sup>
  - 2022년 웹툰 산업 추정 규모는 18,290억 원으로, 2021년 추정치 15,660억 원에 비해 116.8% 상승하였음
  - 조사 대상 165개의 사업체 중 2022년 기준 웹툰 콘텐츠를 수출한 사업체는 43.6%이었으며, 해외 수출 중인 업체가 답한 가장 높은 수출 목적지는 45.6%을 차지한 일본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2,220,2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148개의 사업체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매출액 수치는 '10억 원 미만'이었으며, 52.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이는 2021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1.4%가 증가한 수치며, 해당 결과를 통해 새로운 중소 사업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2) 웹소설 영역

- 웹소설 관련 주요 플랫폼은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노벨피아, 미스터블루, 무툰 등이 있음
- 2024년 5월 기준 조사 결과, 네이버시리즈 웹소설은 91,107건, 카카오페이지 웹소설은 49,746건, 노벨피아 웹소설 자유연재는 34,320건과 웹소설 플러스연재 6,541건, 미스터블루 장르소설은 92,641건, 무툰 소설은 15,145건이 있음

7) 2023 만화 웹툰 유통 통계 자료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대상 파악은 대표적인 웹소설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웹페이지에 콘텐츠 숫자가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웹소설은 전자책과 중복되거나 다른 장르 소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유통되는 상황임. 인기 있는 웹소설의 경우 전자책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 납본법을 적용하여 수집 가능성 있다고 보임
- 2022년 전자책 유통 사업체 38개를 대상으로 국내 전자책 유통 산업 매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5,60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절반 이상인 3,194억 원이 웹소설 분야의 매출액으로 분석됨<sup>9)</sup>

### 3) 동영상 영역

- (동영상) 유튜브 한류 관련 영상 콘텐츠 조사 결과
  - 민간 유튜브에서도 한국의 문화재나 자연환경, 음식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콘텐츠 채널을 찾아 자료 수집 가능
  - 민간 유튜브의 예를 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서는 동영상 95건, gogomong (고고몽)에서는 동영상 382건에서 K-관광과 관련한 한국의 관광지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하고 있음
  - 현재 네이버시리즈온에서 영화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영화는 29,988건과 방송은 10,149건이 있음(2024.05.20. 기준)
  - 방송 관련 동영상은 다시 보는 KTV 유튜브에서 K-드라마가 2,698건이 있음
-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외국인이 찍은 한국 콘텐츠는 영국남자 Korean Englishman 채널 영상 674건과 구독자 599만 명이고, 한국 방송을 짧은 시간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디글:Diggle 채널 영상 46,747건과 355만 명 구독자가 있음

### 4) 음원 영역

- 음원 관련 대표적 플랫폼은 멜론, 유튜브, 네이버, 벅스 등이 있으며, 멜론의 경우 약 92,874건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음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전자책 시장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음원의 경우, 오디오북 관련 콘텐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네이버오디오클럽은 오디오북 콘텐츠 23,984건과 함께 오디오 채널은 6,650건을 서비스하고 있음(2024.05.20. 기준)
- 유튜브 채널의 경우 Mnet K-POP 채널은 영상 37,388건과 구독자 2,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Mnet TV 채널은 영상 24,036건과 910만 명 구독자가 있음
- 음악산업 상장사 총액은 하이브, JYP, SM, YG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나타났음

## 5) OTT 영역

- 국내 OTT 콘텐츠 현황을 보면 왓챠의 K-드라마는 255건과 K-애니메이션은 358건, 티빙은 K-영화는 111건과 K-체육은 160건, 한국영화의 K-영화는 14건, 쿠팡플레이의 K-교육은 31건과 K-영화는 300건과 K-드라마는 124건임
- 투니버스는 K-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채널로 4,510건이 있음
- 올영 TV는 K-뷰티 홍보에 대한 영상 640건 있음
- Netflix K-Content 등 민간영역의 K-콘텐츠를 소개하는 외국어로 제작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수 확인함
- 영화산업 상장사 총액은 CJ CGV, 위지윅스튜디오, 쇼박스 순으로 나타남
- 영화의 경우 저작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OTT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에 있어 대행업체를 통한 상장사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IV.

#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 및 동향 분석

1. FGI 개요
2. 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
3. 국가 차원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의 필요성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방법 및 전략
5. 민간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의 입장
6.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
7. 종합 및 시사점



## IV.

#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 및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콘텐츠 분야 전문가, 저작권 및 법학 전문가, 웹소설과 웹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국내 온라인 K-콘텐츠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작권, 기술적 문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동향을 살펴봄

### 1. FGI 개요

- FGI의 목적: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5명의 전문가(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네이버 웹툰 관계자, 법학과 교수, 웹소설 전문가)
- 방법: 서면 및 대면 면담
  - 5명의 전문가에게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요청하여 이 중 4명이 응답하였음. 이후 6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5명의 전문가와 함께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함
- FGI의 질문 문항은 <표 IV-1>과 같음(질문지는 <부록 1> 참조)

〈표 IV-1〉 FGI 질문 문항

질문 영역	질문 문항
<b>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b>	
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종류</li> <li>주요 이해관계자</li> </ul>
유통 플랫폼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유통 플랫폼의 특징</li> <li>플랫폼별 콘텐츠 유형 및 주요 이용자층</li> </ul>
<b>2.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필요성</b>	
수집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보존해야 하는 이유</li> <li>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li> </ul>
수집 대상 콘텐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온라인 K-콘텐츠 유형</li> <li>콘텐츠 선정 기준</li> </ul>
<b>3. 수집 방법 및 전략</b>	
민간콘텐츠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콘텐츠 수집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li> <li>민간기관과의 협력 방식에서 효과적인 방법</li> </ul>
공공콘텐츠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콘텐츠의 수집 방식</li> <li>공공 아카이브의 수집 절차</li> </ul>
기술적 지원 및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및 공공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li> <li>수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li> </ul>
<b>4. 민간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의 입장</b>	
부정적인 입장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li> <li>콘텐츠 제공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li> </ul>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적 입장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li> <li>협력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요구</li> </ul>
긍정적 사례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기관과의 협력 사례 중 성공 사례</li> <li>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이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li> </ul>
<b>5.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b>	
참여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및 공공기관의 콘텐츠 납본·기증 유도 방안</li> <li>참여 저해 요인 및 극복 방안</li> </ul>
보상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납본 및 기증을 위한 보상·인센티브</li> <li>인센티브의 기대되는 효과성</li> </ul>
홍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활동 홍보 방안</li> <li>관련 기관 및 대중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li> </ul>
<b>6. 추가 의견 및 제안</b>	
기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 전략에 대한 기타 제안</li> <li>추가 논의 주제 혹은 문제점</li> </ul>



## 2. 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

### 2.1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종류

- 현재 K-콘텐츠는 장르에 따라 유통되는 플랫폼이 다양함
- 웹툰: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 웹소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문피아, 리디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외에도 노벨피아, 원스토어, 블라이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나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시리즈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편임  
(\* 문피아는 네이버시리즈의 자회사가 되었음)
- 동영상: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UCC가 유통되고 있음
- 음원: 멜론, 지니, 벅스 등
- 영화, 드라마 등 방송영상: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전자책: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선점한 유통사를 중심으로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으나 사업자 간 DRM 기술의 상호호환이 되지 않아 유통시장의 확대가 제한적임

### 2.2 주요 이해관계자

- 온라인 K-콘텐츠의 유통경로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는 아래와 같음
  - 작가: 개인 창작자
  - CP(Content Provider): 온라인 K-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출판사)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작된 K-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
  - 이용자
- 위의 이해관계자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개인 창작자의 다양한 유통을 어렵게 하기도 함. 예를 들어, 웹소설의 경우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시리

즈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자체 플랫폼 프로모션이 없으면 작품이 팔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K-콘텐츠 해외 유통 관련 시장은 매우 다양한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2.3 주요 유통 플랫폼의 특징 및 주요 이용자층

- 주요 유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 주요 이용자층, 주요 특징 및 한계점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음

<표 IV-2> 주요 유통 플랫폼의 특징

구분	콘텐츠 유형	주요 이용자	주요 특징	한계점
네이버 시리즈	웹툰, 웹소설 원작 드라마, 독점 영화	청소년, 20~30대, 웹툰 및 웹소설 팬	영화, 드라마보다는 웹툰, 웹소설이 주요 콘텐츠이며 국내 이용자로 한정됨	글로벌 콘텐츠 부족 및 독점 드라마 영화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 어려움
카카오 페이지	웹툰, 웹소설 원작 드라마, 독점 영화	청소년, 20~30대, 웹툰 및 웹소설 팬	영화, 드라마보다는 웹툰, 웹소설이 주요 콘텐츠이며 국내 이용자로 한정됨	글로벌 콘텐츠 부족 및 독점 드라마 영화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 어려움
웨이브	국내 지상파(드라마, 예능) 독점	가족, 어린이, 20~40대, 국내 방송 콘텐츠 팬	KBS, MBC, SBS, SK텔레콤의 합작사로 실시간 지상파 TV 및 VOD 제공, 다양한 국내 방송사 콘텐츠 제공	국내 지상파 방송 위주로 해외 콘텐츠 부족
티빙	CJ ENM 독점 콘텐츠(드라마, 예능 등), 독점	20~40대, CJ ENM 콘텐츠 팬	케이블 방송(CJ ENM 콘텐츠 제공) 실시간 케이블 TV 및 VOD 제공	케이블 방송 위주로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유튜브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사용자 생성 콘텐츠	모든 연령대, 콘텐츠 크리에이터 팬	다양한 콘텐츠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누구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전세계 누구나 시청 가능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문제, 많은 광고로 인한 시청 경험 저하
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킹덤, 종이의 집 등), 독점 영화 및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가족, 어린이, 20~40대, 글로벌 콘텐츠 팬	글로벌 투자를 통해 나라별 독점 콘텐츠를 다수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 제공	콘텐츠의 양은 방대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HBO 맥스 등의 등장으로 인기 콘텐츠 독점 확보가 어려움
Disney +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시리즈, 독점 애니메이션 및 영화	가족, 어린이, 20~30대, 글로벌 콘텐츠 팬	디즈니의 고유 콘텐츠(픽사, 마블, 루카스, 지오그래픽, 폭스)를 독점하여, 가족 친화적 콘텐츠 제공	국가별로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 
-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이 주요 콘텐츠로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다양하나 유료 결제를 하는 비율은 30대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는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이 낮음
  - Netflix와 Disney+는 어린이, 가족을 포함하여 글로벌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3. 국가 차원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의 필요성

#### 3.1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보존해야 하는 이유

- 온라인 K-콘텐츠는 제작사(권리자), 유통사가 주로 온라인상으로 보유하는 형태로서 콘텐츠의 파기, 유실, 변경 등에 취약하며, 빈번한 저작권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해 콘텐츠의 권리처리가 복잡해져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한 해에 수천 개 이상 창작되는 콘텐츠의 경우, 대형 유통사를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 창작자나 중소 제작사 또는 유통사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만약 창작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혹은 기업이 폐업을 했을 경우 콘텐츠가 영원히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수집 및 보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중한 K-콘텐츠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3.2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 그 세대의 시대상과 가치가 담겨있는 국가의 중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음
- K-콘텐츠의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수집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계정보를 보유·제공할 수 있음(예: 연도별/장르별 제작 콘텐츠 수, 참여 창작자/제작사 현황 등)

### 3.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온라인 K-콘텐츠 유형과 선정기준

#### 1) 공공영역의 수집대상 콘텐츠

- 지자체 차원 사업, 지자체 연구원(예시: 경기도 연구원) 콘텐츠: 기관에 따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실 위험이 높아서 수집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다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지역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브에서 관리되는 콘텐츠는 유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지역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 관리자에 따라 유실의 가능성이 높은 아카이브도 있으므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저작권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누리 자료: 저작권 처리가 이미 되어 있어서 수집에 법적 장애가 없음. 다만, 자료 유실의 위험성이 낮고 수집이 용이하여 수집의 시급성은 낮음

#### 2) 민간영역의 수집대상 콘텐츠

- 폐업한 소규모 CP사 콘텐츠: 폐업 신고한 소규모 CP사들이 보유한 콘텐츠들은 유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집의 대상이 됨. 이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컨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웹툰 아카데미나 아마추어 작가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존가치가 낮을 수 있음
- 공모전 수상작, 역사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 웹소설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보존가치가 낮은 작품들도 많음. 공모전 수상 작품이나 웹소설의 계보에서 의미를 가진 작품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추천함
- 작가가 웹소설을 완결한 후 일반적으로 1차, 2차 유통플랫폼과 각각 독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유통 플랫폼들과 비독점 계약을 하게 됨. 대체로 완결 후 3~5년이 지나면 작품의 인기가 낮아지고 작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함. 이 시기에 작가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

웹툰은 완결이 되어도 계약이 갱신되고 다른 유통플랫폼으로 옮기는 일이 적어서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3) 콘텐츠 선정 기준

- 우선 수집되어야 하는 콘텐츠의 선정 기준은 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콘텐츠, ② 오프라인으로 생성하지 않은 콘텐츠, ③ 제한적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 ④ 온라인 시장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수많은 양의 콘텐츠를 모두 특정 선정 기준에 맞춰 평가하여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한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 해에 제작되는 개수가 적은 콘텐츠(예: 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다큐-게임-음악-웹툰-웹소설 순)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K-콘텐츠의 중요성 및 경중을 고려하여 제한된 장르 위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웹툰은 국내 시장을 비롯하여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대표 K-콘텐츠임. 또한 웹툰이 출판, 영화, 드라마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장르에 비해 시급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용 예산, 스토리지 상황, 창작자·제작사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스토리지의 경우, UHD급의 영화 한 편의 용량이 수십~수백 기가바이트(GB)에 육박하는데 비해, 웹소설 한편은 1~2메가바이트(MB)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구축 가능한 스토리지 상황을 고려해야 함

##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방법 및 전략

### 4.1 공공기관 콘텐츠 및 아카이브 수집 방식

- 해당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 이와 함께 콘텐츠의 수집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회나 기관별로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필요함
- 공공기관이 생산한 콘텐츠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www.kogil.or.kr](http://www.kogil.or.kr))에서 수집하는 콘텐츠에 대한 상호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함.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등록된 저작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공공누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 협약서에 저작권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산출물인 콘텐츠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 가능케 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음. 유사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사업의 경우 조달청과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시행 중임
-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아카이브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기 전에 해당 자료의 저작권의 권리자 또는 권리 지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 4.2 민간 콘텐츠 수집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

- 사전에 수집하는 대상인 K-콘텐츠를 보유한 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 대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OpenAPI, ftp, 웹 크롤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만, 웹 크롤링은 수집에 대한 차단 및 법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원작자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 만큼 창작자·제작사가 직접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임

- 
- 그러나 유통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서 콘텐츠 파일을 직접 송부하기보다는 URL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함

#### 4.3 민간 기관과의 협력 방식에서 효과적인 방법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 기관 중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수집되는 유통사(사업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약 등을 통해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이 K-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K-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또는 창작자에게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경로 마련이 필요함
- 콘텐츠산업 내에서도 장르별(만화웹툰, 게임, 방송, 음악, 영화, 대중예술 등)로 수많은 창작자와 제작사, 유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이들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관련 협단체나 유관기관(예,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함
- 공개 설명회 개최를 통한 참여 독려도 필요함

#### 4.4 민간 및 공공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 사항

- 민간 입장에서는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금전적, 인력적 어려움을 토로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개발한 공용 API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공용 AP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기관 측에서 개발, 관리,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및 공공의 협력 확대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4.5 수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요구 사항

- 온라인 K-콘텐츠를 저장·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장 용량의 공간이 필요함. 단순한 서버, DB, Array 장비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 민간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의 입장

### 5.1 온라인 K-콘텐츠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및 우려사항

- 보안: 납본 형식으로 파일을 보관하게 될 때 텍스트 파일의 보안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수입 감소: 해당 콘텐츠를 전자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소모성이 강한 웹콘텐츠의 특성상 작가들의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저작권: 콘텐츠 제공에 관한 제도적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콘텐츠의 권리 처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사업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통 플랫폼은 배타적 온라인 전송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가나 CP사와 접촉하여 저작권 허락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술 및 인력 한계: 수집하는 콘텐츠의 용량이 방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어떻게 수집해서 데이터 처리 및 보관을 할지, 이를 진행할 정도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기술적 문제: 콘텐츠의 보존 및 장기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 저장 공간 및 뷰어 등 솔루션 개발이 필요함
  - 인력 문제: 웹툰이나 웹소설 1회당 파일 수가 상당히 많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화면에 배치하는 인력 확충이 필요함
- 수집 효율성: 국내 유통되는 웹툰, 웹소설, 동영상 등 다양한 K-콘텐츠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저하됨

### 5.2 부정적 입장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 및 지원 요구사항

- 콘텐츠의 보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개발, 관리, 인력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 보상 또는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일반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 확대가 중요함

- 유통 플랫폼, CP사, 작가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5.3 타 기관과의 협력의 성공 사례

- 타 기관과의 콘텐츠 수집을 위한 협력 사례 중 성공적인 사례로 저작권위원회의 음원권리정보통합DB 운영 모델을 들 수 있음. 이용자(방송사) 및 권리자(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음원 및 권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선정하였음.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탁관리단체 및 개별 제작자 또는 유통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승인 받은 후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음

### 5.4 온라인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 중소 제작 및 유통사가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실 문제 등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중소 제작 및 유통사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질 좋은 콘텐츠의 사장을 방지하여 창작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재창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수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저작권 유관기관의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6.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

### 6.1 온라인 K-콘텐츠 납본·기증 유도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보존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금전적, 제도적)
-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적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 납본에 관한 성실한 수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콘텐츠를 납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6.2 참여 저해 요인 및 극복 방안

- 민간 기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제화 단계에서부터 반발이 예상되며, 결국 민간 기관에게 금전적 지원(콘텐츠 구입비+추가 지원) 또는 제도적 지원(면세 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자신의 재산권을 기증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함

### 6.3 보상·인센티브 방안 및 효과성

- 납본 및 기증자의 자부심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본 및 기증을 할 경우 성실한 납본인상 또는 명예기증인상 등을 수여하여 도서관 등에 전시하

---

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기증 시 소정에 상품 제공 또는 명예 도서관증을 수여할 수 있음

- 콘텐츠 구입비 지원, 면세 등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 권한 제공
- 인센티브의 효과는 공공/민간, 민간 기업 규모별, 장르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
- 인센티브가 기관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6.4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 공개 설명회, 국민 참여 이벤트, 보도자료 등: 민간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K-콘텐츠 보존에 대한 취지,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해당하는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제공사의 경우, 콘텐츠 수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메타정보에 관한 입력 방법 등 콘텐츠 수집을 위한 교육 제공이 필요함

## 6.5 추가 논의 사항

- 수집된 콘텐츠를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장르별(웹툰, 웹소설, 동영상 등) 표준 메타데이터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7. 종합 및 시사점

### 7.1 수집전략 일반

- 온라인 K-콘텐츠의 유실 문제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수집 및 보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민간영역에서는 보안 문제, 저작권,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 하면서, 민간영역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 대상은 개별 콘텐츠의 특성(예, 유실의 위험도, 희귀성 등), 장르의 특성(예, 한 해 동안 제작 건수가 많은 장르를 우선적으로 수집), 기타 상황(예, 제작사·유통사의 참여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스토리지 용량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납본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7.2 공공영역 수집전략 방향성

-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는 공공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수집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법·제도를 보완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인 K-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정부지원사업 기관에서 창작자와의 협약서에 저작권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산출물인 콘텐츠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7.3 민간영역 수집전략 방향성

- 민간영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법적·기술적 해결책 및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상 및 인센티브에는 콘텐츠 보상금 지원,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 인력 등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면세 혜택, 우수 납본·기증사를 위한 상과 상품 부여, 경영평가에 반영 등의 방안이 있음
- 이와 더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들과 협의체 구성, 설명회 등의 홍보 활동, 콘텐츠 수집을 위한 실무 교육 제공 등이 있음
- 민간 콘텐츠 수집 대상 선정 기준, 선호 수집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효과적인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르별(웹툰, 웹소설, 음원 OTT 콘텐츠 등), 이해관계자 유형(유통플랫폼, CP, 작가 등)별로 향후 논의가 필요함





## V.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 사례 분석

---

1. 국내·외 선행연구
2. 국외 유사 사례 조사
3. 종합 및 방향성



## V.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를 온라인 자료 수집을 중점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국외 사례의 경우, 온라인 자료 수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온라인 수집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국가도서관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안함

## 1. 국내·외 선행연구

### 1.1 국내 선행연구

- 박승진, 김정택, 박옥남, 최재황(2012)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해 연구하였음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납본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 단체 및 기업, 이용자, 그리고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납본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를 규정한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손애경, 이은호, 이건웅(2021)은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에 관해 연구하였음

- 영미권과 유럽권, 아시아권 등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온라인 자료 납본 확대를 위해 허점을 이용해 오용 또는 악용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온라인 납본 유형과 품질의 정성적 문제, 납본 보상금 지급 및 단가의 적절성 문제, 온라인 자료 미래 확장성에 대한 유연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이지연, 백원근, 이연희(2022)은 온라인자료 수집 보상체계의 수립방안에 관해 연구하였음
  -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음원의 4가지 온라인 자료의 수집체계와 수집전략을 각 유형별로 수립하고, 가격조사를 통한 정가 및 보상가격의 산정방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온라인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조사 및 관련자 면담을 수행하였음
  - 온라인자료 수집을 위한 기존 보상체계는 법적 체계 부족 및 미비, 기술적 문제, 보존을 위한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하여 물질적 보상 및 비물질적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납본법의 보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음
- 노영희 외(2023)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하였음
  -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소셜 미디어, 실감콘텐츠, 메타버스)의 수집 및 적용방안 제안에 중점을 두었음
  - 공공 및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공공을 우선 수집하고, 민간을 확대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기관과의 협력, 이용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납본 개정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지침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 1.2 국외 선행연구

- Marietje et al.(2016)은 국가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전자책 납본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출판된 전자출판물의 법적 납본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사례 연구 등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전자책 납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저작권 문제와 같은 법적 고려사항, 디지털 보존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정보 검색 및 접근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전자책의 적절한 보존 및 장기적인 접근 보장, 도서관은 전자책 납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 지식 부족, 전자책 납본 컬렉션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재정 등이 중요한 도전 과제를 파악하였음
  - 국가도서관은 법적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저작권 법률을 준수하며, 전자책 컬렉션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보존 전략을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Neshat(2022)은 세계 대표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납본 현황을 조사하였음
  - 10개(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호주, 일본 및 중국)의 디지털 납본 절차를 조사하였음
  - 이를 통해 이란 국립도서관 디지털 납본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소개, 일반원칙, 자원 포괄성, 법적 납본 방법, 출판물의 출처, 협력 및 파트너십, 법적 고려사항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기술 발전과 잠재적인 기술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중요하며, 물리적 매체 문제, 파일 형식 및 메타데이터 표준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음
- Georgi(2018)는 법적 및 공공 접근 규제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법적 납본의 변화를 검토하였음
  - 20년 동안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수집된 실증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법적 납본의 변화를 법률 및 공공 접근 규제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특히, 호주 국립도서관의 납본법을 사례연구로 조사하였음
  - 디지털 법적 납본 구현을 위하여 입법 규제, 기술 인프라, 실질적 절차를 제안하

---

고 있음

- 입법 규제를 위해서 모든 유형의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도록 저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판사의 이익과 저장소 기관의 의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기술 인프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장된 전자 콘텐츠의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디지털 저장소 구현 단계와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개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재정적 문제 및 사회적 측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디지털 법적 저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지적하였음

### 1.3 시사점

-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을 위해서는 납본법 및 저작권법 등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 유형이 다양하므로, 유형별 보상체계, 정성적 기준, 수집 전략이 구축되어야 함
- 보상체계는 물질적 보상 및 비물질적 보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
- 물질적 보상은 방대한 온라인 콘텐츠의 양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재정의 규모, 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물질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 등을 고려해야 함
- 비물질적 보상은 온라인 콘텐츠의 장기 보존 및 이용 가능성, 메타데이터 구축, 영구 식별자 제공, 장기 보존 시스템 구축, 온라인 콘텐츠의 미래 확장성 등이 고려해야 함
- 수집 및 보존 대상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는 출판사와 국립중앙도서관 간의 의무와 이익의 균형, 납본법,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2. 국외 유사 사례 조사

### 2.1 유럽연합(EU)

#### 1) 납본법(EU Legal Deposit Scheme)

##### ① 기본 방향

- EU 기관의 출판 결과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EU 출판물 및 웹사이트를 수집, 접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납본된 모든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자료가 기밀로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목록을 통해 제공되며, 모든 납본자료는 영구보존됨
- 납본자료는 고유 식별자를 가짐
- 기밀 자료(confidential content)는 여전히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제한된 접근 권한을 통해 보존됨
- 각 지정 보관소는 원래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사본 한 부를 받아야 하며 이 사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자료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접근이 조정됨
- 크롤링 후 기밀성 문제가 발견되면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시민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웹페이지를 제거할 수 있음
- 향후 시청각 자료 및 보도자료, 소셜 미디어 콘텐츠, 데이터 세트 등 새로운 자료유형 수집도 목표로 하고 있음

##### ② 납본 대상 자료 유형

###### A. 출판물

- 출판물은 출판 기관보다 넓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별개의 텍스트 또는 그래픽 기반의 저작으로 정의되며, 해당 출판물은 EU 기관의 출판물임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 납본 대상 자료: 연차보고서, 서지, 목록, 단행본, 만화책, 지도자료, 엽서, 포스터,

---

보고서, 폴더, 게임 등

- 납본 제외 대상 자료: 실행계획(action plan), 매뉴얼, 달력, 기관 뉴스레터 간행물, 행사관련 자료(프로그램, 리플릿), 애플리케이션, 논문, 명함, 출판물 계약 및 유사 문서, 기관 소식지, 내부 절차 출판물, 발표자료(PPT슬라이드), 공개서한, 입찰문서 등

#### B. 웹사이트

- EU 웹사이트는 “europa.eu”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 내의 웹사이트 또는 주로 EU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도메인 외부의 웹사이트를 수집함
- 광범위한 EU 프로젝트와 문화유산 관련 다른 웹사이트는 기탁자와 보관소 간의 합의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C. 데이터 세트

- 데이터 세트는 단일 기관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며, 하나 이상의 형식으로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모음을 지칭함
- EU 납본법에서 데이터 세트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를 의미

#### D. 시청각 자료

- 시청각 자료는 정지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을 포함함
- EU 기관이 제작한 시청각 자료는 이벤트, 주제/정책 영역, 뉴스 요약, 기자회견 및 언론 브리핑, 연설 및 선언, 정보 클립, 건물 또는 주요 인물 사진 갤러리를 포함함

#### E. 소셜 미디어

- EU 기관 또는 그 공식 대표의 공식 계정을 대상으로 함

#### F. 보도자료

- 보도자료는 주로 뉴스 미디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또는 녹음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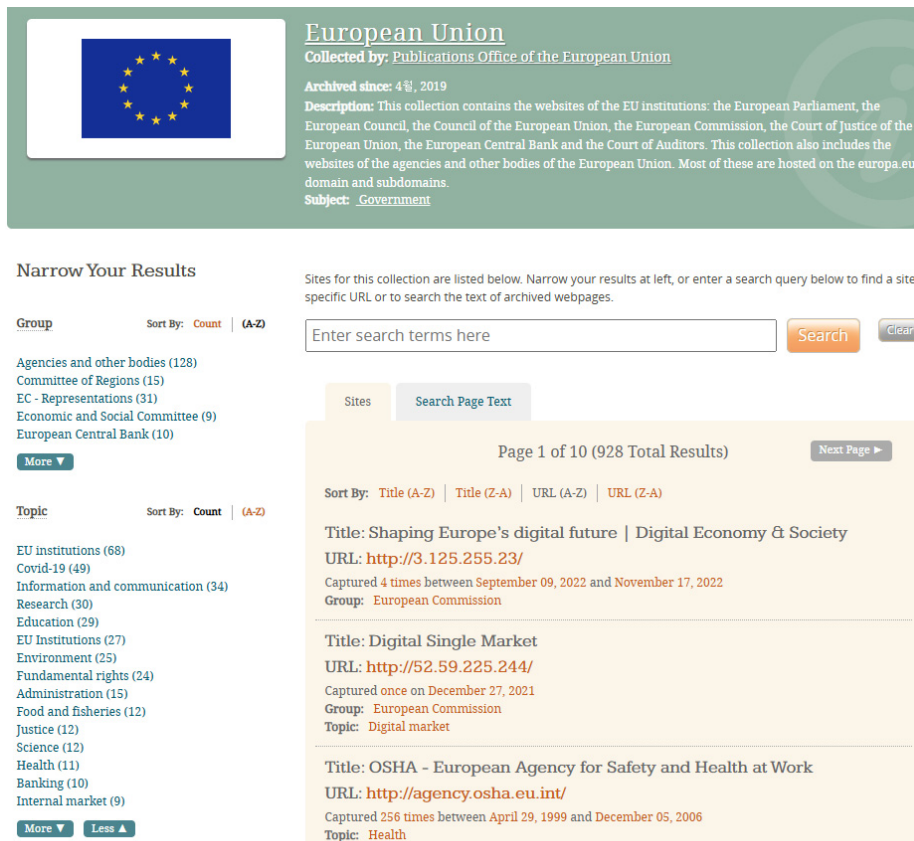
## 2) EU Web Archive

### ① 개요

- EU 기관 및 에이전시, 기구들의 웹사이트 콘텐츠와 디자인을 보존하여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함
- 2013년 유럽연합 역사 기록 보존소(Historic Archive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시작되어, 2018년부터는 유럽연합 출판 사무국(OP)이 이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음

### ② 아카이브 구조

- europa.eu 도메인에 호스팅 된 250개의 웹사이트를 포함
- 5개의 주제별 컬렉션(EU기관, Covid-19, 우크라이나, 환경, 기본적 권리)으로 구성



**European Union**  
Collected by: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Archived since: 4월, 2019

Description: This collection contains the websites of the EU institutions: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ommissi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Court of Auditors. This collection also includes the websites of the agencies and other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Most of these are hosted on the europa.eu domain and subdomains.

Subject: [Government](#)

**Narrow Your Results**

Sort By: **Count** | (A-Z)

Enter search terms here

Agencies and other bodies (128)  
Committee of Regions (15)  
EC - Representations (31)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9)  
European Central Bank (10)  
[More ▼](#)

Topic: Sort By: **Count** | (A-Z)

EU institutions (68)  
Covid-19 (4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4)  
Research (30)  
Education (29)  
EU Institutions (27)  
Environment (25)  
Fundamental rights (24)  
Administration (15)  
Food and fisheries (12)  
Justice (12)  
Science (12)  
Health (11)  
Banking (10)  
Internal market (9)  
[More ▼](#) [Less ▲](#)

Sites [Search Page Text](#)

Page 1 of 10 (928 Total Results) [Next Page ►](#)

Sort By: [Title \(A-Z\)](#) | [Title \(Z-A\)](#) | [URL \(A-Z\)](#) | [URL \(Z-A\)](#)

Title: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Digital Economy & Society  
URL: <http://3.125.255.23/>  
Captured 4 times between September 09, 2022 and November 17, 2022  
Group: European Commission

Title: Digital Single Market  
URL: <http://52.59.225.244/>  
Captured once on December 27, 2021  
Group: European Commission  
Topic: Digital market

Title: OSHA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URL: <http://agency.osha.eu.int/>  
Captured 256 times between April 29, 1999 and December 05, 2006  
Topic: Health

〈그림 V-1〉 EU 웹 아카이브 검색 페이지

---

## 2.2 미국 의회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미국 납본법은 187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에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미국의 납본법에 기본이 되는 법률은 저작권법(Copyright Act, (Title 17 of the U.S. Code, Section 407))으로, 이 법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출판물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출판사는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2부를 미의회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② 납본 대상 자료

- 인쇄자료: 책, 잡지, 신문, 연속간행물 등
- 시청각자료: 영화, 음악, 비디오 등
- 전자자료: 전자책, 온라인 출판물 등
- 기타자료: 지도, 사진, 악보 등

#### ③ 납본 제외 대상 자료

- 비출판 자료: 개인적인 문서(개인 일기, 개인 서신 등), 광고 전단지, 특정 단체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자료, 기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료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자료 등

#### ④ 디지털 납본

- 전자책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물리적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에도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전자책은 저작권 사무소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연속 간행물도 저작권 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의무 아님

- 
- 제출 시, XML, PDF/A, HTML 등 디지털 형식으로 제출하며,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야 함

## 2) 장서개발 정책

### ① 미의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Policy Statements)

#### A. 온라인 자료 수집정책

-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범위: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공급업체가 호스팅하는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및 저작권이 있는 상업용 전자자료, 전자저널과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출판물, 기타 형식에 관계없이 공급업체가 호스팅하는 콘텐츠를 포함
- 수집방법: 납본 및 개별 구입
- 수집기준: 다양한 저자, 관점, 문화적 정체성, 기타 역사적 또는 문화적 요소 등 (예: 민족자료, 성소수자 연구, 여성 및 젠더 연구, 독립 출판 및 자체 출판 텍스트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자료 등)
- 자료주제: 학술, 정부, 무역, 뉴스, 필사본, 희귀 도서 자료 컬렉션, 대중 출판사의 자료 및 아카이브
- 수집 우선순위
  -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별 로그인보다 IP 범위를 통한 인증 선호
  - 최종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 선호
  - 도서관은 특정인이 권한 있는 사용자로 지정된 자원은 획득하지 않음
  - 콘텐츠가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자원
  - 도서관에서 이전에 수집한 인쇄물/마이크로포맷 자료 중 더이상 인쇄물/마이크로포맷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전자 형식이 선호되는 연속간행물/마이크로포맷 자료의 전자 버전
  - 고유한 전자자원(예: 원고 모음)
  - 삭제/삭제 위험이 있는 자료가 포함된 전자자원
  - 의회 및 연구자의 현재와 미래의 정보 요구에 유용
  - 기존 컬렉션을 보완하거나 깊이 또는 폭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 기존 전자자원과 중복의 최소화
- 액세스, 기능 및 안정성

## B. 웹툰

- 웹툰(Web Comic)의 경우, 현재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는 디지털 납본 및 구입을 통해 선택적으로 수집할 계획임
- 웹툰 초이스 어워드(the Web Cartoonists' Choice Awards에서 수상한 웹툰)를 수집하려고 함

## C. 오픈 디지털 콘텐츠

- 수집범위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등 무료 공개 사용 및 재배포가 허가된 모든 디지털 자료
  - 미국 정부 문서 및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등 어느 국가의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되지 않는 자료
  - 도서관이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재배포할 권한을 확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 자료종류
  - 전자저널, 전자책과 같은 오픈 액세스(OA) 출판물, 개인 또는 기관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있는 디지털 리포지토리, Wikipedia와 같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인터넷이나 외부 유형 미디어에 있는 미공개, 비정형 또는 원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
  - 웹 아카이브 컬렉션을 통해 주로 수집됨(웹 아카이브 컬렉션은 밈, 이모티콘, 웹툰 저장소, 미국 및 외국 정부 기관의 일부 웹사이트, 미국 하원 및 상원 사무실과 위원회, 미국 및 외국 선거 등으로 구성)
  - 권리가 제한된 오픈 콘텐츠보다 선호되는 공개 도메인 콘텐츠
  - 모든 디지털 형식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용자 제작 창작물의 대량 세트
  - 오픈 액세스 전자저널 및 전자책
  - 오픈 교육 리소스(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s)
  - 정부 간행물

- 도서관에서 이전에 수집한 인쇄물로 더는 제공되지 않거나 디지털 형식으로 선호되는 계속 인쇄물 리소스의 디지털 버전
- 수집 우선순위
  - 해당 자료에 오픈 라이선스 또는 명시적인 오픈 사용 및 배포 조건이 저작물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또는 사이트에 사용 및 배포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 오픈 액세스(OA) 학술 문헌, CC 라이선스 저작물, GNU 등의 라이선스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타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가 있는 저작물로 명시적으로 획득(로컬 호스팅) 및 광범위한 재배포(loc.gov를 통해 온사이트 및 오프사이트에서 서비스)
  - 오픈 라이선스나 기존 저작권 약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별 항목의 경우, 도서관이 사용 및 배포 약관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이용약관을 결정함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리소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함
  - 오픈 콘텐츠를 평가하는 선정 및 추천 담당자는 이 장르의 많은 디지털 자료가 매우 학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서관 컬렉션에 대한 오픈 콘텐츠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동료와 상의할 것을 권장함

#### D. 소셜 미디어

-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
- 도서관의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되는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계정은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
- 개인 또는 그룹의 독립형 소셜 미디어 계정은 미국 대선 후보 사이트에 대한 현행 통지/고지 방식을 포함하여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의 국가/카테고리 권한 구조에 따라 수집
- 수집제외 항목
  - 해시태그 또는 이와 유사한 링크된 주제 태그(예: 트위터 해시태그)로 수집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또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 피드, 그룹, 포럼, 커뮤니티 또는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예: Reddit)에 게시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이를 집단 소셜 미디어라고 함. 다양한 작성자에 의해 생성되므로 권한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함

- 
- 기술 또는 법적 이유 등으로 인해 결국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콘텐츠

## ② Library of Congress Digital Collections Strategies 2022-2026

- 공개 라이선스 및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과 액세스 확대
- 권한이 제한된 콘텐츠에 최대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및 IT 인프라 개발
- 전자 저작권 Office 시스템(eCO)을 통해 디지털 납본 체계화 지원
- 도서, 연속간행물, 영화, 음원, 음악 작곡, 지도, 사진, 인쇄물, 도면, 설계 및 건축 자료, 기술 설계, 기술 보고서, 웹 콘텐츠 등 포함

## ③ 미국의회도서관 권장 서식 2023-2024

- 텍스트 - 인쇄물, 디지털, 전자 연속간행물
- 이미지 - 사진(인쇄물, 디지털), 기타 그래픽 이미지(인쇄물, 디지털 - 포스터, 건축 도면, 엽서 등), 마이크로폼
- 동영상 - 영화 및 비디오
- 오디오
- 악보 - 인쇄 및 디지털
- 데이터 세트
- GIS 지리공간 및 비GIS 지도
- 디자인 및 3d
-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게임
- 웹 아카이브
- 이메일

## 3) 웹 아카이브

### ① 수집 우선순위

- 웹 아카이브를 위한 도서관의 연간 수집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웹 콘텐츠
- 의회와 연구자의 현재 또는 미래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유용성이 있는 콘텐츠
- 제공되는 정보의 고유성 및 품질

- 학술적 콘텐츠
- 콘텐츠 손실 위험(일부 웹사이트의 일시적 특성으로 인한)
- 정보의 통화
- 도서관 컬렉션의 다른 자료와의 관계
-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 웹 아카이빙이 주제 또는 사건을 기록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
-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범주의 웹 콘텐츠는 웹 아카이빙을 통한 수집에서 제외됨
  - 데이터베이스 기반 콘텐츠
  - 프로그래밍 스크립트에 기반한 동적 콘텐츠 및 렌더링을 위해 사용자 입력 또는 플러그인이 필요한 콘텐츠
  - 팟캐스트, YouTube 등의 스트리밍 미디어 및 시청각 콘텐츠
  - 딥 웹(표준 검색 엔진을 통해 완전히 액세스할 수 없는 인터넷의 일부)에 있는 자료
  - 비밀번호로 보호된 사이트 및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이트
  - 페이지 뒤에 있는 콘텐츠

## ② 웹 아카이브 서비스

-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 및 검색 가능
- 접근에 제한된 자료는 간단한 스냅샷만 제공하며, 엠바고(embargo)를 명시함
- 현재 소셜 미디어는 11건(캡처만 제공), 웹툰 21건(캡처만 제공), 영화, TV 및 디지털 미디어(1건), 블로그 407건, 정부(5,671건), 정치 및 정부(9,645건)를 제공함

## 2.3 영국 국가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영국은 1662년부터 납본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서관 납본법 2003(Legal

---

Deposit Libraries Act 2003)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현재 영국에는 영국 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을 비롯 총6개의 납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인쇄출판물은 영국 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에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013년 법적 납본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 및 웹사이트 등 비인쇄자료도 납본 대상에 포함되었음
- 이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수집, 보존, 접근할 수 있음. 2013년 발표된 비인쇄자료 납본규정(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은 기존의 납본법이 비인쇄자료의 범위,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콘텐츠 제공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임
- 비인쇄물에 대한 출판사와의 상호 합의나 웹 하비스팅을 통해 이루어짐
- 납본된 비인쇄물에 대한 자료는 ‘납본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관’ 내의 워크스테이션에서만 열람가능하며, 권리자는 최대 3년의 최초 접근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음

## ② 납본 대상 자료 유형

- 인쇄 출판물: 도서(팸플릿, 잡지, 신문을 포함), 활판인쇄물 또는 악보의 낱장, 지도, 도면, 차트 또는 도표,
- 비인쇄 저작물: 규칙에서 정하는 저작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해당하나 녹음물 또는 필름, 부수적 자료 등은 제외
- 디지털 출판물: 전자저널, 전자책, 디지털 출판 뉴스, 잡지 및 기타 유형의 콘텐츠의 국가 컬렉션

## ③ 납본 제외 자료

-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제한된 그룹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예: Facebook의 비공개 그룹 또는 비공개 트윗과 같이 접근이 제한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 주로 영화 또는 녹음된 사운드로 구성된 저작물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자료
- 복사가 아닌 요청을 해야 하는 전자자료의 경우, 규정 발효 이전에 게시된 저작물



---

## 2) 웹 아카이브<sup>10)</sup>

- 영국 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브는 영국 내 모든 웹사이트를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영국 웹 아카이브는 매년 영국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스냅샷 형태로 수집함
- 매년 약 500만에서 1000만 개의 웹사이트와 20억 개 이상의 아이템(페이지, PDF 등)을 수집함(The British Library)(Cambridge University Library)

### ① 수집 자료

- 웹사이트: 영국 도메인(.uk, .scot, .london 등)을 가진 웹사이트, 영국 주소가 포함된 연락처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서버가 영국에 있는 웹사이트 등
- 디지털 콘텐츠: 전자저널, 전자책, 디지털 뉴스, 잡지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 이벤트 관련 자료: 주요 사건과 관련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기록

### ② 수집 제외 자료

- 개인 데이터: 제한된 개인 그룹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음
- 주로 음성 및 영상자료: 주로 소리 녹음이나 영상 녹화로 구성된 자료는 수집하지 않음. 다만, 텍스트나 다른 요소와 함께 의미 있는 콘텐츠는 수집함
- 비공개 자료: 로그인 페이지 뒤에 숨겨진 자료는 해당 로그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수집하지 않음

### ③ 수집 우선순위

- 문화, 역사, 정치: 영국의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사이트
- 자연 재해 및 선거: 자연 재해,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기록
-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연구 목적을 위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담론과 이미지를 보존

---

10) 현재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

## 2.4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Te Puna Mātauranga o Aotearoa) 2003의 납본 의무를 통해 뉴질랜드 출판물을 수집·관리하고 있음

#### ② 납본 대상 자료

- 비디오, 오디오, 도서, 지도, 잡지, 신문, 웹사이트 등이 포함
- 출판물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 모두 해당됨
-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전자책, 음악, 영화 배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납본 대상이 됨
- 출판사 정의: 출판물의 제작자, 즉 개인, 단체, 비영리 조직, 기업 등은 모두 출판사로 간주되며, 그들이 생산한 출판물은 법적 납본의 대상이 됨
- 디지털 출판물: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도 법적 납본의 대상임. 디지털 출판물은 국가 디지털 유산 아카이브(National Digital Heritage Archive, NDHA)에 보존되며, 접근 제한이 있는 경우 특정 연구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됨
- 웹사이트 아카이빙: 뉴질랜드의 웹사이트는 웹 하비스팅(web harvest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카이빙되며, 이는 납본법에 따라 수행됨. 웹 아카이브는 뉴질랜드 웹 아카이브 컬렉션에 추가됨

### 2) 장서개발정책

-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2015)은 연구 컬렉션, 일반 컬렉션, 학교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장서, 지도 제작, 어린이 컬렉션, 회화 및 판화, 원고, 음악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
- 디지털 및 온라인 관련 장서개발 정책은 따로 분류되지 않음
- 주제별 카테고리에 디지털 컬렉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 음악: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뉴질랜드 음악에 관한 기사, 뉴질랜드 민요, 오디오

---

컬처 웹사이트, 더글러스 릴번 공식웹사이트, 악보웹사이트, 모차르트 전집, 베토벤 하우스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수집하고 있음. 즉, 대부분 기사 및 웹사이트, 디지털 악보를 수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뉴질랜드 및 태평양 출판 컬렉션: 텍스트 자료, 시청각 자료,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음.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출판사에 직접 출판물을 요청할 수도 있음. 수집되는 전자출판물에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상업 출판사의 출판물, 기업 및 비정부 기관의 출판물,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개인이 자체 출판한 출판물, 뉴질랜드 중앙 및 지방 정부 출판물이 포함되며, 도서관은 각 전자출판물의 사본을 국립 디지털 유산 아카이브에 보관함. 전자출판물의 경우, 뉴질랜드의 출판된 다큐멘터리 유산을 대표하는 중요한 컬렉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수집은 매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콘텐츠에 중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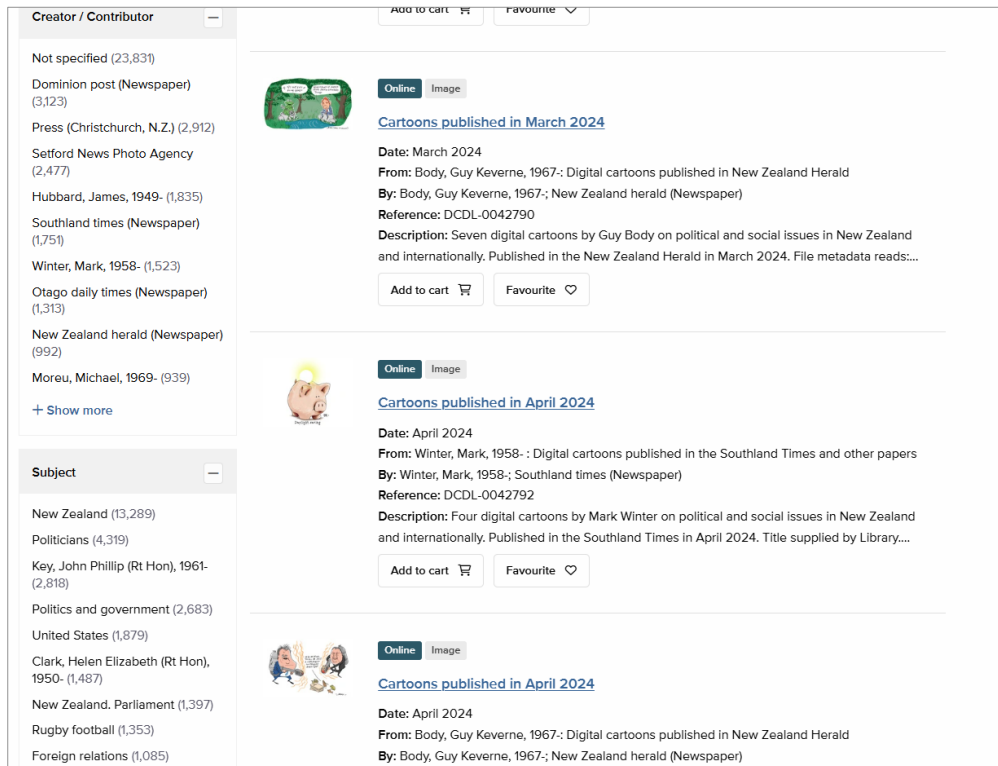
### 3) 뉴질랜드 웹 아카이브

- 뉴질랜드 웹 아카이브(Te Pūrangā Paetukutuku o Aotearoa)는 1999년부터 수집된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현재 온라인에 없는 웹사이트도 포함됨
- 뉴질랜드 및 태평양 관련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수집하며, 9,700개 이상의 웹사이트 제목과 47,000개 이상의 웹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음. 웹사이트는 장기 보존 및 연구 목적으로 보존됨
- 주제: 정부 및 정치(정당사이트, 정치블로그, 후보자 사이트 등), 도서관은 특정 주제나 테마를 중심으로 수집할 웹사이트의 우선순위를 정함. 웹사이트 수집의 우선 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음악, 뮤지션 사이트 및 음악 페스티벌, 스포츠(개인 및 단체 블로그 및 이벤트 포함), 기후 변화, 예술, 그래픽 아트, 문학, 다큐멘터리 사진,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지방 단체 및 총선을 포함한 정치, 정부 부서, 마오리족 사이트, 파시피카(주로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웹사이트), 커뮤니티 그룹, 특히 소수 민족, 젠더 이슈, 동호회 및 동호회, 빈곤, 생활 임금, 세계화를 포함한 사회적 관심사, 게임 개발자 및 게임 커뮤니티(게임 자체는 제외),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 등이 포함됨

---

#### 4) 뉴질랜드 만화 아카이브(The New Zealand Cartoon and Comic Archive)

- 뉴질랜드 만화 및 만화 자료실에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만화와 캐리커처, 그리고 만화 예술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음
- 뉴질랜드 카툰 아카이브는 1992년 4월 1일 뉴질랜드 카툰 아카이브 트러스트와 알렉산더 턴볼 도서관의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어, 2005년에 카툰 아카이브는 턴볼 도서관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트러스트는 가디언스 위원회로 대체되었음
- 만화원본, 만화 디지털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웹툰의 경우는 2000년 이후부터 웹 아카이브의 일부로 수집되고 있음
- 수집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마오리족의 중요한 만화 및 만화 창작자, 테레오 마오리족의 중요한 만화 및 만화 작품
  - 소셜 위기에 처한 중요한 창작자 및 작품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웹툰 제작자 및 만화 창작자
  -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주요 만화 단체, 출판 그룹, 선집 및 커뮤니티 그룹
  -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명시적으로 제작된 만화인 '편집 만화'의 발전에 기여한 만화 및 카툰 크리에이터
  - 다양한 커뮤니티와 다양한 접근 방식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크리에이터
  - 다음 <그림 V-2>와 같이 생산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뉴스 발행기관이나 만화 시사가이며 주제 역시 정치, 사회, 국제관계, 경제 등 문화사회 중심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주로 수집하고 있음



## 〈그림 V-2〉 뉴질랜드 만화 아카이브

### 5) 뉴질랜드 음악 아카이브

- 뉴질랜드 음악, 작곡가, 음악가 및 음악 단체와 관련된 자료의 포괄적인 국가 컬렉션 구축을 목표로 Alenxander Turnbull 도서관에 의해 1974년에 설립됨
- 클래식, 대중음악, 마오리, 오페라, 록, 재즈, 포크, 태평양 섬, 컨트리, 세계, 연극 음악, 전기 음악 및 음악 예술을 포함한 모든 음악 스타일과 장르가 포함됨
- 2019년 2월 현재 여기에는 36,000개 이상의 음원(7,500개 이상의 디지털 항목 포함)과 약 8,000개의 악보 및 악보 항목이 포함됨
- 새로운 음악 항목은 뉴질랜드 납본을 통해 NZ&P 컬렉션에 추가되며, 납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매 및 기부를 통해 추가도 됨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외됨
- 클래식, 마오리에 대한 음원, 악보가 대부분임

---

## 2.5 호주 국립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호주의 납본법(Legal Deposit)은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Division 3)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에 법이 확장되어 전자출판물도 포함하고 있음
- 출판물은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국가도서관 및 해당 주 또는 지역 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함
- 디지털 납본은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6)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납본된 출판물은 호주 웹 아카이브(Trov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를 통해 연구자와 대중이 접근할 수 있음
- 법 195CD에 의거하여, 해당 간행물 전체와 동일한 복제물(a copy of the whole of the material)이 납본되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일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접근에 필요한 S/W나 다른 정보(내장 컴퓨터 스크립트 등)를 동반하여야 하며, 인쇄본(hardcopy)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최선본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 및 채색되어야 하며, 제본 또는 바느질, 스티치, 접착 등이 필요함

#### ② 납본 대상 자료

- 출판물: 인쇄물, 전자출판물, 시청각 자료 등이 포함됨
- 디지털 자료: 2019년 도입된 국가 전자납본 서비스(NED)를 통해 디지털 자료의 제출이 가능함

#### ③ 납본 제외 자료

- 법 제195CE조에 의거 저작권이 없는 자료, 대부분 시각-청각인 자료
- 디지털 자료: 음성/영상자료(녹음, 비디오, 필름), 주로 게임 자료, 주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저작권 침해 자료, 비밀자료, 인트라넷처럼 사적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자료, 특정 그룹의 사람만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자료, 업무상 트랙잭션 레코드(DB 등)

#### ④ 디지털 납본법

- 저작권법 개정: 2016년 초, 호주 저작권법 개정으로 전자출판물도 법적 납본 요건에 포함되었음
- 대상 자료: 오프라인 자료는 원래 출판된 물리적 매체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자료는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디지털 오프라인 자료의 납본: 책, USB, CD, DVD 등 물리적 매체에 출판된 전자출판물은 출판 후 1개월 이내에 국가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디지털 온라인 자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국가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웹 하베스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음
- 웹 아카이빙: PANDORA 아카이브(주 도서관 및 문화유산 기관과 협력하여 호주 웹사이트 수집)와 호주 정부 웹 아카이브(호주 정부 웹사이트 수집)로 나누어서 아카이빙 됨
- 접근: 상업적 출판물은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다운로드 불가능함, 단, 비상업적 출판물은 Trove를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2) 장서개발정책

- 장서개발정책은 호주의 문화유산 보존, 다양성 및 포괄성, 연구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 포괄적 수집, 선택적 수집, 대표적 수집의 접근방식에 따라 자료유형별로 구분됨
- 장서개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퍼스트 오스트레일리언스(First Australians)
  -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호주인(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ustralians)
  - 인도계 호주인(Australians with Indian Heritage)
  - 농촌 및 지역 호주(Rural and Regional Australia)
  - COVID-19에 대한 호주의 대응(Australian Responses to COVID-19)
  - 대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 2023년 국민투표(2023 Referendum)
  - 과학, 기술 및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 환경(The Environment)
  - Badja Forest Road Fire 구술 역사 프로젝트(Badja Forest Road Fire Oral History Project)
  - 이 중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자출판물 (Electronic Publications)

- 종류: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잡지, 전자 뉴스레터
- 중점: 인쇄본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형식의 출판물
- 형식: PDF, ePub, HTML, mobi 파일 등

#### ② 웹사이트 (Websites)

- 종류: 개인 블로그, 기업 웹사이트, 정부 웹사이트, 교육 사이트
- 중점: 호주의 디지털 프레젠스와 온라인 활동을 기록
- 형식: HTML, CSS, JavaScript 및 관련 파일

#### ③ 소셜 미디어 콘텐츠 (Social Media Content)

- 종류: 페이스북 포스트, 트위터 트윗, 인스타그램 게시물
- 중점: 현대 사회의 상호작용과 트렌드를 반영
- 형식: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파일

#### ④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Archives)

- 종류: 이메일 기록, 디지털 사진, 디지털 문서
- 중점: 개인 및 조직의 디지털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
- 형식: 다양한 디지털 파일 형식

### 3) 웹 아카이브

#### ① 수집 대상

- PANDORA 웹 아카이브를 위해 선택된 호주 웹사이트(세계 최초의 웹 아카이빙 이니셔티브 중 하나)



- 호주 정부 웹사이트(이전에는 호주 정부 웹 아카이브를 통해 접근 가능)
- .au로 끝나는 주소를 가진 웹사이트(연간 수집)
- 이 웹사이트들은 온라인에 있었던 당시의 스냅샷으로 저장되어 아카이브에 보존됨
- 온라인 자료는 1960년 국가도서관법, 1968년 저작권법의 법적 납본 조항 및 국가도서관 장서관발정책에 명시된 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수집됨
- 뉴스 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조직, 교육 및 상업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출판물을 포함
- 웹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책과 전자저널 문서는 책, 저널 및 정부 출판물 수집 정책에 따라 수집
- 출판물이 아닌 웹 애플리케이션(예: 은행업무, 예약 서비스, 구매 애플리케이션 등)은 수집하지 않음

## ② 제한된 콘텐츠 (Restricted Content)

- 일부 아카이브 된 웹페이지는 다양한 이유로 대중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웹페이지를 게시한 조직이 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일 수 있거나 다음과 같은 이유임
- 개인정보(Privacy - personal data): 신원 도용이나 폭력 행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여기에는 생년월일, 주소, 의료 데이터, LGBTQI 상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Privacy - other):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
-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 소송 대상인 콘텐츠
- 문화적 규약(Cultural protocols): 인정된 문화적 규약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 (예: 원주민 커뮤니티 고인)
- 법원 명령 (Court order): 법원 명령으로 인해 게시할 수 없는 콘텐츠 (예: 억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 범죄(Criminal):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하는 콘텐츠 (예: 아동 포르노그래피 또는 아동 학대 이미지, 테러 행위 선동 콘텐츠, 비동의의 이미지 공유법에 해당하는 이미지 등)
- 해로운 콘텐츠(Harmful): 일부에게 해롭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반드시 불법은 아닌 콘텐츠 (예: 동의한 성인의 포르노 그래픽 이미지, 증오 발언 및 안전하지 않은

---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

- 저작권(Copyright):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콘텐츠
- 상업적 콘텐츠(Commercial): 중요한 상업적 이익 또는 민감성을 지닌 콘텐츠
- 보호된 정부 데이터(Protected government data): 민감하고 공식적이거나 기밀로 분류된 정부 데이터로, 1982년 정보 자유법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 콘텐츠

### ③ 수집 방법

- 정기적인 '스냅샷': 최소 연 1회 호주 .au 웹 도메인의 전체 스냅샷을 캡처하여 특정 시점에 호주 생활, 사람, 장소, 사건 및 아이디어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캡처
- 주제별 컬렉션: 호주 정책과 문화의 변화를 기록, 역사에 기억할 만한 순간을 기록, 다른 출판 형태를 통해 잘 표현되지 않는 주제(예: 연방 선거 캠페인 및 2019-2020 산불)
- 선택적 웹사이트 아카이빙: 공공토론에 기여하고, 호주 정책과 사회를 형성하는 조직, 개인 및 커뮤니티의 활동과 견해를 다루는 사이트, 정치, 사회 및 문화 문제에 대한 논평, 저널리즘 커버리지, 연구 또는 토론을 제공하는 사이트, 연구 및 학술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예: 뉴스 웹사이트)를 정기적이고 적시에 아카이빙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콘텐츠를 캡처
- 소셜 미디어는 출판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수집되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

### ④ 우선순위

- 호주 공공 정책의 형성에 기여하는 토론, 논쟁, 연구 및 논평
- 웹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연구 및 비즈니스 출판물의 다양성
- 회색 문헌—상업적 출판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모든 수준의 정부, 학계, 비즈니스, 최고 조직 및 산업에서 생산된 정보 및 작품



## 2.6 프랑스 국립도서관

### ① 기본 방향

- 주요 특징으로, 납본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납본 수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프랑스국가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이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납본 업무를 수행하지만,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와 그에 파생된 영상자료들은 프랑스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가, 녹음자료와 라디오, TV방송 관련 자료는 국립시청각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에서 분산하여 납본을 수행함

## ② 납본 대상 자료

- 프랑스 국가도서관으로 납본: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납본 대상. 인쇄,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티미디어 자료, 소프트웨어와 DB, 전자자료(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 등
- 국립영화영상센터로 납본: 시행령 R132-26조의 영화관 상영 영화자료와 제R132-30조 6부 이상 대중에 배포되는 광학매체 비디오자료와 정보/교육/홍보용 비디오자료 등
- 국립시청각연구소로 납본: - 시행령 R132-34조 프랑스 지상파 TV, 라디오, 지상파 VOD 등 시청각자료와 녹음자료, R132-41조 온라인자료 중 지상파방송에 활용된 자료 등

## ③ 납본 제외 자료

- 지자체(시, ville), 상업 또는 행정 관련 인쇄자료
- 선거법상 선거기록
- 100부 이하로 수입된 자료
- 30부 이하로 수입된 악보/무용보
- 납본된 문헌에 수반된 인쇄, 그래픽, 사진자료
- 특허, 산업 디자인/모형 7.사진 모음, 신문 기사나 다른 텍스트의 복제물
- 납본자료의 동일한 재인쇄물
- 국가의 분산화된 서비스, 식민지 영토 대표단, 전국적 단위가 아닌 공공기관, 식민지 영토 자치정부 등의 행정 행위 자료
- 지상파 시청각 자료와 녹음자료 중 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방송, 페이퍼뷰 방송, 텔레비전 홈쇼핑 등 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라디오, 독립적인 지역/지방/주제 관련

---

라디오

#### ④ 디지털 자료의 납본

##### A. 비디지털 작품의 디지털 납본

- BnF에 납본해야 하는 자료는 “유통 중인 사본과 동일하고 완벽한 품질”이어야 하지만, BnF는 대신 전자 파일을 물리적 사본 대신 납본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전자 파일을 물리적 사본 대신 납본하는 방식은 납본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됨

##### B. 비디오, 음향 녹음물, 멀티미디어 작품 및 영화의 디지털 납본

- 음향 녹음물과 비디오는 디지털 형식으로 납본할 수 있으며 항상 대중이 볼 수 있는 매체로 제출되어야 하며, 접근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기타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도 사용 가능한 매체로 제출되어야 하며, 접근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기타 정보가 필요함
- 영화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는 CNC에 납본되어야 함. 특히 정보, 교육 또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는 최소 여섯 개의 사본이 제작된 경우 CNC에 납본되어야 함

##### C. 인터넷 웹사이트 및 전자책의 디지털 납본

- 전자출판물과 인터넷 콘텐츠는 2006년부터 프랑스에서 납본 대상임
- 전자책(e-books)을 개별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정기적인 웹사이트 수집 시 출판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함

## 2) 웹 아카이브

### ① 기본 방향

- 2006년 8월 1일에 통과된 DADVSI법(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 권리에 관한 법)과 2011년에 통과된 시행령 이후,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은 납본의 일환으로 프랑스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맡음

- 인터넷 납본은 “인터넷에 배포된 모든 유형의 출판물: 기관 또는 개인 웹사이트, 무료 또는 유료 접근 정기간행물, 블로그, 상업용 웹사이트, 비디오 플랫폼 또는 디지털 서적”에 적용됨
- 원칙적으로, 프랑스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것이 납본 대상임
- 프랑스 도메인에 속하는 웹사이트의 “스냅샷”을 수집하기 위한 대량 자동 수집과 특정 이벤트(예: 선거)나 주제(예: 블로그, 지속 가능한 개발, 웹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크롤링의 두 가지 수집 유형을 수행함
- BnF는 Heritrix라는 크롤러 로봇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자동으로 수집하므로, 동적 디스플레이 사이트, 소셜 미디어 콘텐츠 수집이 불가능하기도 함
- 2020년 말부터 Facebook 콘텐츠 수집이 불가능해졌고, 2023년 7월부터 Twitter 콘텐츠 수집도 불가능함
- 사이트에 포함된 비디오는 기술적 이유로 수집되지 않음
- 수집은 “일반수집”과 “프로젝트 수집”으로 이루어짐. “프로젝트 수집”은 “프로젝트 수집”은 협력기반으로 특정 주제나 주요 이벤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BnF DataLab을 통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함
- BnF의 여러 사이트의 연구실에서 리서치 패스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컬렉션은 온라인 접근은 제한됨

## ② 우선순위

- 디지털 원본 수집: 후보 프로그램, 연구 일지, 공연 프로그램 등
- 학문적 최신성 유지: 학술 사이트, 학문적 조직, 회의 및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시각 반영: 학술 웹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역사 블로그, 유명 작가 블로그와 독자 블로그, 참여 과학, 대중음악 및 학술 음악 자료 등
- 새로운 관행 문서화: 온라인 글쓰기, 디지털 아트, 아마추어 사이트, 일상 사이트 (비디오 게임 등)
- 사상 및 의견 다양성 반영: 인터넷 도입과 함께 변화하는 참여 및 활동주의 형태 문서화, 온라인 투표, 전자 행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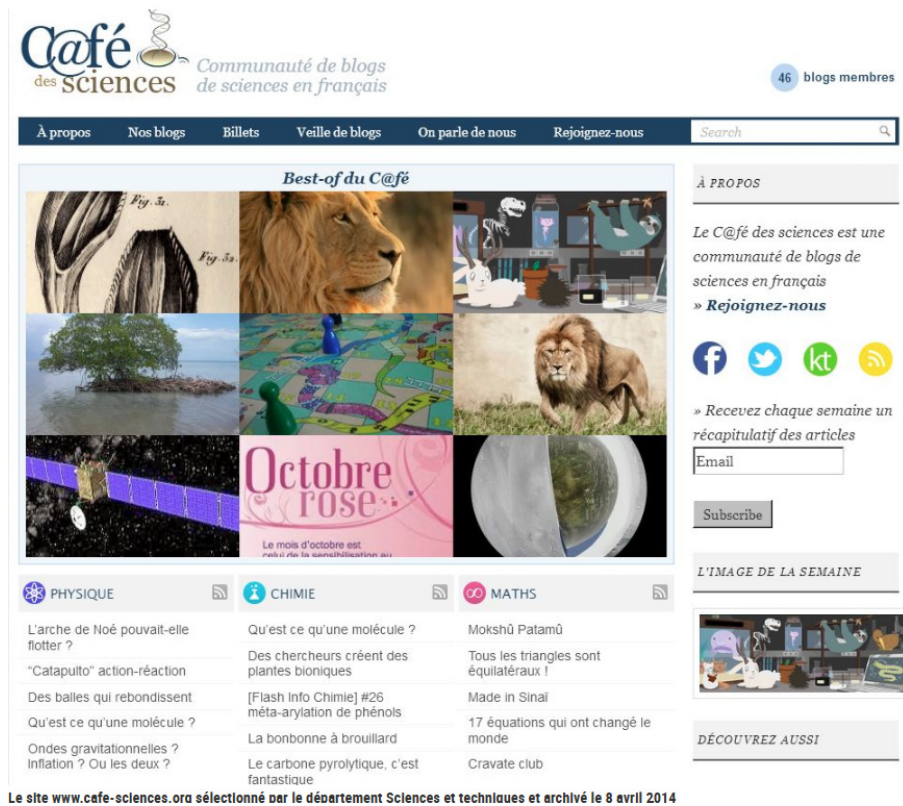
## ③ BnF 웹 아카이브 컬렉션 탐색

- 주제별 컬렉션: 공연예술, 지도 및 계획, 법, 경제, 정치, 공식 출판물, 판화 및 사진,

---

문학과 예술, 개인 일기, 경매(2013년 이후), Lifranum(2022), 음악, 철학, 역사, 인문과학, 1차 세계대전 웹(2013-2019), 사회 운동(2012년 이후), 연대, 과학 및 기술, Bodycapital(2021), 인공지능(2020년 이후), 환경 문제(2020년 이후), 음향, 비디오, 멀티미디어

- 지역 컬렉션: 알자스(2013년 이후), 로렌(2016년 이후), 몽펠리에(2015년 이후),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2022년 이후), 라 레위니옹(2022년 이후)
- 이벤트 컬렉션: 선거, 올림픽, 코로나19 수집,
- 언론 및 뉴스 컬렉션: 일시적 뉴스(2018년 이후), 뉴스(2010년 12월 이후), 유료 언론(2012년 이후)
- 시청각 자료: 팟캐스트(2023년 이후), 비디오(2007-2013년 Dailymotion 채널과 2017년 이후 YouTube 채널 수집) - 주제 역시 다양함
- 소셜 미디어: Facebook(2007-2020) 및 Twitter(2017-2023) - 현재 수집 중단, Instagram(2020년 이후, 수백 개의 계정과 태그 수집), TikTok(2022년 이후, 매년 약 100개의 계정과 태그 수집)
- 웹툰: 주로 수집하는 웹툰은 만화 뉴스, 만화 속 역사 및 인물과 사회, 정치만화, 르포르타주 만화, 보도만화, 만화로 보는 과학 및 기술 등을 포함
- 비디오(YouTube): 자주 참조되는 프랑스 계정, 유머, 패션, 미용,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조언: 책, 영화, 비디오 게임에 대한 리뷰; 지식의 대중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함. YouTube 채널 아카이브 시에는 영상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나 홍보 배너는 제외. 구독도 가능하도록 함
-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정보와 문서의 투명성,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사용자 중심 행정의 주제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이 이루어짐



〈그림 V-4〉 프랑스 웹 아카이브

## 2.7 독일 국가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2006년에 제정된 독일 국가도서관법(DNBG)과 이 법에 따른 납본 규정(PfIAV)에 의해 운영됨
- 2006년 개정된 국가도서관법에 온라인 출판물이 포함되었음
- 독일에서 출판된 모든 미디어 작품, 독일어로 출판된 해외 출판물, 독일어 작품의 번역본, 독일과 관련된 외국어 출판물(Germanica),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독일어로 쓰여지거나 출판된 작품을 수집, 보관 및 목록화하도록 규정함



- “미디어 작품”은 “텍스트, 이미지 및 사운드로 표현된 모든 형태의 자료”로 정의되며, 비상업적 출판물을 포함함
- 인쇄 출판물은 “종이,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 및 기타 매체에 표현된 모든 자료”로 정의됨
- 온라인 출판물은 “공공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모든 표현”으로 정의됨
- 의무 납본 대상: 독일 내에서 배포되거나 공개되는 모든 미디어 작품, 독일어로 출판된 해외 출판물, 독일어로 번역된 외국어 출판물, 독일과 관련된 외국어 출판물(Germanica) 등을 포함함

## ② 디지털 납본법

### A. 기본 방향

- 2006년 개정된 국가도서관법에 온라인 출판물이 포함되었음
- 기탁자는 독일 국립도서관에 온라인 출판물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출판물은 도서(e-book), 저널(e-journals), 일간 신문(e-paper), 대학 간행물, 악보, 오디오북 및 인터넷에 게시된 디지털화된 개체를 포함함
- 제출된 미디어 저작물은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여야 하며, 이용에 시간제한이 없고, 도서관이 영구 보관하기에 적합한 상태여야 함
- 납본 시에는 도서관이 미디어 저작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요소,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제공해야 함
- 주로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 가능함
- 모든 납본된 온라인 출판물은 URN(Uniform Resource Name)이 부여됨

### B. 납본 제외 자료

- 공익적 목적이 없는 특정 온라인 출판물은 법적 공탁금 제도에서 제외
- 개인 웹사이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온라인 출판물(예: 휴가 사진,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웹사이트)
- 수명이 제한된 사전 출판물
- 순수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프로그램

-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 특정 주제가 없는 블로그

### C. 접근

- 사용 및 접근 권한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소유자가 결정
- 최소한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국립도서관에서는 지정 PC에서 이용 가능
- 온라인 출판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 처리할 수 없으며, 인쇄만 가능
- 미디어 저작물의 10% 이상은 복제할 수 없으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2) 장서개발정책

- 독일에서 출판된 미디어 저작물,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어 미디어 저작물,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어 미디어 저작물의 외국 번역본, 소위 게르마니카, 즉 독일과 관련된 해외에서 출판된 외국어 미디어 저작물, 독일어권 이민자가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편집하거나 출판한 인쇄물 등을 포함함
- 미디어 저작물에는 책, 저널, 신문, 지도, 악보, 표준, 음악 녹음 및 오디오북과 같은 모든 물리적 출판물은 물론, 온라인 출판물을 포함하도록 수집이 확대됨
- 온라인 출판물은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 논문, 디지털 오디오북, 음악 공연 또는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비물리적 출판물임
- 전자책: 킨들도 수집됨. 다만, 장기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roducer-specific file format)는 수집하지 않으며, 셀프 출판사는 웹 양식을 사용하여 PDF 또는 EPUB 버전의 전자책을 제출할 수 있음
- 신문: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전자신문이 PDF 형식으로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하고, 동일한 레이아웃의 전자신문 버전이 제출될 경우 물리적인 일간 신문 수집을 생략함
- 비물리적 미디어 작품: 인터넷에 게시된 작품으로 온라인 출판물 또는 온라인 자료로도 지칭함.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및 녹음을 수집 의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등가물이 인쇄된 온라인 출판물과 웹 전용 미디어 작품이 모두 포함됨

---

### 3) 웹 아카이브

#### ① 수집 대상

- DNB의 법적 수집 의무는 웹사이트의 수집, 인덱싱 및 아카이빙을 포함함
- 선택된 사이트는 웹 하베스팅(자동화된 웹 수집)을 통해 웹사이트의 스냅샷<sup>11)</sup>을 생성하고, 이를 목록에 색인하여 웹 아카이브에 보관함
- 웹사이트는 특정 형식 및 내용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집됨
  - 연방 당국 및 대학의 웹사이트, 블로그, 역사, 문학, 음악과 같은 주제, 그리고 연방 선거 또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과 같은 이벤트 관련 웹사이트
  - 지역 레벨에서 웹 아카이브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관과 협력하여 공동 컬렉션을 생성하기도 함 (예시: 튀링겐 웹 아카이브)
- 소셜 미디어 수집 여부: 개별적으로 특정 주제나 이벤트에 대한 선택된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수집하고 있으나,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지는 않음

#### ② 접근

- 웹 아카이브는 주제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전체 텍스트 검색 기능을 제공함
- 저작권 문제로 인해 수집된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암 마인의 열람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음
- 권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일부 웹 아카이브 콘텐츠는 열람실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 ③ 독일어 트위터 아카이빙

- 2023년 2월 20일, 독일 국가도서관과 Science Data Center for Literature가 주도하여 독일어 트윗에 대한 완전한 아카이브를 만드는 클라우드소싱 이니셔티브를 시작
- DNB는 영구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카이브 서버를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3월 19일과 20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독일 국가도서관에서 “지속 가능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 아카이빙 - 트위터 및 그 이상”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개최

---

11) 스냅샷은 하베스터가 특정 웹 주소에서 시작하여 이 주소의 웹 페이지와 도메인 내의 모든 연결된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웹사이트의 아카이브 복사본을 생성하는 것을 지칭함

---

되었음

- 이 회의에서 소셜 미디어의 동적 데이터를 아카이빙, 카탈로그화 및 제공하는 문제를 탐구하며, 연구자, 연구 기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음

## 2.8 스페인 국가도서관

### 1) 납본법

#### ① 기본 방향

- 스페인에서의 납본법은 1616년에 El Escorial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적인 납본 제도는 1957년에 도입된 규정을 통해 정립되었음
- 현재 스페인 납본법은 2011년에 제정된 법률(Ley 23/2011)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쇄출판물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도 포함하고 있음
- 2015년에는 Royal Decree 635/2015가 추가되어,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스페인 도메인(.es)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법적으로 수집 대상에 포함됨

#### ② 납본 대상 자료

- 종이책 및 팜플렛
- 연속 간행물, 잡지, 졸업 앨범, 회고록, 일기와 같은 지속적인 자원 및 업데이트 가능한 낱장과 같은 통합 가능한 자원
-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원본 인쇄물
- 편집된 사진
- 사진, 스티커, 트럼프 패, 엽서 및 인사말 카드
- 광고 및 광고 포스터
- 지도, 계획, 지도책, 해양, 항공 및 천체 차트
- 유아 교육, 초등, 의무 중등, 학사 및 직업 훈련 교육을 위한 교과서
- 오디오 문서

- 시청각 문서
- 마이크로폼
- 최첨단 기술이 언제든지 허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없는 모든 매체의 전자 문서
- 콘텐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어진 시간에 복사될 가능성이 있는 고정 수준 또는 등록 가능한 웹사이트
- 스페인 영토에 주소, 거주지 또는 영구 사업장이 있는 제작자가 만든 영화, 다큐멘터리 또는 픽션 영화의 원본 버전 전체 문서의 새 사본 및 해당 광고 자료의 사본

### ③ 납본 제외 대상

- 내부 성격의 공공 행정 문서 또는 행정 파일에 통합되기 쉬운 문서
- 회람, 지침 또는 절차 안내서와 같이 내부 문제만을 다루고 직원에게 보내는 비즈니스 조직을 포함한 기관 및 조직의 문서
- 다른 공공 행정부의 기관 또는 규모의 홍보 또는 양도 경쟁을 위한 간행물
- 우표
- 결혼식 및 세례식 초대장, 사망 통지서, 명함, 신분증, 졸업장 또는 졸업장과 같은 사회적 양식
- 사무 양식, 공식 양식, 설문지 및 설문 조사를 포함한 양식(예: 행정 절차에 관한 책과 함께 제공되는 양식 모음으로 구성된 책)
- 주문형 인쇄출판물
- 보도자료
- 상업 광고 시트
- 모든 종류의 상업 카탈로그
- 달력 및 의제
- 3차원 물체(주요 문서에 수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자연인 및 법인의 개인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항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하는 시청각 프로그램(배포 대상이 아닌 경우)

---

#### ④ 디지털 납본

##### A. 온라인 출판물 납본 규칙

- 법령 635/2015에 따라 웹사이트와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규정
- 온라인 출판물 납본 책임은 출판사에게 있지 않고, 스페인 국가도서관과 자치 지역에서 지정한 기관들이 수행함
- 온라인 출판물은 특정 형식으로 아카이브된 비물질적 전자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나 콘텐츠를 포함함

##### B. 납본 대상

- 웹사이트 및 그 안에 포함된 출판물, 전자 서적, 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포함
- 출판물의 생산, 편집, 유통 방법과 관계없이, 스페인 문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납본 대상

##### C. 납본 제외 대상

- 이메일과 개인 서신,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제한 접근 파일 등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됨

##### D. 관리 및 접근

- 보존 센터는 보존을 위해 캡처하거나 납본할 웹사이트와 출처를 결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적 재산권 법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출판물은 보존을 위해 적절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 시 비밀번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납본된 온라인 출판물은 연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사용자는 스페인 국가도서관과 자치 지역의 보존 센터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제한 접근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다만, 권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함

---

## 2) 웹 아카이브

- 전자출판물의 납본 절차에 기반하여 수집되고, 웹 아카이브가 구축됨

### ① 수집 전략

- 대량 수집: 도메인 전체를 작은 깊이로 크롤링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 .es 도메인과 그 하위 도메인)
- 정기 간행물 수집: ISSN 등록된 모든 정기 간행물을 연간 한 번 수집
- 선별 수집: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더 깊이 있게 수집함

### ② 선별 수집의 수집 기준

- 스페인의 역사, 사회, 문화의 미래 연구에 대한 의의가 있는 콘텐츠
- 대중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콘텐츠
- 연구 및 지식에 중요한 유산적 가치를 지닌 웹사이트
- 사라질 위험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
- 인쇄된 버전이 없는 콘텐츠
- 스페인에 중요한 사건(정치적 사건, 법적 변화, 저명한 인물의 죽음, 재난, 인도주의적 비극(전염병, 건강 위기), 문화행사, 스포츠 이벤트 등)

### ③ 수집 가능한 온라인 출판물

- 미디어: 신문, 뉴스 에이전시, 라디오 및 TV 채널
- 행정기관 웹사이트: 부처, 자치단체, 시청
- 정치기관 웹사이트: 정당
- 문화기관 웹사이트: 박물관, 도서관, 대학, 연구센터
- 과학기관, 의료기관, 스포츠 기관 웹사이트
- 자연 및 예술 유산 관련 사이트
- 문화행사, 회의, 세미나
- 수집 주제와 관련한 사람들의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트위터(현재 수집 중단), 페이스북
- 위키: 위키피디아

- 비디오 녹화: 유튜브
- 이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판단함

#### ④ 수집 불가능한 온라인 출판 물

- 개인 이메일 및 사적 서신
- 개인 네트워크에만 호스팅되는 콘텐츠
- 제한된 그룹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 ⑤ 보존 및 접근

- 수집된 자료는 장기 보존을 위해 저장되며, 접근은 법적 제한을 준수하여 제공됨
- 보존 센터는 수집된 온라인 출판물의 보존 및 접근을 책임지며, 이는 연구와 문화적 목적을 위해 활용됨



〈그림 V-5〉 스페인 웹 아카이브

## 2.9 시사점

### 1) 수집 방향 및 전략

- 각국 도서관의 온라인 수집은 웹 아카이브 및 납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집 및 보존 대상 디지털 자료의 범위는 전자책 및 전자저널에서 영화, 음악, 사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장서개발정책을 통해 디지털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자료와 같은 공개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수집전략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미국은 납본법에서의 의무적 제출을 제한하고, 요청 및 협력에 의한 수집을 확대하며, 디지털 납본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는 의무적 제출에 기반하여 수집 및 보존을 진행하고 있음
- 수집된 콘텐츠 접근허용 역시 국가마다 상이함.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광범위한 납본 및 웹 아카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에 영향을 받는 시청각 자료 등을 포함하므로 도서관 내 정해진 PC에서만 웹 아카이브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 2)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 유형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는 온라인 출판물을 공공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납본, 수집 및 보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는 시청각 자료,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웹툰, 스트리밍 콘텐츠(YouTube 및 팟캐스트)를 납본 및 웹 아카이브 수집 및 보존 대상에서 제외하고 웹아카이브에 충실하고 있음

## 3) 공공영역 온라인 콘텐츠 수집

-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서 발행하는 콘텐츠 위주로 공공영역의 온라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짐

## 4) 민간영역 온라인 콘텐츠 수집

- 웹툰의 경우, 뉴질랜드 및 프랑스는 웹툰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만화 뉴스, 정치 만화 등 제한된 주제를 선별적으로 수집함
- 시청각 자료의 경우, 팟캐스트, YouTube 등의 스트리밍 콘텐츠, 동적 콘텐츠, 라디

오 및 텔레비전 자료 등은 수집 제외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됨

- 음원 및 이미지자료의 경우, 대부분 선택적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연구자를 위한 자료로 선택적 수집되며, 대중음악 음원 수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소셜 미디어 자료는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제한된 그룹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집에서 제외되는 경우(미국, 영국)가 많음.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매우 선별적으로 수집함

〈표 V-1〉 국외 온라인 자료 수집

구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웹사이트	0	0	0	0	0	0	0
전자책/ 전자잡지/ 오디오북	0	0	0	0	0	0	0
웹툰	X	X	0	X	0	?	?
디지털 출판 뉴스	0	0	0	0	0	?	0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0	0	0 (게임 제외)	X	0	0	0
소셜 미디어	X	X (단, 연구목적 을 위한 블로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는 수집)	0	0	0	0	0
시청각 자료	0	X	0 (단, 라디오나 텔레비전 콘텐츠는 제외)	X	0	0 (단, 라디오나 텔레비전 콘텐츠는 제외)	0
팟캐스트 및 YouTube	X	X	X	X	X	X	0

### 3. 종합 및 방향성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 사례조사를 통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수집 방향 및 전략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이해관계자, 주제, 가치가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수집 전략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 산업 및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함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제작자, 유통사, 저작자 등) 협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적·법적 근거가 필요함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보상체계는 물질적 보상 및 비물질적 보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
- 수집 및 보존 대상 온라인 콘텐츠의 범위는 출판사와 국립중앙도서관 간의 의무와 이익의 균형, 납본법,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은 망라적 수집 및 선택적 수집으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음
-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 뉴스 콘텐츠의 경우, 망라적 수집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웹툰, 웹소설, 사진, 음원 및 OTT 자료 등의 시청각 자료, 소셜 미디어 콘텐츠, 데이터 세트, 공공기관 발행 콘텐츠 등은 주제, 품질, 기술·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선택적 수집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집 주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 교육 및 연구의 미래 가치가 있는 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수집 가능 콘텐츠의 기술 및 저작권을 고려하여 공개 라이선스 및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아이디나 비밀번호,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 저작권 제한이 적은 자료, 관리 및 보존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집할 수 있음
- 콘텐츠 접근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공개 접근, 국립중앙도서관 지정 PC 접근 가능, 엠바고(embargo)에 따른 접근 제한 등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

---

호할 필요가 있음

## 2) 온라인 K-콘텐츠 고려사항

- 교육콘텐츠의 경우, 오픈 교육 리소스를 우선 수집대상으로 포함하고 점차 확대할 수 있음
- 웹툰은 수상작, 홍보 목적 웹툰(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웹툰), 뉴스 웹툰 등을 우선 수집할 수 있으며, 상업적 웹툰은 이용 등급, 플랫폼 내 독점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음
- 웹소설은 장르 소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제 적합성 및 수집·보존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내 독점기간을 고려하여 확대해야 함
- 음원은 주제 적합성 및 수집·보존 가치를 고민하며, 대중음악 음원의 경우, 플랫폼 내 독점기간을 고려하여 확대해야 함
- 소셜 미디어의 경우, 소셜 미디어의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위키미디어 및 나무위키와 같이 개인정보 노출 및 접근 제한이 적은 콘텐츠를 우선 수집하거나, 정치가, 유명인, 정부 기관의 소셜 미디어를 우선 수집할 수 있음

## VI.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의 방향성
2.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3. 능동적 납본 및 자체 수집 전략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5.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



## VI.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적절성 및 보완사항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였음. 본 장에서는 전문가 그룹 의견을 반영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제시함. 또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로 법제도 개선, 기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 환경 구축 방안을 제안함

## 1.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의 방향성

### 1.1 전문가 그룹 검증

- 전문가 그룹 의견 수집의 목적: 연구진이 작성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안’에 대한 적절성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수집
- 대상: 5명의 전문위원(4장 FGI 대상 전문가 그룹과 동일)
- 방법: 서면
- 전문가 그룹에 대한 질문 문항은 <표 VI-1>과 같음(질문지는 <부록 2> 참조)

〈표 VI-1〉 전문가 그룹 대상 질문 영역 및 질문 문항

질문 영역	질문 문항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안	
공공 및 민간영역 수집 전략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영역’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li>• ‘민간영역 - 웹툰’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li>• ‘민간영역 - 웹소설’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li>• ‘민간영역 - 음원’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li>• ‘민간영역 - 동영상’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li>• ‘민간영역 - OTT’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li> </ul>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BN 발급 콘텐츠 중 미납본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 요청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li> <li>•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간행물팀 수집 현황을 기반으로 다수 수집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 요청 부분에 대한 적절성</li> <li>• 공공누리 참여기관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순으로 연계 콘텐츠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수집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li>•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ul>
자체수집 전략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법 제22조 온라인 자료 의무납본 이전 2014~2016년 기준 ISBN을 다수 발급받은 기관 중 미납본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li>• UCI 발급기관 중 원문을 소장하고, 다수의 UCI 발급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li>• 콘텐츠 산업법(출판, 영화, 만화 등)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의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 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li>• 신탁관리단체 중 저작물 관리 건수가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납본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li> </ul>
능동적 납본 수집과 자체 수집 전략안의 전체적인 방향성(흐름)의 적절성	
추가 의견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근거 마련’에 대한 적절성</li> <li>•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협력체제 모델’의 적절성</li> <li>•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에 대한 적절성</li> <li>•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시스템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적절성</li> </ul>
중장기 수집 로드맵	•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에 대한 적절성
추가 의견	

## 1) 공공 및 민간영역 수집 전략안

- ‘공공영역’의 수집전략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할 계획이라면 저작권 문제의 검토가 필요함. 콘텐츠 유형에 있어서 시청각 자



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영상물, 이미지, 보도자료, 관련 기사의 순으로 우선 수집하는 것이 적절함. 정책 홍보 및 대국민 교육용 콘텐츠는 별도의 수집이 요구됨. 공공영역 콘텐츠의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은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K-콘텐츠’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민간영역’ - ‘웹툰’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해 UCI 발급과 동시에 납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보안 대책 및 활용 계획의 방향성도 구체화되어야 함. 무엇보다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창작자나 저작권자로부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 ‘민간영역’ - ‘웹소설’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해 웹소설 플랫폼들은 저작권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수집을 위한 허락을 일일이 받기가 어려울 것임. 저작권에서의 분쟁의 정도가 적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웹소설을 우선 취합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웹소설 수집 시 소설 내용의 수위를 고려해야 함
- ‘민간영역’ - ‘음원’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해 국내 음악이 유통되는 음원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용허락 승인이 필요하며, 음원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민간영역’ - ‘동영상’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해 동영상의 범위가 넓어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등록된 한류 관련 동영상을 일일이 찾아 제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송사 등 민간기업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각 방송사가 아카이브하여 저장하고 있는 방대한 양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함
- ‘민간영역’ - ‘OTT’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해 OTT 서비스 플랫폼의 법적인 국적 등을 고려해서 수집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OTT 외에 스마트TV 기반의 영상 서비스 방식인 FAST(광고기반 무료 서비스 TV)로 유통되는 콘텐츠도 있어 이에 대한 수집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능동적 납본 수집 전략안

- ISBN 발급 콘텐츠 중 미납본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하는 방식은 적절함. 납본 비협조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이후 콘텐츠에 대해 ISBN 발급 제한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간행물팀 수집 현황을 기반으로 다수 수집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원활한 수집을 위해 온라인 K-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공누리 참여기관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순으로 연계콘텐츠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며, 문자자료는 웹툰 및 웹소설에 한정하고 이미지, 영상 등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방식은 적절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을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 3) 자체수집 전략안

- 도서관법 제22조 온라인 자료 의무납본 이전 2014~2016년 기준 ISBN을 다수 발급 받은 기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수집된 자료가 많은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 UCI 발급기관(RA) 중 원문을 소장하면서 다수의 UCI 발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위해 저작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콘텐츠 산업별(출판, 영화, 만화 등)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의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을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신탁관리단체 중 저작물 관리 건수가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납본을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신탁관리단체가 콘텐츠를 직접 보관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4) 능동적 납본 수집 및 자체수집 전략안의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가 의견

- 수집대상 선정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적절하나 실제 수집 과정이 진행되면 민간영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수집대상은 모든 온라인 K-콘텐츠를 포괄하기보다는 선별과정을 거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해야 함

- 수집대상이 매우 넓어서 수집을 위한 인력, 비용 등의 자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어야 함
- K-콘텐츠 수집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함

## 5) ‘법제도 근거’ 마련의 적절성

-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 별도의 자문이 필요함
- 관련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향후 별도의 연구가 요구됨
- 공공을 위해 가치있는 콘텐츠를 법제화를 통해 수집·보존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와 창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저작권법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협력체제 모델’의 적절성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중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콘텐츠 원본에 관한 제공은 저작권의 복제, 전송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 및 장기로 모델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7)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에 대한 적절성

- 연계 협력 진행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선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8)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시스템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적절성

- 국립중앙도서관 외 다른 기관에서 UCI가 발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음원, 웹툰 등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9)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에 대한 적절성

- 3~5년차 계획인 음원, 영상, OTT 콘텐츠에 대한 수집도 1~2년차부터 시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유형의 K-콘텐츠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10) 추가 의견

- 온라인에 유통되는 방대한 K-콘텐츠에 대한 납본을 통한 수집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선별된 콘텐츠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가 휘발성이 강하니 가능한 범위를 넓혀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창작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이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여 창작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함

## 1.2 주요 방향성 설정

### 1)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함.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성격 및 가치가 다르기 때문임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콘텐츠는 대부분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있어서 콘텐츠의 수집과 보존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음. 그러나 민간기관이 생산한 콘텐츠는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문제, 상업적 이익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집 전략을 공공영역과는 다르게 수립해야 함
  - 공공콘텐츠는 대체로 사회적,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가 아카이브로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반면, 민간콘텐츠는 상업적 목적을 띠며 대중문화를 반영하는 콘텐츠가 많음. 따라서 공공콘텐츠와 민간콘텐츠는 가치를 평가

하고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 필요함

- 공공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일차적으로 기관유형별로 수립함. 각 공공기관이 여러 유형의 콘텐츠(예시: 보고서, 동영상, 이미지 등)를 생산하기 때문에 콘텐츠 유형별로 수집 절차를 분리하기 어려움. 또한, 기관유형별(예, 중앙정부기관, 문화유산저작물관리기관 등)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일차적으로 콘텐츠 유형별로 수립함. 콘텐츠 생산기관이나 유통플랫폼이 콘텐츠 유형별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음(예, 네이버웹툰 - 웹툰). 따라서 특정 유형의 콘텐츠 수집 시 관련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콘텐츠 유형별로 저작권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웹툰, 음원, OTT 등 각 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법제도 마련 및 저작권 협의 절차가 필요함
- 공공 및 민간영역 콘텐츠 수집 전략은 다음의 항목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수립함
  - 수집 일반원칙: 수집 대상 콘텐츠의 가치, 수집 콘텐츠 유형, 법적 검토, 인프라 구축
  -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기관의 유형 및 주요 기관
  -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구체적인 수집 콘텐츠 유형 및 다양한 수집 방식
  - 수집 우선순위: 단계별 수집의 우선순위

## 2) 능동적 납본 및 자체 수집 전략

- ISBN 발급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발행기관 중에서 미납본율이 높은 기관과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공공간행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공공누리 참여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집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저작물 관리 기관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공공간행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통해 공개되고

---

있는 공공누리 참여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집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저작물 관리 기관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을 추진함

- 자체수집의 경우에는 ISBN을 발급받았으나 온라인 납본법 시행 이전에 제작·발행된 자료의 발행기관들을 수집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K-콘텐츠의 특성상 UCI 식별자가 발급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UCI 발급기관(RA) 중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수집의 대상으로 함
- K-콘텐츠의 정의상, 경제적 부가가치를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국내 콘텐츠 산업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상장사들을 수집의 대상으로 함
- K-콘텐츠의 경우 민간에서 제작·발행되는 콘텐츠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수 있고, 민간영역의 콘텐츠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함. 이에 원문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저자(제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을 수집대상에 포함함

### 3) 기반 환경 구축

- 전문가 그룹 의견 검토 결과,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수집 대상 선정 및 절차 수립 외에도 법적 검토, 인프라, 협력체제 등 기반 환경 구축을 강조하였음. 전문가의 주요 의견 및 이를 반영하여 수정·추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제도 근거 마련: 민간영역 콘텐츠 수집 시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개정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이에 따라 도서관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대해 각각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온라인 K-콘텐츠 수집·활용 적용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 협력 체제 모델: 국립중앙도서관이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K-콘텐츠 원본까지 수집·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메타데이터 수집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모델과 원문까지 수집하는 장기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함
- UCI 등록시스템 연계: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 중인 UCI 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K-콘텐츠 등록과 함께 납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 의견을 바탕으로 UCI 등록시스템 연계의 필요성 및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구성도를 제안함. 이와 더불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예산(안)을 제시하여 실제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

-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 및 보존을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4) 중장기 수집 로드맵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반 환경도 적절하게 구축해야 함. 이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에서 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음
-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집 대상 콘텐츠의 우선순위, 법제도 마련, 기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예를 들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기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콘텐츠 수집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2.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 2.1 공공영역

####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콘텐츠

##### ① 수집 일반원칙

- 사회적, 문화적 가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중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거나 국민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한 콘텐츠 혹은 국가지식문화를 잘 반영하여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수집함
- 법규 준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개별 콘텐츠에 따라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기관의 간행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집 콘텐츠 유형: 문자자료 외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 대상으로 선정함
-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향상: 수집된 간행물은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비연구출연기관
-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기관 간행물: 최신 정책 소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국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웹툰, 음성·음향 등의 콘텐츠를 수집함
- 메타데이터: 제목, 발행기관, 발간등록번호, 발간일자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파일 다운로드: 기관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수집
- 웹 크롤링: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수집 방식
- 납본: 기관에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

### ④ 수집 우선순위

- 기관 유형: 정책적 영향력의 크기를 반영하여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 공공기관 콘텐츠 순으로 수집함
- 지역적 중요성: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콘텐츠는 기초자치단체 콘텐츠에 비해 정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집함
- 공공누리 연계 콘텐츠의 수: 공공누리 참여기관 중 연계 콘텐츠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수집함
- 정책 홍보 및 대국민 교육 콘텐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나 대국민 교육·캠페인의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수집함
- 수집 콘텐츠 유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도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력 및 현장성을 고려하여 영상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미지, 음성음향, 웹툰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함
- 해외 서비스용 외국어 콘텐츠: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 홍보 및 문화 교류 촉진의 목적으로 외국어로 제작하여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콘텐츠도 수집함

〈표 VI-2〉 정부 및 공공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대상	설명
1단계	정부기관 콘텐츠	최신 정책 소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문화유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콘텐츠	최신 정책 소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문화유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2단계	공공기관 콘텐츠	최신 정책 소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문화유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해외 서비스용 외국어 콘텐츠	국가 홍보 및 문화 교류 촉진 목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콘텐츠의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p>정부 및 공공기관의 콘텐츠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의 정책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관의 정책 결정 절차와 이행 결과를 반영하였거나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영상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미지, 음성음향, 웹툰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수집한다.</li> <li>-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콘텐츠의 순으로 우선 수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기초자치단체의 콘텐츠보다 우선하여 수집한다.</li> <li>- 공공누리에서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정책 홍보,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의 목적으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한다.</li> <li>- 국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외국어로 제작되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도 수집한다.</li> </ul>
---

## 2) 문화진흥기관

### ① 수집 일반원칙

- 문화적, 역사적 가치: 문화진흥기관에서 생산·보유하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수집해야 함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해야 함. 특히 문화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이 산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향상: 문화예술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

---

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콘텐츠 산업 지원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발행하는 간행물 및 지원사업의 산출물을 수집함
- 문화예술진흥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원연합회 등 문화예술진흥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지원사업의 산출물을 수집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기관 간행물: 기관에서 발행하는 동영상, 음성·음향,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함
- 정부지원사업 산출물: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방송영상, 게임, 음악,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공연예술(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대본, 신기술콘텐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의 산출물을 수집함
- 메타데이터: 제목, 저자/창작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자료유형, 지원사업명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파일 다운로드: 기관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
- 웹 크롤링: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 가능
- 기증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관별로 협력을 맺어 자료를 기증받음
- 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은 해당 산출물을 생산한 개별 기관(개인)으로부터 수집하기보다는 지원 기관을 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진흥기관 간행물: 문화진흥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중 문화진흥 동향이나 지원사업 관련 동영상, 음성·음향,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국고지원사업 산출물: 중요한 문화적 성과물인 국고지원사업의 산출물을 수집해야 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표 VI-3〉 문화진흥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기관 간행물	동영상, 음성음향, 이미지 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
2단계	정부지원사업 산출물	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인 방송영상, 음악,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대본, 게임, 신기술콘텐츠 등을 수집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지원 기관의 콘텐츠에 대한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문화진흥기관 콘텐츠의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 기관 간행물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동영상, 음성음향,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인 방송영상, 음악,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대본, 게임, 신기술콘텐츠 등의 콘텐츠를 수집한다.
- 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은 위탁기관을 통해 수집한다.
-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3)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 ① 수집 일반원칙

- 문화적, 역사적 가치: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아카이브를 수집함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해야 함. 아카이브 내 개별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저작권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향상: 문화유산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박물관, 미술, 공연예술 등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및 아카이브: e-뮤지엄,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아시아문화박물관아카이브, 국립극단 아카이브 등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영상, 음원, 사진 등 예술작품에 대한 콘텐츠를 수집함
-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동영상 등 예술가의 삶과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가 콘텐츠를 수집함
-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 가상현실(VR) 전시 등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콘텐츠도 수집함

### B. 수집 방식

- 파일 다운로드: 기관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함
- 기증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관별로 협력을 맺어 자료를 기증받음

## ④ 수집 우선순위

- 문화적, 역사적 가치: 공신력 있는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의 아카이브에서 포함하고 있는 예술작품에 대한 콘텐츠 및 부가 콘텐츠를 수집함
- 기술적 특성을 지닌 콘텐츠: 온라인 전시, 가상현실(VR) 전시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표 VI-4〉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문화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포함된 콘텐츠(공연영상, 공연대본, 음원, 사진, 인터뷰 동영상 및 녹취록 등)를 수집함
2단계	기술적 특성을 지닌 콘텐츠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 가상현실(VR) 전시 등 동적인 콘텐츠를 수집함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유산저작물관리기관의 콘텐츠에 대한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콘텐츠의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저작물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에서 관리 중인 콘텐츠(예: 공연영상, 음원, 사진, 인터뷰 동영상, 녹취록 등)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콘텐츠(예: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전시)도 수집하여 현대 예술 발전 과정을 수록한다.
-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지역 콘텐츠

### ① 수집 일반원칙

- 문화적, 역사적 가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적 다양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수집해야 함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함. 지역 콘텐츠는 다양한 주체(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체, 개인 등)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함
- 균형성: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수집함
-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향상: 지역 콘텐츠는 자료유형이 다양하므로 수집된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역 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수집함
-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학회: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학회의 간행물을 수집함
- 지역 문화재단, 지방 문화원, 예술단체 등: 지역의 문화유산과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함
-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지역 공공도서관 등에서 보유한 지역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지역 공영방송국: 지역 공영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함
- 지역 아카이브: 광역자치단체, 지역 단체,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아카이브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지방자치단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동영상, 지역 문화재 사진, 지역 주요 축제나 행사 사진, 관련 음성 음향 등을 수집함
- 지역 문화재단, 지방 문화원, 예술단체 등이 보유한 지역 홍보 동영상, 사진, 지역 예술가(단체)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함
-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이 보유한 동영상, 사진 등을 수집함
-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학회나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을 수집함
- 지역 공영방송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지역행사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생활상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함
- 지역 아카이브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함
- 메타데이터: 제목, 발행기관, 발간일자, 자료유형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파일 다운로드: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
- 웹 크롤링: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
- 기증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관별로 협력을 맺어 자료를 기증받음
- 오프라인 수집: 지역 역사자료 등 인쇄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유실 가능성: 유실의 가능성이 높은 아카이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중요한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함
- 지역적 중요성이 높은 콘텐츠: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기초자치단체 간행물에 우선하여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지역의 문화적 풍부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오프라인 자료: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오프라인 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함

〈표 VI-5〉 지역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지방자치단체 콘텐츠	지방자치단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역 홍보 동영상, 지역 축제·행사 사진 등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콘텐츠	광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사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
	지역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 단체 콘텐츠	지역 문화나 지역 예술가(단체)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 사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
	지역 연구소 및 학회 콘텐츠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보고서, 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
2단계	지역 공영방송국 방송영상 콘텐츠	지역사회의 현안과 생활상을 다룬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수집
	지역 아카이브	유실의 가능성이 높은 아카이브를 우선적으로 수집
3단계	오프라인 자료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인쇄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
	지역 아카이브	유실의 가능성이 낮은 아카이브를 수집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콘텐츠에 대한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지역 콘텐츠의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 지방자치단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 홍보 동영상, 주요 지역 축제·행사 사진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광역대표도서관, 지역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사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지역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 사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지역 연구소 및 학회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보고서, 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지방 공영방송국에서 제작한 지역사회의 현안과 생활상을 다룬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수집한다.
- 유실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카이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지역의 문화적 풍부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5) 해외 소재 콘텐츠

### ① 수집 일반원칙

- A. 문화적, 역사적 가치: 해외에 소재한 한국과 관련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수집해야 함
- B.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해야 함
- C. 지속가능성 및 접근성 향상: 수집된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주요 국제기구·국제회의: UN, UNESCO 등 국제기구·국제회의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 간행물을 수집함
- 해외 국가의 정부기관: 해외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발행한 간행물을 수집함
- 해외 국립도서관 및 국립기록보존소: 해외 국가의 국립도서관 및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재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원, 세종학당 등: 외국 주재 한국문화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수집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보고서: 국제기구·국제회의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중 한국을 대상으로 발간한 보고서(예: UN의 한국 Country Report), 한국 주요 인사의 연설문, 지도 등을 수집함
- 정책자료: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발간한 한국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함
- 기록물: 미국의 NARA, 영국의 TNA 등 해외 국가 기록보존소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수집함
- 해외 소재 한국문화기관: 재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원, 세종학당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련 도서, 동영상, 사진 등을 수집함
- 메타데이터: 제목, 발행기관, 발간일자, 자료유형, 언어, 내용 설명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파일 다운로드: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
- 기증 및 교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관별로 협력을 맺어 기증받거나 자료 교환을 통해 수집함
- 오프라인 수집: 오프라인 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기초 자료: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국제적 중요성이 높은 자료: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발행한 한국 관련 간행물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우선적으로 수집함
- 정책자료: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를 우선적으

로 수집함. 북한 자료는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함

-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재외 한국문화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련 동영상, 사진 등을 수집함. 행사 포스터 등 단순 홍보성 콘텐츠는 제외하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오프라인 자료: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오프라인 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함

〈표 VI-6〉 해외 소재 콘텐츠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해외 국립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해외 국립도서관 및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보유한 기록물 중 한국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자료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 연설문, 지도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정책자료	중국, 일본 정부가 발행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북한 관련 자료도 수집함
2단계	재외 한국문화기관	한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수집함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지원 기관의 콘텐츠에 대한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p>해외 소재 콘텐츠의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국립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서 보유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 역할, 이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발간한 한국 관련 지도, 동영상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국가가 발행한 한국 관련 정책자료를 수집한다.</li> <li>- 북한 자료는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재외 한국문화기관에서 보유한 한국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수집한다.</li> </ul>
--

---

## 2.2 민간영역

### 1) 웹툰

#### ① 수집 일반원칙

##### A. 수집 필요성

- 웹툰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 웹툰 플랫폼 34개, 출판사 178개, 2023년 2분기 34개 플랫폼에 등록된 작품은 총 5,350개이며, 플랫폼 중복 연재 제외 신작은 1,070개임
- 웹툰은 문학적, 시각적 예술 형태를 결합한 독특한 콘텐츠로서,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수요가 있음
- 웹툰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으로 소실이 우려되는 웹툰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웹툰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웹툰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로, 저작권 문제 및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수집해야 함
- 웹툰의 보존 및 활용방안은 웹툰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작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B. 법적 근거와 납본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을 포함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납본제도를 확립해야 함.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C. 지속 가능성 및 접근성 보장

- 수집된 웹툰은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포맷을 수집하

---

되,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 수집함  
- 웹툰의 경우, 자료의 특성에 맞춰 그래픽 표준 포맷(JPEG 또는 JPG)도 수집함

D. 저작권 준수: 모든 수집 활동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함.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와의 협의 및 계약을 통해 합법적인 수집 절차를 진행함

E. 문화적 가치: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수집함

F. 최신 트렌드 반영: 웹툰 산업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수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웹툰의 종류는 포털사이트, 웹툰 전문 플랫폼, 신문사 웹툰, 지자체·공공기관, 만화출판사, 교육 전문 웹툰으로 나눌 수 있음
- 웹툰은 콘텐츠가 연재되는 플랫폼에 따라 사업목적, 홍보 및 교육목적으로 나누어짐
- 포털사이트, 웹툰 전문 플랫폼, 교육 전문 웹툰 플랫폼의 경우, 사업목적이 크지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홍보의 목적과 함께 교육 목적이 큼
- 주요 웹툰 플랫폼: 국내·외 주요 웹툰 플랫폼(예: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툰(다음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탑툰 등)은 웹툰 콘텐츠의 주요 출처이므로, 이러한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웹툰은 주요 수집 대상이 되어야 함<sup>12)</sup>. 특히, 인기 작품, 신진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범위의 작품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독립 창작자 및 중소 플랫폼: 대형 플랫폼 외에도 독립적으로 웹툰을 제작하여 개인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중요한 수집 대상임. 이들 콘텐츠는 주류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콘텐츠의 수집도 필요함
- 웹툰 관련 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협회 등 웹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

12)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의 60%가 순수 창작 웹툰이 차지하였으며, CP에서는 순수 창작 웹툰의 제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즉, 플랫폼을 통해 순수 창작 웹툰이 대부분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여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출판사 및 관련 협회로부터 웹툰 출판 및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함

- 신문사 웹툰: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툰으로 주로 온라인 뉴스 채널 방문자 유입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 · 공공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하거나 공모전 개최로 선정된 수상작 등이 있음, 대부분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 문서만 열람할 수 있고,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교육플랫폼: 교육 웹툰은 텍스트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교육자료가 일상 내용 등의 소재를 곁들여 제작된 콘텐츠임. 교육 웹툰은 크게 공공기관, 교육 웹툰 전문업체에서 제작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웹툰 본편: 웹툰의 본편은 수집해야 하며, 작품의 모든 에피소드와 버전을 포함해야 함
- 완결 웹툰: 스토리가 완결된 웹툰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 연재 웹툰: 인기 연재 웹툰의 경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회차까지 수집함
- 단편 웹툰: 독립 웹툰 플랫폼 등에서 발표되는 단편 웹툰도 수집 대상에 포함함
- 연관 자료: 웹툰과 관련된 부가 자료(예: 작가 인터뷰, 제작 과정, 독자 댓글 등)도 함께 수집하여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메타데이터: 작품의 제목, 작가 정보, 발행 일자, 장르, 키워드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B. 수집 방식

- 자체 수집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플랫폼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 및 저작권 협의가 필요함
- 납본: 웹툰 플랫폼 및 독립 창작자에게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주기적으로 최

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공개된 웹툰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함
- 기증 및 구매: 웹툰 관련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증 또는 구매를 통해 웹툰 콘텐츠를 수집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웹툰의 수집 우선순위는 가치, 장르, 완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초기 웹툰, 사회적 논의가 된 작품,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 등
  - 교육 및 연구목적: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웹툰, 뉴스 미디어에서 발행한 웹툰
  - 신진 작가의 작품: 미래의 문화를 예측하고,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 인터랙티브 웹툰, AR/VR 기술을 활용한 웹툰
  - 완결된 웹툰: 완결 웹툰을 우선 수집함
  - 연령대: 웹툰은 다양한 장르가 발달된 콘텐츠로 일부 폭력성, 선정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용 등급 역시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로 구분되고 있음. 전체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웹툰을 우선 수집함

〈표 VI-7〉 웹툰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한국 웹툰의 역사를 대표하는 작품	한국 웹툰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대표하는 작품을 최우선으로 수집함
	국내외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이 큰 작품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거나, 큰 문화적 영향력을 미친 작품을 수집함
	포털 플랫폼의 인기도 높은 작품	포털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인기도(Top 100, 판매량, 조회수 등)가 높은 작품을 최우선으로 수집함
	웹툰 원작 드라마/영화 등 파급력이 큰 작품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웹툰 원작 작품을 수집함
	완결된 웹툰	스토리가 완결된 웹툰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2단계	신진 작가의 데뷔작 및 대표작	신진 작가의 첫 작품, 신진 작가 수상작 및 대표작을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발굴하고 보존함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	인터랙티브 웹툰, AR/VR 기술을 활용한 웹툰 등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수집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작품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웹툰, 뉴스 미디어에서 발행한 웹툰 등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수집함
	독립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	대형 플랫폼 외 독립적으로 연재되는 웹툰도 중요한 수집 대상임.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함
3단계	연재 중인 인기 웹툰	인기 있는 연재 중인 웹툰을 수집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화차까지 포함함
	웹툰 관련 부가 콘텐츠	웹툰과 관련된 작가 인터뷰, 제작 과정, 독자 댓글 등 부가 콘텐츠를 함께 수집하여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함

<p>웹툰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며, 웹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 웹툰의 발전 과정을 대표하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포털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기도(Top 100, 판매량, 조회수 등)가 높은 작품을 최우선으로 수집하며,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li> <li>- 포털 플랫폼 외 연재형 웹툰 중 영화, 드라마화,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진행된 작품을 우선 수집하며, 특히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문화적 영향력이 큰 작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li> <li>- 완결된 웹툰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연재 중단, 장기 연재, 마지막 연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료 등 소실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완결 전에 수집할 수 있다.</li> <li>- 신진 작가의 데뷔작, 수상작 및 대표작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미래 문화를 예측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li> <li>- 독립 웹툰 플랫폼 및 중소 플랫폼에서 제작된 작품도 주요 수집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류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집한다.</li> <li>-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웹툰, 뉴스 미디어에서 발행한 웹툰 등, 특히 교육 및 연구 목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중요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예: 인터랙티브 웹툰, AR/VR 기술을 활용한 웹툰)을 우선 수집 대상에 포함하여, 최신 기술을 반영한 웹툰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li> <li>- 웹툰과 관련된 부가 자료(작가 인터뷰, 제작 과정, 독자 댓글 등)를 함께 수집하여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작품의 제목, 작가 정보, 발행 일자, 장르, 키워드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li> <li>- 상업적 웹툰은 이용 등급, 플랫폼 내 독점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한다.</li> <li>- 수집된 웹툰은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포맷을 수집하되,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 수집한다.</li> <li>- 웹툰의 경우, 자료의 특성에 맞춰 그래픽 표준 포맷(JPEG 또는 JPG)도 수집한다.</li> </ul>
--



---

## 2) 웹소설

### ① 수집 일반원칙

- 웹소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웹소설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중요한 문학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웹소설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해야 함. 특히 웹소설은 장르소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정성이나 폭력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작품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해야 함. 웹소설의 수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객관성 및 공정성: 특정 플랫폼, 장르, 작가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웹소설 콘텐츠를 선정하여 수집함
-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보장: 수집된 웹소설은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디지털 장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웹소설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A. 주요 웹소설 플랫폼

- 주요 웹소설 플랫폼: 네이버시리즈,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조아라 등 주요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 우선 수집
- 중소형 웹소설 플랫폼: 신생 플랫폼, 독립 플랫폼 등 중소형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 발굴 수집
- 개인 블로그 및 커뮤니티: 개인이 웹소설을 창작하여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공유되는 작품도 수집 대상임. 이들 작품은 주류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포착하는 데 중요함
- 웹소설 공모전 및 수상작: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 웹소설 어워드 선정작 등 우수

## 웹소설 작품 수집

- 관련 출판사 및 협회: 웹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와 관련 협회나 웹소설 교육기관(문피아 아카데미, 웹소설학과 등)도 수집 대상 기관에 포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웹소설 본문: 웹소설의 모든 장과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각기 다른 버전의 웹소설 본문을 수집해야 함. 이는 작품의 전반적인 스토리 및 작가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필수적임
- 연관 자료: 작품과 관련된 부가 콘텐츠(예: 작가 인터뷰, 독자 리뷰, 댓글, 독자 반응, 웹소설 일러스트, 메이킹 비디오 등)도 함께 수집하여 작품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메타데이터: 제목, 작가 정보, 발행 일자, 장르, 태그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자체 수집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웹소설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소설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함
- API 연동: 소설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통해 웹소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집
- 납본 방식: 웹소설 플랫폼 및 독립 창작자에게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최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공개된 웹소설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 기증 및 협력: 작가, 출판사, 웹소설 플랫폼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웹소설 콘텐츠를 기증받거나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여 수집
- 오프라인 수집: 웹소설 관련 출판물, 웹소설 작가의 개인 아카이브 등 오프라인 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

#### ④ 수집 우선순위

- 웹소설의 수집 우선순위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 인기도, 저작권, 완결성,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웹소설 중에서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 한국 웹소설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사회적 논의가 되었던 작품, 또는 특정 시대의 문학적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함
  - 인기도 및 영향력: 독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은 작품, 웹소설 트렌드를 선도한 작품, 다른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친 작품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웹소설을 우선 수집함
  - 희귀성 및 보존 가치: 절판되었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연재되었던 작품, 개인 블로그 등에서만 공개된 작품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웹소설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장르, 소재, 작가, 플랫폼의 웹소설을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웹소설의 다양성을 보존함
  - 신진 작가의 작품: 미래의 문학적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시도한 웹소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요소나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도록 함

〈표 VI-8〉 웹소설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순위	플랫폼의 인기도가 높은 작품	주요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문피아 등)의 조회수, 연령별 인기도, 구독자 수 등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을 수집함으로, 대중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함
	국내외 수상작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진행된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작을 수집하여, 웹소설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기록함
	초기 웹소설 중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	웹소설의 초기 단계에서 큰 인기를 끌어 웹소설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을 최우선으로 수집함으로, 한국 웹소설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함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작품	사회적 이슈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을 수집함으로,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함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다른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친 작품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른 미디어로 재탄생한 웹소설을 수집함으로, 문화적 파급력이 큰 작품을 보존함
	완결된 웹소설	스토리가 완결된 웹소설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	절판되었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 개인 블로그에서만 공개된 작품 등
2순위	다양성을 반영한 작품	다양한 장르, 소재, 작가, 플랫폼의 웹소설을 균형 있게 수집
	신진 작가의 작품	신진 작가의 첫 작품, 신진 작가 수상작 및 대표작을 수집하여 미래의 문학적 트렌드를 예측함
3순위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시도한 웹소설, 멀티미디어 요소나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한 작품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함

<p>웹소설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웹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li> <li>- 초기 웹소설 중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과 한국 웹소설의 발전 과정을 대표하는 작품을 우선 수집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던 작품이나 특정 시대의 문학적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을 중요한 수집 대상으로 우선한다.</li> <li>- 독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나 웹소설 트렌드를 선도한 작품, 그리고 다른 문화 콘텐츠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을 인기도 및 영향력 측면에서 우선 수집한다.</li> <li>- 포털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문피아, 조아라 등)의 인기도(통합 랭킹, 연령별 인기작)가 높은 작품을 최우선으로 수집하며,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li> <li>- 포털 플랫폼 외 연재형 소설 중 영화, 드라마화,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진행된 작품을 우선 수집하며, 특히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문학적 영향력이 큰 작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li> <li>- 완결된 소설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연재 중단, 장기 연재, 마지막 연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료 등 소실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완결 전에 수집할 수 있다.</li> <li>- 절판되었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 개인 블로그에서만 공개된 희귀한 작품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소실을 방지한다.</li> <li>- 다양한 장르, 소재, 작가, 플랫폼에서 제작된 웹소설을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웹소설의 다양성을 보존한다.</li> <li>- 미래의 문학적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작가의 작품, 공모전 수상작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한다.</li> <li>-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시도한 웹소설로, 멀티미디어 요소나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한 작품 등 기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다.</li> <li>- 민간 웹소설의 경우, 플랫폼 내 독점기간을 고려하여 확대한다.</li> <li>- 수집된 웹소설은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향후 세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포맷을 수집하되,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 수집한다.</li> <li>- 웹소설의 경우, 자료의 특성에 맞춰 그래픽 표준 포맷(JPEG 또는 JPG)도 수집한다.</li> </ul>
--

### 3) 음원

#### ① 수집 일반 원칙

- 음원은 국악, 대중음악, OST, 클래식, 종교음악, 아동음악 등 유·무선 기반하에서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 자료, 국내 아티스트의 대중음악 자료, 인디음악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함
- 음원의 문화적 가치: 음원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따라서 음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장르와 시기의 음원을 포괄적으로 수집함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함. 음원 수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 의무를 명확히 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특정 장르, 가수, 음반사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음원 콘텐츠를 선정하여 수집함
-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보장: 수집된 음원은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함. 디지털 장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음원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 이해관계자 이용허락 여부: 음원 수집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용허락 승인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이용허락 승인 여부가 수집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바이브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음원을 우선 수집함
- 음반 제작 및 유통사: 음반 제작사, 음반 유통사, 연예 기획사 등 음원 제작 및 유통 관련 기관에서 발매하는 음원을 수집함
- 인디 음악 및 비주류 음악: 인디음악 레이블, 비주류 음악 커뮤니티, 개인 음악 창작자 등이 제작하는 음원을 발굴하여 수집함. 이러한 음원들은 주류 음악 시장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포착하는 데 중요함
- 음악 관련 협회 및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

- 
- 업협회 등 음악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음원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
- 공공기관 및 방송사: 공공기관 및 방송사에서 제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음원 자료를 수집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음원 파일: 다양한 음질(무손실, 고음질, 일반 음질)의 음원 파일을 수집함. 음원 파일 형식은 MP3, FLAC, WAV 등 다양한 형식을 지원해야 함
- 앨범 정보: 앨범 커버 이미지, 앨범 소개, 트랙 리스트, 가사 등 앨범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함
- 아티스트 정보: 아티스트 사진, 프로필, 음악 활동 이력 등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수집함
- 뮤직비디오: 음원과 관련된 뮤직비디오를 수집함. 뮤직비디오는 음악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며, 음악의 이해를 돕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함
- 메타데이터: 제목,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발매일, 장르, 앨범 정보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B. 수집 방식

- 자체 수집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음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원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함
- API 연동: 음원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통해 음원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집함
- 납본 방식: 음반 제작 및 유통사, 음악 관련 협회 등에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최신 음원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기증 및 협력: 아티스트, 음반 제작사, 음원 플랫폼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음원 콘텐츠를 기증받거나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여 수집함
- 오프라인 수집: 앨범, LP, 카세트테이프 등 오프라인 음악 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화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음원의 수집 우선순위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 인기도, 희귀성 및 보존 가치, 다양성, 신진 아티스트, 저작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 음원, 특정 시대의 음악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음원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
- 인기도 및 영향력: 대중의 사랑을 받은 히트곡,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른 음원, 음악 시상식 수상곡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음원을 우선 수집함
- 희귀성 및 보존 가치: 절판된 앨범의 수록곡,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유통되었던 음원, 개인 창작자의 음원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음원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 음반사의 음원을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보존함
- 신진 아티스트의 음원: 미래의 음악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아티스트의 음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음악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음원을 우선 수집하여, 수집된 음원을 공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표 VI-9〉 음원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인기 음원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바이브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도(차트 순위, 조회수 등)가 높은 음원을 우선 수집
	음반 제작사 및 유통사에서 발매한 주요 음원	대형 음반사와 유통사에서 발매한 주요 음원들을 중심으로 수집
	공공기관 및 방송사에서 제작한 음원	공공기관, 방송사에서 제작한 공공음원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
	한국어 음원을 중심으로 수집	한국어 음원을 중심으로 국내 음악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우선 수집
2단계	인디 음악 레이블 및 비주류 음악	인디 음악 레이블과 비주류 음악 커뮤니티에서 제작된 음원을 발굴하여 수집
	다양한 장르와 시기를 반영한 음원	시대적 흐름과 다양한 장르를 반영하는 음원을 수집하여 음악적 다양성을 보존
	음악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음원 정보 및 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음원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3단계	개인 음악 창작자가 제작한 음원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창작되고 공유되는 독립적인 음원을 수집
	서비스 종료된 플랫폼에서 연재된 음원	현재 유통되지 않는 플랫폼에서 제공되었던 음원을 수집하여 희귀성을 보존
	뮤직비디오 및 음원 관련 부가 자료	음원과 관련된 뮤직비디오, 앨범 커버, 가사, 아티스트 정보 등 부가 자료를 함께 수집
	오프라인 음악 자료의 디지털화	LP, 카세트테이프, CD 등의 오프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음원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함

<p>음원 우선 수집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 음원, 특정 시대의 음악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음원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다.</li> <li>-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히트곡,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른 음원, 음악 시상식 수상곡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음원을 우선 수집한다.</li> <li>- 절판된 앨범의 수록곡,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유통되었던 음원, 개인 창작자의 음원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음원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li> <li>-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의 인기 음원은 물론,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 음반사의 음원을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보존한다.</li> <li>- 신진 아티스트의 음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음악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한다.</li> <li>-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음원을 우선 수집하여, 수집된 음원을 공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음원의 이용 및 접근은 저작권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플랫폼의 독점 계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li> <li>- 가사의 선정성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한 음원 및 청소년 보호정책이 우선된 음원을 우선 수집한다.</li> <li>- 원본에서 바로 추출된 무손실 위주의 고음질 파일 또는 비트 전송률이 높은 음원을 수집하되 원본에서 여러 번의 가공을 거친 파일은 제한적으로 수집한다.</li> <li>-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WAV, MP3 파일을 우선 수집한다.</li> </ul>
---

## 4) 영상

### ① 수집 일반 원칙

- 영상자료는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 등을 지칭함
- 문화적 가치: 영상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므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특정 장르, 제작자, 플랫폼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

기준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수집함

-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보장: 수집된 동영상은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디지털 장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영상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 투명성: 수집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함
- 저작권 준수: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동영상을 수집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함
- 지속성: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안을 통해 최신 자료를 유지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A. 민간기관

- 언론사: 주요 방송사(KBS, MBC, SBS 등) 및 신문사에서 제작한 뉴스,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수집함
- 출판사 및 교육기관: 교육 및 문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출판사 및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포함함
- 영화사 및 방송사: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화사 및 방송사 자료를 수집함
- 비영리 단체: 사회적 이슈,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영리 단체의 자료를 포함함

### B. 해외기관

- 해외 문화원: 한국 문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해외 문화원의 자료 수집함
- 한인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제작한 문화행사 기록 영상, 교육 동영상 등도 수집 대상에 포함함
- 외교 공관: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제작한 한국 관련 홍보 영상 수집함

### C. 기타

- 개인 창작자 및 MCN: 유튜브, 비메오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와 MCN

---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들이 제작한 한류 관련 동영상을 수집함

- 연구소 및 학회: 다양한 주제의 학술 연구 및 발표 동영상을 제작하는 연구소 및 학회의 자료를 포함함
- 기업: 기업 홍보 영상, 제품 설명 동영상 등 다양한 기업 콘텐츠 수집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교육 동영상: 온라인 강의, 학술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적 가치를 지닌 동영상
- 문화 행사: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행사 기록 영상
- 다큐멘터리: 사회,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포함
-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주요 뉴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 등 시사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
- 영상 파일: 다양한 해상도(4K, FHD, HD, SD) 및 코덱의 동영상 파일
- 영상 파일 형식은 MP4, AVI, MOV 등 다양한 형식을 지원함
- 메타데이터: 제목, 제작자, 출연자, 제작 연도, 장르, 내용 설명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자막 및 스크립트: 한국어 자막, 외국어 자막, 스크립트 등을 함께 수집하여 동영상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언어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관련 자료: 동영상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동영상 콘텐츠의 이해를 돕고 문화적 가치를 높임

#### B. 수집 방식

- 자체 수집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영상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함
- API 연동: 동영상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수집함
- 납본 방식: 방송사, 영화 제작사, OTT 서비스 제공자 등에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최신 동영상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기증 및 협력: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증받거나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여 수집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공개된 동영상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함
- 오프라인 수집: VHS, DVD, 블루레이 등 오프라인 영상자료도 수집하여 디지털 화합

#### ④ 수집 우선순위

-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한국 영화사, 방송사, 대중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영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 동영상,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
- 인기도 및 영향력: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조회 수가 높은 동영상,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동영상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동영상을 우선 수집함
- 희귀성 및 보존 가치: 절판된 영화,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유통되었던 동영상, 개인 창작자의 동영상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장르, 제작자, 플랫폼의 동영상을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동영상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존함
- 신진 창작자의 동영상: 미래의 영상 콘텐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창작자의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동영상을 우선 수집하여, 수집된 동영상을 공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표 VI-10〉 동영상 수집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1단계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큐멘터리, 한국 문화와 관련된 해외 동영상, 주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문화 행사 기록 영상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
	공공기관 및 방송사,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주요 동영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주요 방송사(KBS, MBC, SBS 등)에서 제작한 뉴스, 시사 프로그램, 학술 강의, 공공 도서관 영상 및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이러닝 영상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우선순위	수집 대상	설명
2단계	한류 콘텐츠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등 한류 관련 주제 키워드를 선정하여 관련 동영상을 수집함
	인디 영화 및 비영리 단체의 동영상	인디 영화 제작사, 비영리 단체에서 제작한 사회적 이슈,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 콘텐츠를 수집함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반영한 콘텐츠	다양한 장르(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와 형식(예: 4K, FHD)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수집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존함
3단계	개인 창작자 및 MCN 제작 콘텐츠	유튜브, 비메오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와 MCN 사업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수집함
	서비스 종료된 플랫폼에서 제공된 동영상	현재 유통되지 않는 플랫폼에서 제공되었던 동영상을 수집하여 희귀성과 보존 가치를 높임
	오프라인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VHS, DVD, 블루레이 등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영상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함

영상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한국 영화사, 방송사, 대중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영상,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다.
-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조회 수가 높은 영상,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영상 등은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한다.
- 국내 지상 공중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수상작을 중점 수집하며, 국내 유료방송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디지털매체(CD, DVD 등)로 입수되지 않은 방송 및 교육 관련 이러닝 자료로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 국내외 저명한 강사 출연 및 제작한 이러닝 자료로 빠른 전송·재생 속도 조절 및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료를 수집한다.
-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절판된 영화,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 서비스가 종료된 플랫폼에서 유통되었던 동영상, 개인 창작자의 영상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큰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소중한 디지털 유산을 보존한다.
-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체제에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 다양한 장르와 제작자의 콘텐츠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다양한 장르와 제작자의 작품을 포함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보존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창작을 장려한다.
- 신진 창작자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미래의 영상 콘텐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창작자의 혁신적인 영상을 수집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한다.
-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영상을 우선 수집한다. 저작권 확보가 가능한 영상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공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
- YouTube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수록된 영상의 경우, 소셜미디어 수집정책을 반영하여 수집한다.
- 영상 수집 시, 창작자 및 저작자와의 협의를 우선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MPEG4 파일을 우선 수집한다.

## 5) OTT

### ① 수집 일반 원칙

- 문화적 가치: OTT 콘텐츠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와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OTT 콘텐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함
- 법규 준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함. OTT 콘텐츠 수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 의무를 명확히 함. 국내법 적용을 고려하여 국내 OTT 플랫폼 콘텐츠를 우선 수집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특정 장르, 제작사, 플랫폼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OTT 콘텐츠를 선정하여 수집함
-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보장: 수집된 OTT 콘텐츠는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디지털 장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OTT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 투명성: 수집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함
- 다양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OTT 콘텐츠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함
- 지속성: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안을 통해 최신 자료를 유지함
- 적시성: 최신 콘텐츠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함
- 보존성: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고품질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보존함

### ②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 A. OTT 플랫폼

- Netflix 코리아,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시즌 등 국내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우선 수집함
- 디즈니+,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해외 OTT 서비스 중 국내에서 서비스되거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콘텐츠를 수집함
- 전문 OTT 서비스: 특정 장르에 특화된 OTT 서비스(예: 예술, 다큐멘터리, 교육

---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수집함

- FAST 기반 서비스: OTT 이외에 스마트TV에서 광고 기반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영상 서비스 방식인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를 통해 유동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수집함

#### B. 제작사 및 유통사

- 국내의 주요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 독립 프로덕션 등에서 제작된 OTT 콘텐츠를 수집함
-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국외 제작사 및 유통사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수집함

#### C. 기타

- 독립 제작사 및 배급사: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독립 제작사 및 배급사의 콘텐츠를 수집함
- 웹 드라마 및 웹 예능 제작사: 웹 드라마, 웹 예능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웹 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를 수집함
- 비영리 단체 및 개인 창작자: 사회적 이슈,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영리 단체 및 개인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수집함

### ③ 수집 콘텐츠 유형 및 수집 방식

#### A. 수집 콘텐츠 유형

-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 국내외 드라마, 웹 드라마 등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를 수집함
- 영화: 오리지널 영화, 국내외 영화, 독립 영화 등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수집함
- 예능: 오리지널 예능, 국내외 예능, 웹 예능 등 다양한 예능 콘텐츠를 수집함
- 다큐멘터리: 사회, 문화,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수집함
- 애니메이션: 국내외 애니메이션, 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수집함
- 웹툰 및 웹소설: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를 수집함

-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OST, 팟캐스트 등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수집함
- 기타 멀티미디어 콘텐츠: AR/VR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함
- 메타데이터: 제목, 제작자, 출연자, 제작 연도, 장르, 내용 설명, 등급 정보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자막 및 번역본: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자막 및 번역본을 함께 수집하여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임
- 관련 자료: OTT 콘텐츠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 포스터, 예고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콘텐츠의 이해를 돕고 문화적 가치를 높임

#### B. 수집 방식

- API 연동: OTT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콘텐츠 메타데이터 및 파일을 안정적으로 수집함
- 웹 크롤링: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공개된 OTT 콘텐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함. 주로 메타데이터 수집에 사용됨
- 납본 방식: OTT 서비스 제공자 및 제작사에 법적 납본 의무를 부과하여, 최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기증 및 협력: OTT 제작사 및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기증받거나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여 수집함
- 파일 다운로드: 기술적인 제약으로 API 연동이나 납본이 어려운 경우,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우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함
- 오프라인 자료 디지털화: DVD, 블루레이 등 오프라인 매체로 보존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수집함

#### ④ 수집 우선순위

-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한국 영화사, 드라마사, 대중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OTT 콘텐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 콘텐츠,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콘텐츠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함

- 인기도 및 영향력: 시청률 또는 조회 수가 높은 인기 콘텐츠, 수상 경력이 있는 콘텐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콘텐츠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OTT 콘텐츠를 우선 수집함
- 희귀성 및 보존 가치: 서비스 종료 예정 콘텐츠, 단기간 공개 후 삭제되는 콘텐츠, 독립 제작사의 콘텐츠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OTT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 다양성: 다양한 장르, 제작자, 플랫폼의 콘텐츠를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존함
- 오리지널 콘텐츠: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독점 제공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플랫폼 간 차별성을 반영함
- 신진 창작자의 콘텐츠: 미래의 콘텐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창작자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 수집함

〈표 VI-11〉 OTT 수집대상 우선순위

우선순위	수집대상	설명
1단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한국 영화사, 드라마사, 대중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OTT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 콘텐츠,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콘텐츠도 포함함
	주요 플랫폼에서 시청률 및 영향력이 높은 콘텐츠	주요 국내 OTT 플랫폼(티빙, 네이버TV, 티빙 등)에서 시청률 또는 조회 수가 높은 인기 콘텐츠, 수상 경력이 있는 콘텐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콘텐츠 등 인기도 및 영향력이 큰 OTT 콘텐츠를 우선 수집함
	희귀성 및 보존 가치	서비스 종료 예정 콘텐츠, 단기간 공개 후 삭제되는 콘텐츠, 독립 제작사의 콘텐츠 등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OTT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함
2단계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다양한 장르, 제작자, 플랫폼의 콘텐츠를 균형 있게 수집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존함
	오리지널 콘텐츠	국내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독점 제공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플랫폼 간 차별성을 반영함
	신진 창작자의 콘텐츠	미래의 콘텐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진 창작자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창작물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함
3단계	저작권 확보 가능성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 수집하여, 수집 및 보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함
	독립 제작사 및 비영리 단체 콘텐츠	독립 제작사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수집하여, 주류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시각과 다양한 주제를 포착함
	웹 드라마 및 웹 예능 콘텐츠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웹 드라마 및 웹 예능 콘텐츠를 수집하여,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와 소비 패턴을 반영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OTT 우선 수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함

OTT 우선 수집대상(납본 외 수집)

-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OTT 콘텐츠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와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므로, 그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한다.
- 특정 장르나 제작사, 플랫폼에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OTT 콘텐츠를 선정하여 수집한다.
- 수집된 OTT 콘텐츠는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장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 수집 과정과 기준은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을 통해 최신 자료를 유지한다.
-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OTT 콘텐츠를 수집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영화사, 드라마사, 대중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우선 수집한다.
- 시청률 또는 조회 수가 높거나 수상 경력이 있는 인기 콘텐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콘텐츠, 희귀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콘텐츠를 균형 있게 확보한다.
-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신진 창작자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한국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작물 발굴 및 보존에 기여한다.
- 저작권 확보가 용이한 콘텐츠를 우선 수집하고, 디지털 장서 관리와 연계된 API 연동, 웹 크롤링, 기증 및 협력 방식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을 진행한다.

### 3. 능동적 납본 및 자체 수집 전략

앞선 2장에서는 공공 및 민간영역별로 수집 일반원칙, 수집 대상 기관의 범위, 수집 방식, 수집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본 절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능동적 납본 수집과 자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수집이 가능한 기관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 3.1 능동적 납본 전략

##### 1) 최근 3년(2020~2022)간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중 미납본 전자출판물

- 최근 3년간 ISBN을 발급받은 전체 발행기관은 6,534개 기관이었으며, 이들이 발급 받은 ISBN 건수는 513,136건이었음
- 발급된 ISBN 발급 건수 중 약 36%는 상위 20개 발행기관에서 발급되었으며, 발급 받은 ISBN의 총 건수는 182,808건임
-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은 대표적인 온라인 K-콘텐츠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임
- 따라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관점에서 최근 3년간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 중 미납본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능동적 납본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최근 3년간 ISBN 발급 상위 20개 기관 중에서 납본율이 50% 미만인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59,922건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능동적 납본 수집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해당 기관 리스트는 별도로 제시함)

## 2)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공공간행물팀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 24,692개 기관(2024년 10월 기준)으로부터 공공간행물을 자체수집하고 있음
  - 정부기관(614개 기관)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법원,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의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수집함(〈표 VI-12〉 참조)

〈표 VI-12〉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발간기관(정부기관)

연번	정부기관	소속기관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천해사고등학교, 지역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방해양수산청 등
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지방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가정법원, 지방행정법원, 지방회생법원, 지방가정법원 등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지역병원, 국립재활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마향의동산관리원, 건강보험조정위원회 사무국, 국립지역병원 등
4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수도권기상청,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처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항공교통본부, 철도특별사업경찰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등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지역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지역광산안전사무소 등
8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지역환경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홍수통제소 등
10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역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1	국회	국회
1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등
13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1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연번	정부기관	소속기관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중앙극장 등
16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등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1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등
19	경찰청	지방경찰청 등
20	조달청	
20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등
20	육군사관학교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1,238개 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소속기관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건수가 많지 않음(〈표 VI-13〉 참조)

〈표 VI-13〉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 발행기관(지방자치단체)

연번	기관명	부서명(소속기관)
1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대학교, 119특수구조단, 서울공예박물관,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2	부산광역시	총렬사관리사무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낙동강관리본부, 건설본부, 부산현대미술관

- 준정부기업(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시장형)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교통안전공단,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 교육부소속 충남대학교병원 등 기관을 통해 수집을 진행하고 있음(〈표 VI-14〉 참조)

〈표 VI-14〉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수집 공공간행물 주요 발행기관(공공기관)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주무부처
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국립생태원	환경부
3	기타공공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4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6	기타공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7	공기업(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8	공기업(준시장형)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9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1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주무부처
11	기타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1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14	기타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15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16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1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1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19	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20	기타공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간행물팀을 통한 공공간행물 자체수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기관(614개 기관)을 우선적 수집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1,238개 기관), 공공기관(372개 기관)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수집 대상은 현재 상위 수집 기관도 수집 건수가 많지 않아 공공기관은 해양수산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상위 수집 건수 기관을 일차적으로 수집 대상으로 함. 추후 공공기관 발간 디렉토리 중 수집 이력이 없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수집함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수집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많은 수집이력이 없어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전체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여 수집을 진행함
  - 웹툰, 웹소설 등 문자자료 형태와 함께 음향·음향 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등을 수집함

### 3) 공공누리 참여 기관

- 공공누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임. 공공누리에 포함된 콘텐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된 자료들로, 법률, 정책 보고서, 연구자료,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음
- 공공누리 콘텐츠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K-콘텐츠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통합적인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공공누리 참여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이 있음
- 공공누리 참여기관의 경우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3D, 어문자료를 중심으로 DB화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현재 27,771,590건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누리 참여 기관 유형별 연계저작물 건수가 높은 참여기관을 우선적인 수집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은 약 1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집대상 기관은 연계저작물 건수 상위 기관인,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등임(<표 VI-15> 참조)

〈표 VI-15〉 공공누리 참여기관(국가기관)

국가기관(상위 20개 기관)		
연번	기관명	건수
1	문화재청	629,371
2	국립중앙박물관	604,269
3	문화체육관광부	586,559
4	산림청	228,540
5	국립민속박물관	127,349
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2,365
7	국립국어원	79,192
8	교육부	62,398
9	국회	59,852
10	국립무형유산원	53,239
11	기상청	49,728
12	특허청	43,896
13	국립문화재연구원	40,966
14	특허청 서울사무소	40,003
15	농림수산물식품부	38,184
16	행정자치부(프리즘)	33,527
17	국립수산과학원	26,355
18	보건복지부	17,984
19	산업통상자원부	17,983
20	기획재정부	16,868

- 지방자치단체는 약 25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저작물 건수 상위 20개 기관을 보면, 서울특별시 가장 많은 저작물을 연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사천시, 경기도 순으로 저작물을 공유함(<표 VI-16> 참조)

〈표 VI-16〉 공공누리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상위 20개 기관)		
연번	기관명	건수
1	서울특별시	1,129,298
2	충청북도	684,195
3	사천시	635,026
4	경기도	544,333
5	남원시	524,046
6	논산시	495,657
7	춘천시	456,525
8	세종특별자치시	431,313
9	예산군	409,690
10	천안시	408,806
11	대전광역시	387,966
12	경상남도	359,916
13	부산광역시 서구	289,934
14	남양주시	273,291
15	충청남도	225,810
16	구로구	224,987
17	부천시	219,510
18	서산시	217,396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5,132
20	고창군	170,510

- 공공기관은 총 1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저작물 건수 상위 20개 기관을 보면,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가장 많은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순으로 저작물의 공유도가 높음 (〈표 VI-17〉 참조)

〈표 VI-17〉 공공누리 참여기관(공공기관)

공공기관(상위 20개 기관)		
연번	기관명	건수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06,695
2	국제방송교류재단	396,869
3	한국저작권위원회	321,900
4	한국문화정보원	217,876
5	한국학중앙연구원	92,516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9,430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8,113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4,192

공공기관(상위 20개 기관)		
연번	기관명	건수
9	한국콘텐츠진흥원	32,765
1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2,758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88
12	통일연구원	14,237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945
14	한국관광공사	12,890
15	공공기관	10,199
16	대한체육회	9,979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178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391
19	국민체육진흥공단	6,203
20	한국국제협력단	6,138

- 기타기관은 총 21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저작물 건수 상위 10개 기관을 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 경기문화재단,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등의 연계 공공 저작물 건수가 많았음(〈표 VI-18〉 참조)

〈표 VI-18〉 공공누리 참여기관(기타기관)

기타기관		
연번	기관명	건수
1	서울시설관리공단	34,781
2	경기문화재단	7,758
3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5,649
4	국민생활체육회	4,527
5	한국국학진흥원	4,497
6	충남문화산업진흥원	4,011
7	인천관광공사	1,287
8	인구보건복지협회	889
9	한국스포츠개발원	496
10	제주관광공사	377

#### 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저작물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유산 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능동적 납본 수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 관리기관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협업 대상 기관은 수집가능건수가 많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박물관 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 아카이브 등 문화유산 보유 기관임

〈표 VI-19〉 협업대상 문화유산 관리기관 및 보유현황

기관명	기관아카이브명	수집가능건수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아카이브	2,576,960개	361개 기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아카이브	1,023,914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952,973건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480,000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196,864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101,211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82,570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아카이브	-	

- 공공 웹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 기관들로부터 웹진을 수집하고 있음(〈표 VI-20〉 참조).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양질의 공공 웹진이 수집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관으로부터의 공공 웹진 수집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 간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웹진 우선 수집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대한체육회, 국립중앙극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현재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추가적인 수집건수가 (재)예술의전당, 한국영상자료원 등으로 확대하여 수집함. 이와 함께 문화재청 소속 기관, 관련 기관 순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함
- 다만, 각각의 기관마다 사명과 역할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표 VI-20〉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 웹진 수집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연번	주관부처	기관명
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2	관련 기관	한국문화연합회 (지역문화, 한국문화번역원, 해외문화홍보원, 문화포털의 웹진)

연번	주관부처	기관명
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춘천박물관
11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1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19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의전당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협력을 통해 수집하는 공공기관 웹툰의 경우에는 총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웹툰을 수집하고 있음(<표 VI-21> 참조).
- 공공기관 웹툰은 EBS MATH가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음
  - 수집 대상의 공공기관 웹툰의 상당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웹툰으로 교육관련 주제 수집을 우선으로 하고, 지속성을 고려하여 EBS 등 다수 자료 제공기관을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헬로디디, 독도연구소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함

〈표 VI-21〉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기관 웹툰 수집처

연번	기관
1	EBS MATH
2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3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4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학교
5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6	해양수산부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8	독도연구소
9	헬로디디(이전: 대덕넷)

## 5) 요약

- 국립중앙도서관이 능동적 납본 전략을 위한 수집 대상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ISBN 미납본 기관) ISBN 발급건수는 많으나 납본율이 적은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을 진행함
  - (공공간행물 주요발간기관) 공공간행물의 경우 반드시 납본되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집량 자체가 많지 않음. 따라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발간되는 공공간행물은 반드시 수집하여야 함. 수집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순으로하고, 기관 중에서는 기존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추후 디렉토리에 포함된 미제공 기관을 추가적으로 수집을 진행함
  - (공공누리) 공공누리에 업로드 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많지 않아 상위 제공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문체부 산하 기관) 문체부 산하 기관의 경우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기관 아카이브의 경우 이미 다량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할 부분의 중복을 고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웹툰은 현재 교육 중심으로 웹툰이 주로 수집되고 있어 현재 수집하고 있는 EBS 등 공공기관의 웹툰을 지속성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향후 공공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수집을 추진함

〈표 VI-22〉 능동적 납본 전략을 위한 수집 대상 기관

구분		기관				
ISBN 미납본 기관		ISBN 발급건수는 많으나 납본율이 미흡한 기관 (해당 기관 리스트는 별도로 제시함)				
공공 간행물 주요발간기관	정부기관	해양수산부	대법원	보건복지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역시 전체	-	-
	공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생태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누리 참여기관	국가기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사천시	경기도	남원시
	공공기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체부 산하 기관	기타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경기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국민생활체육회	한국국학진흥원
	기관아카이브	박물관 아카이브	민속 아카이브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국악 아카이브	공연예술디지털 아카이브
	웹진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원학회	국립중앙극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공공기관	웹툰	EBS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학교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

## 3.2 자체수집 전략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자료의 수집)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음. 수집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ISBN을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제도 시행(2016년 8월) 이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 ISBN 미부여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 ISBN 미부여 온라인 자료 중에서 UCI 식별자를 발급받아 유통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 시행 전에 ISBN가 발급된 콘텐츠와 UCI가 발급된 콘텐츠에 대한 자체 수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K-콘텐츠 관점에서 한국 콘텐츠 산업별 상장사도 자체 수집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ISB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중 납본제도 시행 이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 ISBN을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중 납본제도 시행(2016년 8월) 이전 국내에서 제작·발행된 자료에 대해서 발행기관은 납본 의무가 있지 않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8월 이전 제작·발행된 자료 자료에 대하여는 자체수집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4~2016년<sup>13)</sup>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제작·발행된 전자출판물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수집된 자료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기관을 선별하였음
- 2014~2016년 동안 제작·발행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ISBN을 발급 받은 발행기관은 172개 기관이며 미수집 건수는 총 4,513건임. 이중 상위 20개 기관의 미수집 건수가 3,875건임
  - 상위 20개 발급기관 중 미수집된 건수가 가장 많은 발행기관은 케이터블윅북스이며, 한국학술정보, 넥스큐브,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순으로 나타남

---

13) 온라인자료 의무납본 시행은 2016년 8월 이후 자료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간 자료 기준으로 시행 전 3년을 2014년~2016년으로 산정한 통계를 제시함

- 미수집 건수의 86%가 상위 20개 발급기관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상위 20개 발급기관에 대해 우선수집이 필요함

## 2) UCI 등록관리기관(RA)

- 온라인 자료의 경우 ISBN와 별도로 UCI가 식별자로 발급되고 있음. UCI 차세대 콘텐츠 유통인프라 홈페이지<sup>14)</sup>에 따르면, 2024년 8월 현재 462,316,460건의 UCI가 발급되었음
  - UCI는 소설, 음악·음반, 사진, 영화, 방송, 미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콘텐츠에 발급되며, 현재 공공기관 256,577,757건, 민간기관 205,738,703건이 발급되었음
- UCI 등록관리기관(RA)은 공공기관 15개관, 민간기관 17개관 등 총 32개 기관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함(〈표 VI-23〉 참조)
  - 공공기관의 경우 총 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원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립예술포럼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원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함
  - 민간기관의 경우 총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직접 원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관 중 대부분은 로그인 혹은 원문구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2024년 8월 기준,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19개 UCI 등록관리기관과 협력을 추진하여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 UCI 등록관리기관은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기관들과 연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민간 UCI 등록관리기관의 대부분은 원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보유한 원문도 로그인 혹은 유료로 서비스가 가능함. 따라서 민간 UCI 등록관리기관과는 기관간 협약을 통하여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자체수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원문보유 형태의 경우 공공 UCI 등록관리기관과 민간 UCI 등록관리기관 기관에 차이를 보임. 공공 UCI 등록관리기관은 자체적으로 원문 전체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관 소속 하위 기관이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반면, 민간 UCI 등록관리기관은 대부분 원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이용권 등 결제, 로그인, 일부 무료제공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원문을 보유하고 있음

14) UCI 차세대 콘텐츠 유통인프라 홈페이지 <https://www.uci.or.kr>

〈표 VI-23〉 UCI 등록관리기관(RA)별 콘텐츠 유형, 원문유무, 등록건수

구분	기관명	콘텐츠 유형	원문유무	등록건수
공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뉴스 콘텐츠	원문 보유 (1990년대 이전 신문 원문 일부보유)	66,088,91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물	원문 보유	105,435,54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산업재산권 분야 콘텐츠	원문 미보유	3,864,15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학위 논문 콘텐츠	원문 보유 (학위논문원문)	149,598
	한국문화정보원	문화 정보	원문 보유 (모바일큐아이, 문화공공데이터광장,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문화포털, 5G기반실감형전시플랫폼)	10,034,709
	국회사무처	입법 콘텐츠	원문 보유	562,934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유산콘텐츠	원문 보유 (국가유산채널)	40,480
	국회도서관	인터넷 정보	원문 보유	11,562,780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 분야 작품 콘텐츠	원문 미보유	31,17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디지털콘텐츠	원문 보유	9,432,539
	국립예술자료원	예술정보콘텐츠	원문 보유 (아르코예술기록원-관내열람)	119,55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정홍보콘텐츠	원문 보유	10,903
	한국연구재단	국내 학술지 콘텐츠	원문 보유	1,958,13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정보	원문 보유	1,069,29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제품정보	원문 보유	73,249
민간기관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 콘텐츠	원문 미보유	78,215,763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보도사진 콘텐츠	원문 미보유	7,395,192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	원문 미보유	5,452,480
	미디어스코프(주)	음악, 연극, 오페라	원문 미보유	405,138
	대원방송 (대원미디어)	애니메이션 분야 콘텐츠	원문 미보유	22,856
	아사달	디자인 이미지	원문 보유 (결제 필요)	1,927,052
	㈜네오그래프	시각과 그래픽아트, 예술	원문 미보유	4,251
	(주)위즈데이터	사진	원문 미보유	1,691,202
	천재교육	교육·출판 디지털교과서	원문 보유 (로그인 필요)	134,899
	콘텐츠스퀘어	지역방송 콘텐츠	원문 미보유	7,474
	이매진스	이미지 분야 콘텐츠	원문 보유 (일부 무료)	1,992,710
	첨단 (주)첨단	잡지	원문 미보유	1,012,367
	다올소프트 (daolsoft)	스마트 앱	원문 미보유	7,352
	SBS콘텐츠허브	방송콘텐츠	원문 보유 (이용권)	2,402,740
	디지털조선일보	뉴스 콘텐츠	원문 보유	2,072,763
	에스케이텔레콤(주)	영화, TV, 인물 콘텐츠	원문 미보유	457,776
	오지큐마켓	이미지 콘텐츠	원문 보유 (결제 필요)	6,982,236
	총계			341,005,232

### 3) 콘텐츠 산업별 상장사

- 콘텐츠 산업별 상장사 선정에 있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장사를 통해 출판 유통되는 콘텐츠의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영역을 설정하고 상위 상장사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수집함
  - 온라인 K-콘텐츠의 관점에서 문자자료 보다는 온라인음악, 동영상,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수집함
- 공공 보존의 가치 강조를 통한 납본 제도 연계
  - 상장사의 콘텐츠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장기적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상장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공 보존의 차원에서 납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함
  - 특히, 납본 제도의 활용으로 주요 콘텐츠의 장기 보존을 보장하고, 향후 연구자 및 국민에게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득함. 다만, 이러한 납본 제도 적용 시 상장사의 콘텐츠가 저작권과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접근 제한 및 사용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자발적 기증 및 협약 체결 방식
  - 국립중앙도서관은 콘텐츠 제작사와 자발적 기증 및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콘텐츠 수집을 추진할 수 있음
  - 상장사는 보유한 콘텐츠가 도서관에 납본될 경우, 문화적 가치 보존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장사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도 활용 가능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발적 기증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과 함께, 기업이 기증할 경우 홍보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접근 제한 조건을 수립하여 상장사의 콘텐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
-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2023년 실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시장은 2018년 1,196억원에서 2022년 1,510억으로 급격하게 상승함
  - 특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분야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매우 높아 관

런 상장사들의 콘텐츠가 온라인 K-콘텐츠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

〈표 VI-24〉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2018~2022)

(단위: 백만 원, %)

문화산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율	증감률
출판	20,953,772	21,341,176	21,648,849	24,697,753	25,191,702	16.7	2.0
방송	19,762,210	20,843,012	21,964,722	23,970,709	26,104,717	17.3	8.9
광고	17,211,863	18,133,845	17,421,750	18,921,883	19,666,138	13.0	3.9
지식정보	16,290,992	17,669,282	19,373,367	19,946,243	21,493,067	14.2	7.8
게임	14,290,224	15,575,034	18,885,484	20,991,342	22,214,886	14.7	5.8
캐릭터	12,207,043	12,566,885	12,218,076	5,003,908	5,372,788	3.6	7.4
음악	6,097,913	6,811,818	6,064,748	9,371,728	11,009,624	7.3	17.5
영화	5,889,832	6,432,393	2,987,075	3,246,109	7,369,200	4.9	127.0
콘텐츠솔루션	5,094,916	5,360,990	5,635,230	8,470,614	9,110,097	6.0	7.5
만화	1,178,613	1,337,248	1,534,444	2,132,149	2,624,004	1.7	23.1
애니메이션	629,257	640,580	563,290	755,520	921,022	0.6	21.9
합계	119,606,635	126,712,264	128,287,034	137,507,958	151,077,245	100.0	7.2

주: 2018~2019년 기준 광고 조사는 정부광고대행기관(이리랑TV, 언론진흥재단)의 수치를 포함하였기에 이 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불가능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3년 하반기)

-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는 2024년 1분기에 163개로 2023년 상반기 대비 3개 업체가 증가함

〈표 VI-25〉 콘텐츠산업별 상장사 현황(2024년 3월 31일 기준)

(단위: 개)

산업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분기	
전체	153	159	166	163	△3
출판	11	12	12	13	1
만화	3	5	6	6	-
음악	11	12	13	13	-
게임	40	40	40	38	△2
영화	14	12	11	11	-
애니메이션/캐릭터	5	9	9	9	-
방송	27	28	29	28	△1
광고	15	15	18	18	-
지식정보	18	17	19	18	△1
콘텐츠솔루션	9	9	9	9	-

출처: 2024년 분기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1분기 최종보고서



- 출판산업의 경우 상장사 시가총액을 보면, 학습지 및 생활 잡지류 출판을 담당하는 웅진씽크빅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으며, 대교,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순으로 나타남
- 시가총액이 높은 상장사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유형 확대 관점에서 온라인 자료 유형을 우선적으로 출판·유통하고 있는 상장사를 선정함

〈표 VI-26〉 출판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1	웅진씽크빅	270,284	학습지 및 생활 잡지류 출판
2	대교	196,300	교육 출판 및 학원 사업, 전집 및 도서출판
3	삼성출판사	192,086	유아용 서적 출판 및 미술교재 출판
4	밀리의서재	162,397	전자책, 오디오북 등 독서 플랫폼
5	에스24	116,185	온라인 출판, 유통
6	디앤씨미디어	87,528	웹툰 콘텐츠 출판 및 유통
7	NE능률	72,985	영어 학습 교재 전문출판, 학원 사업
8	메가스터디	62,579	온라인 입시준비 교육 서비스, 교육 출판
9	미스터블루	59,040	만화, 웹툰 전문 플랫폼 운영
10	비상교육	38,974	중고등부 학습 교재 출판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만화(웹툰)산업의 경우,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네이버, 디앤씨미디어, 키다리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순으로 나타남
- 만화(웹툰)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핵심 수집대상으로 삼고 있어 관련 상장사와의 협력을 통한 수집이 필요함

〈표 VI-27〉 만화(웹툰)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NAVER	4,730,565	포털 네이버 운영 온라인 콘텐츠 유통	1588-3830
2	디앤씨미디어	196,084	웹툰 콘텐츠 출판 및 유통	02-333-2513
3	키다리스튜디오	151,378	웹툰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제공	02-6320-8500
4	미스터블루	104,106	만화 웹툰 전문 플랫폼 운영	02-337-0610
5	와이랩	94,799	웹툰 IP 연계 웹툰 제작사	02-322-4222
6	대원미디어	23,429	애니메이션 제작 및 판매, 캐릭터 라이선싱	02-6373-300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음악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하이브, JYP, SM, YG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나타났음
  - 음악산업 상위 상장사와의 협약을 통한 자체수집을 진행하되 신탁관리단체 혹은 대행업체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VI-28〉 음악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하이브	9,579,98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02-3334-0105
2	JYP Ent.	2,561,893	음반 기획 및 제작 매니지먼트	02-2225-8100
3	SM	1,901,587	음반 기획 및 제작 매니지먼트	02-6240-9800
4	YG엔터테인먼트	880,333	음반 기획 및 제작 매니지먼트	02-3142-1104
5	YG PLUS	258,234	음원 및 음반 투자 유통 플랫폼 운영 대행 등	02-3140-4600
6	큐브엔터	223,222	연예 매니지먼트 음반 및 공연 제작	02-3445-1045
7	CJ ENM	198,383	케이블 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	02-2107-0114
8	지니뮤직	114,449	온라인 음원 서비스	02-3282-2600
9	NHN벅스	71,617	음원 유통 온라인 음원 서비스	031-8038-2947
10	에프엔씨엔터	64,230	음반 기획 및 제작 매니지먼트	02-517-5426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게임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시가총액 순은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순으로 나타남
  - 게임산업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의 요구로 인해 수집에 있어 후순위로 진행함

〈표 VI-29〉 게임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크래프톤	11,946,030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유통	02-6250-0807
2	넷마블	4,823,752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퍼블리싱	02-2271-7114
3	엔씨소프트	4,364,460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유통, MMORPG 강점	02-2186-3300
4	위메이드	1,938,795	온라인게임 개발 대표작 창천온라인	02-3709-2000
5	펄어비스	1,910,910	MMORPG 장르의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개발	02-476-8583
6	카카오게임즈	1,375,508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66-8834
7	넥슨게임즈	897,296	RPG 장르의 모바일게임 개발	02-750-5644
8	더블유게임즈	888,856	소셜 및 모바일 등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	02-501-7216
9	웹젠	576,690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유통 대표작 무온라인	031-627-6600
10	데브시스터즈	545,196	모바일게임 제작 및 서비스	02-2148-075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영화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CJ CGV, 위지웍스튜디오, 쇼박스 순으로 나타남
  - 영화의 경우 저작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OTT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에 있어 대행업체를 통한 상장사 중심으로 자료 수집도 고려가 필요함

〈표 VI-30〉 영화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CJ CGV	678,273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	02-371-6660
2	위지웍스튜디오	425,056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02-749-0507
3	쇼박스	231,206	영화 투자 및 배급사	02-3218-5500
4	덱스터	197,703	VFX 및 DI 제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02-6391-7000
5	포바이포	101,304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	02-838-4416
6	콘텐츠리중앙	90,250	드라마 제작 케이블 방송	02-3015-0555
7	NEW	70,402	영화 제작투자 및 배급	02-3490-9300
8	CJ ENM	63,609	케이블 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	02-2107-0114
9	바른손이앤에이	34,116	방송콘텐츠 제작	070-7609-1429
10	버킷스튜디오	13,606	음반 유통 DVD 유통 영상 콘텐츠 서비스	02-3452-5079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스튜디오미르, 애니플러스, SAMG엔터 순으로 시가총액이 높았음

〈표 VI-31〉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상장사

종목 코드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스튜디오미르	184,849	애니메이션제작 및 기획	02-862-0571
2	애니플러스	160,917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상품화 사업 등	070-7162-3715
3	SAMG엔터	124,654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즈 사업	02-535-6773
4	손오공	104,415	애니메이션 유통 및 제작 캐릭터 완구	02-2610-8750
5	오로라	70,633	봉제 완구 캐릭터 디자인 및 판매	02-3420-4114
6	블리츠웨이	56,523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	02-512-7692
7	대원미디어	35,506	캐릭터 라이선싱	02-6373-3000
8	대원미디어	12,029	애니메이션 제작 및 판매	02-6373-3000
9	데브시스템즈	11,951	모바일게임 제작 및 서비스	02-2148-075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방송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아프리카TV 등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음

〈표 VI-32〉 방송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CJ ENM	1,558,128	케이블 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	02-2107-0114
2	스튜디오드래곤	1,388,703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배급	02-371-7076
3	아프리카TV	1,337,772	인터넷 방송 클라우드서비스	031-622-8380
4	현대홈쇼핑	612,000	TV 및 온라인 홈쇼핑	02-2143-2000
5	SBS	482,332	지상파 방송사업 광고	02-2061-0006
6	LG헬로비전	270,677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02-1855-1000
7	스카이라이프	267,079	위성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	02-2003-3000
8	씨씨에스	220,882	케이블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043-850-7104
9	GS리테일	208,982	TV 및 온라인 홈쇼핑	02-2005-1114
10	콘텐츠리중앙	133,752	드라마 제작 케이블 방송	02-3015-0555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광고산업의 경우, 상장사는 제일기획, 이노션, 나스미디어 순으로 시가총액이 높았음

〈표 VI-33〉 광고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제일기획	2,160,474	광고 기획 및 제작 프로모션 대행	02-3780-2114
2	이노션	864,000	광고 기획 및 제작 전문	02-2016-2300
3	나스미디어	231,132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IPTV광고	02-2188-7300
4	인크로스	127,918	디지털광고 미디어렙 동영상 광고 플랫폼 운영	02-3475-2800
5	HS애드	105,369	광고 제작 및 전문 대행	02-705-2173
6	오리콤	93,525	종합 광고 대행	02-510-4077
7	플레이디	83,889	디지털 광고 대행	031-796-6964
8	FSN	80,799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02-541-3126
9	이엠넷	77,077	검색광고 배너광고 모바일 광고 해외 광고	02-2277-8877
10	에코마케팅	76,558	캠페인 기획 광고물 제작 등 온라인 광고 대행	02-2182-110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지식정보의 경우, 상장사 시가총액은 NAVER, 카카오, 메가스터디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자료유형을 중심으로 출판, 유통하고 있는 상장사를 추진함

〈표 VI-34〉 지식정보산업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NAVER	25,057,860	포털 네이버 운영 온라인 콘텐츠 유통	1588-3830
2	카카오	11,478,709	포털 다음 및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	02-6718-1082
3	메가스터디교육	645,110	중고등 부분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02-3489-8200
4	골프존	487,824	스크린골프 제품 판매 및 서비스	1577-4333
5	솔트룩스	285,614	B2B 및 B2G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 등	02-2193-1600
6	케이티알파	269,606	온라인 콘텐츠 유통	02-1588-5668
7	멀티캠퍼스	216,031	온라인 교육 서비스 외국어 평가	02-6262-9118
8	크레버스	212,024	학원 및 스마트러닝 콘텐츠 사업	02-3429-9407
9	레뷰코퍼레이션	125,265	인플루언서 및 기업 간 매칭 플랫폼	02-1544-9851
10	디지털대성	96,746	온라인 사업 학원사업 교육프랜차이즈	02-2104-860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콘텐츠솔루션의 경우, 상장사는 NHN, 코난테크놀로지, 와이드플래닛 순으로 시가총액이 높음

〈표 VI-35〉 콘텐츠솔루션 상장사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 (백만원)	주요 사업	연락처(대표번호)
1	NHN	397,892	PG 및 VAN 서비스 간편결제 사업	1544-6859
2	코난테크놀로지	316,381	자연어처리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기반 비즈니스	1533-1614
3	와이드플래닛	189,135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02-2038-3266
4	자이언트스텝	153,650	광고VFX 영상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02-6952-4720
5	엔비티	112,043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070-8895-9156
6	알체라	90,081	인공지능 영상인식 분야 토탈 솔루션 기술 제공	031-697-8962
7	디지캡	47,504	방송서비스 솔루션 N-스크린 솔루션	02-3477-2101
8	비플라이소프트	44,810	미디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서비스 제공	02-3487-0215
9	이루온	26,658	통합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	070-4489-1000

출처: KRX, 시가총액 순위 정보(2024년 3월 31일 기준)

#### 4) 신탁관리단체

- 전문가 대상 FGI 진행시 타 기관과의 협력 성공사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원권 리정보통합 DB 운영 모델을 들 수 있음. 이용자 및 권리자는 수집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선정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탁관리단체 및 개별 제작자 또는 유통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승인받은 후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K-콘텐츠 자료의 수집에 있어 저작권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을 고려하여 신탁관리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K-콘텐츠를 수집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국내 12개 신탁관리단체 운영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100,311,308 건이며, 전체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에 대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영이용 승인은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원본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님.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원문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탁과 함께 해당 발행처가 신탁 시 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VI-36〉 신탁관리단체 운영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단위: 건)

저작(인접)물 분야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음악	신규	572,119	763,637	3,031,612	1,166,007
	전체	10,734,021	7,729,492	10,619,010	11,782,555
어문	신규	544,387	3,423,304	5,714,027	379,682
	전체	36,355,538	42,315,305	47,315,119	47,527,814
영화	신규	0	52	0	0
	전체	3	55	55	55
방송	신규	5,335	5,625	1,525	4,198
	전체	5,335	5,625	4,245	4,198
뉴스	신규	2,666,680	2,568,785	2,498,316	7,772,323
	전체	33,157,246	35,726,031	38,224,347	45,996,670
공공	신규	0	2	0	0
	전체	119	103	82	18
총계	신규	3,788,521	6,761,405	11,245,480	9,322,210
	전체	80,252,262	85,776,611	96,162,858	100,311,308

- 신탁관리단체 운영 분야별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음악 분야) 음악 분야 신탁단체는 총 4개가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4개 단체 합계 신규는 1,166,007건이며, 총 11,782,555건임
  - 음악분야 주요 신탁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순으로 저작물의 건수가 많음

〈표 VI-37〉 음악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단위: 건)

신탁 단체명	저작(인접)물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규	국내저작물	105,850	92,909	101,714
		해외저작물	212,431	439,702	656,071
	전체	국내저작물	820,369	913,160	1,014,839
		해외저작물	3,078,260	3,510,830	4,166,788
한국음반산업협회	신규	25,069	28,573	-44,079	53,695
	전체	4,225,450	417,193	373,114	425,323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신규	85,347	129,060	182,633	157,855
	전체	2,184,781	2,389,755	2,572,388	2,730,243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규	143,422	73,393	2,135,273	242,399
	전체	425,161	498,554	2,491,881	2,734,280
소계	신규	572,119	763,637	3,031,612	1,166,007
	전체	10,734,021	7,729,492	1,0619,010	11,782,555

- (어문 분야) 어문 분야 신탁단체는 총 4개 기관이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4개 단체 합계 신규는 379,682건이며, 총 42,527,812건임
  - 어문 분야 신탁단체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 수집 시 웹툰 및 웹소설을 우선순위로 수집

〈표 VI-38〉 어문 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단위: 건)

신탁 단체명	저작(인접)물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신규	13,722	9,913	5,593,976	239,637
	전체	359,577	349,558	46,947,140	42,019,788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로 2021년 통합)	신규	신탁	19,166	29,115	N/A
		재신탁	499,739	3,285,602	N/A
	전체	신탁	462,650	491,954	N/A
		재신탁	35,384,061	41,225,835	N/A

신탁 단체명	저작(인접)물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방송작가협회	신규	11,760	98,674	120,051	140,045
	전체	149,111	247,785	367,806	507,851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신규	0	0	0	0
	전체	139	173	173	173
소계	신규	544,387	3,423,304	5,714,027	379,682
	전체	36,355,538	42,315,305	47,315,119	42,527,812

- 영화, 방송, 뉴스, 공공 분야 신탁단체는 1~2개의 신탁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영화 분야) 영화 분야 신탁단체는 총 2개 기관이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2개 단체 합계 55건임
  - (방송 분야) 방송 분야 신탁단체는 총 1개 기관이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신규는 4,198건이며, 총 4,198건임
  - (뉴스 분야) 뉴스 분야 신탁단체는 총 1개 기관이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신규는 7,772,323건이며, 총 45,996,670건임
  - (공공 분야) 공공 분야 신탁단체는 총 1개 기관이 있으며, 관리 저작(인접)물 수는 2022년 현재 총 18건임

〈표 VI-39〉 영화, 방송, 뉴스, 공공 분야 저작권 관리 저작(인접)물 수

(단위: 건)

구분	신탁 단체명	저작물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	신규	N/A	N/A	N/A	N/A
		전체	N/A	N/A	N/A	N/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신규	0	52	0	0
		전체	3	55	55	55
방송	한국방송실연자 권리협회	신규	5,335	5,625	1,525	4,198
		전체	5,335	5,625	4,245	4,198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규	2,666,680	2,568,785	2,498,316	7,772,323
		전체	33,157,246	35,726,031	38,224,347	45,996,670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신규	0	2	0	0
		전체	119	103	82	18



---

## 5) 요약

- 국립중앙도서관이 적극적 자체수집을 위해서는 ISBN 미납본 기관 및 UCI 발급기관,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기관, 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집이 필요하며, 수집 대상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ISBN 미수집 기관) 온라인 자료 납본 의무조항 이전 발급된 ISBN 발급한 기관 중 미수집 자료가 많은 기관을 일차적으로 수집함
  - (UCI 발급기관) 온라인 자료의 경우 UCI를 발급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UCI 발급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어 UCI 발급기관의 경우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함. 공공기관의 경우 다수의 원문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수집이 가능하며, 민간영역의 경우 유료 등으로 한계가 있으나 그 중 무료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수집함
  - (상장사) 온라인 K-콘텐츠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주제분야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신탁관리단체) 온라인 K-콘텐츠는 저작권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승인하는 신탁관리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체수집을 실시함. 단,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원문을 보유하지 않아 발행처와의 원문 제공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표 VI-40〉 적극적 자체수집을 위한 분야별 수집 기관(안)

구분		기관				
ISBN 발행기관 중 미수집 기관		케이더블유박스	한국학술정보	넥스큐브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박스
UCI 발급기관 (원문)	공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민간기관	디지털조선일보	오지큐마켓	SBS콘텐츠헤브	이매진스	아사달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	출판	웅진씽크빅	대교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에스24
	만화(웹툰)	NAVER	디앤씨미디어	키다리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와이랩
	음악	하이브	JYP Ent.	SM	YG엔터테인먼트	YG PLUS
	게임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필어비스
	영화	CJ CGV	위지웍스튜디오	쇼박스	텍스터	포바이포
	애니/캐릭터	스튜디오오미르	애니플러스	SAMG엔터	손오공	오로라
	방송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아프리카TV	현대홈쇼핑	SBS
	광고	제일기획	이노션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HS애드
	지식정보	NAVER	카카오	메가스터디교육	골프존	솔트룩스
	콘텐츠솔루션	NHN	코난테크놀로지	와이더플래닛	자이언트스텝	엔비티
신탁관리단체	음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어문	한국문화예술 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	-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	-	-
	기타	한국방송실연자 권리협회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한국문화정보원 (공공)	-	-

## 4.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 4.1 법제도 근거 마련

- 본 연구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을 위하여 현재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한 도서관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온라인 K-콘텐츠는 특히, 민간 콘텐츠의 경우, 공공에 대한 가치와 민간 사업자의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공공성을 위하여 가치 있는 콘텐츠를 법제화를 통해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민간 사업자와 창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 법과의 충돌 여부, 저작권자 및 창작자 이익과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콘텐츠 유형별 이해관계자의 수집 이행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 1) 도서관법

##### ①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적용의 가능성

- 현재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한 도서관법은 제21조, 제22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등이 있음
- 온라인 자료 수집 근거 마련: 도서관법 제21조와 제22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21조에서는 도서관자료의 납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부여 받은 온라인 자료가 납본 대상으로 포함됨.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온라인 자료를 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수집 대상 확대: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와 관련 고시는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들 규정은 웹사이트, 웹 자료(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등)를 포함하며, 이는 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K-

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민간 협력 가능성: 도서관법 제22조 제2항은 온라인 자료 수집 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줌
- 보상 규정 마련: 도서관법 제22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항임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20.]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 ②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활용 적용의 문제점

-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음. 특히 상업적 콘텐츠나 OTT 콘텐츠와 같이 복잡한 저작권 구조를 가진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존재함
- 온라인 자료 납본 의무 예외: 도서관법 제21조는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납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납본 대상에 포함됨. 이로 인해 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OTT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K-콘텐츠는 대부분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확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수집범위 및 기준의 모호성: 도서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는 수집대상 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집범위 및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OTT 콘텐츠와 같이 복잡한 저작권 구조를 가진 콘텐츠의 경우, 수집범위 및 기준 설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이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K-콘텐츠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새로운 파일형식이나 미디어 유형이 등장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집대상으로

추가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수집 한계: 온라인 자료가 DRM(디지털 권리 관리)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도서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협조 요청의 이행 강제력이 부족함. 이는 자료 제공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 보상 규정의 모호성: 도서관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판매용 온라인 자료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콘텐츠 제공자와 도서관 간의 보상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특히, 납본 의무의 제한, 저작권 문제, 수집범위 및 기준의 모호성,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수집 한계, 그리고 보상 규정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이 가능해질 것임.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③ 개정 방향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온라인 자료 정의 명확화: 도서관법 제21조에서 온라인 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납본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하도록 함
- 온라인 자료 납본 의무 부과: 납본 의무를 UCI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에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납본 방식을 허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콘텐츠 수집의 실효성을 높임
- 기술적 보호조치 협조 요청의 이행 강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협조 요청의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도입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명문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법 시행령에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합법적인 수집 활동을 보장함
- 보상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콘텐츠 제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다음은 수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임

〈표 VI-41〉 도서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법 제21조(자료의 납본) 개정: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가 디지털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 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협조 요청의 이행 강제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 수집 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이행이 거부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제공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명문화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개정안
	<p>자료 수집 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p> <p>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p> <p>4. 보상 기준 및 절차 명확화</p> <p>①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된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기준은 자료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책정하며, 보상 절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p>

## 2) 저작권법

### ①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적용의 가능성

- 현재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한 저작권법은 제24조, 28조, 29조, 31조 등이 해당되며, 저작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p>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p> <p>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20. 2. 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li> <li>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li> <li>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li> <li>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li> </ol> <p>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

매우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⑧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2021. 12. 7.>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 또는 이들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이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인용할 수 있음. 이는 온라인 K-콘텐츠를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음. 이는 비영리적 목적의 온라인 K-콘텐츠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②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활용 적용의 문제점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사생활 보호, 국가안보, 비밀 정보 등이 포함된 저작물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저작물은 특정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됨
  -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에 한정되며, 개인이나 민간에서 제작된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간에서 제작한 대부분의 온라인 K-콘텐츠(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OTT 콘텐츠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수집과 활용에는 법적 제약이 있음

-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국가안보, 비밀 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이외의 대부분의 온라인 K-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보존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OTT 콘텐츠나 상업적 목적의 음반이나 영상 콘텐츠는 복잡한 저작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집 및 보존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협상이 필수적임
- 저작권법은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활용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제한과 문제점이 존재함
-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민간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수집, 보존, 활용에 있어 법적 제약이 큼
- 특히, 저작권 침해 우려, 상업적 콘텐츠 활용 제한, 공공저작물 활용의 제한적 범위 등은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주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법적 검토와 저작권자와의 협상이 필수적이며, 법령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③ 개정 방향

-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 신설: 저작권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저작권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저작권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술적 보호조치 공익적 목적의 우회 허용: 저작권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의 실효성을 높임
- 기술적 보호조치 협력적 접근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온라인 K-콘텐츠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 제공자와 협력하여 수집 및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K-콘텐츠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

- 디지털 콘텐츠 인용 범위 명확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연구, 교육, 비평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
- 인용 목적에 따른 조건 설정: 교육, 연구, 공익적 목적의 인용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함
-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 저작권법에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K-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명확화: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립중앙도서관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K-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함
-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와의 균형 있는 법적 보호를 도모함. 저작권 예외 조항의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허용, 인용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콘텐츠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지식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수 있음

〈표 VI-42〉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p>제24조의3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저작권 예외)</p> <p>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콘텐츠는 연구, 교육, 비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콘텐츠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24조의4(저작권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p> <p>① 국립중앙도서관은 콘텐츠 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u>공표된 저작물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u>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⑧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⑨ <u>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된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⑩ <u>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u>

### 3) 콘텐츠산업 진흥법

#### ①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적용의 가능성

- 현재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2장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p>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p> <p>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p> <p>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5. 19.&gt;</p> <p>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5. 19.&gt;</p>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는 정부가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용 가능성: 이 조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국가의 디지털 자산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법적 근거가 됨

#### •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 제10조는 정부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 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용 가능성: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온라인 K-콘텐츠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

- 제1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 가능성: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함으로써 공공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2조)

- 제12조는 콘텐츠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 가능성: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②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활용 적용의 문제점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 이 조항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인해, 콘텐츠의 '수집'이나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및 보존 활동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이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음. 특히, 콘텐츠 제작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이를 우회하여 수집함으로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 이 조항이 주로 공공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에서 제작된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민간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함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2조): 이 조항이 융합콘텐츠의 개발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콘텐츠의 보존 및 수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함.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 및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 활동에 일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 지식재산권 문제, 공공정보 활용의 제한성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 및 민간 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③ 개정 방향

-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수집의 공익적 목적 명시: 법 개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콘텐츠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수집 보존 간의 균형 마련: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수집 보존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예외 조항 신설: 공익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콘텐츠 수집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강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K-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및 성과보수 제도 도입: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공자의 자발적인 콘텐츠 제공을 유도하고, 콘텐츠 수집의 안정성을 강화함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콘텐츠 수집이 제한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수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허용 조항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콘텐츠를 수집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콘텐츠 수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경우, 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을 다루고 있으므로, 콘텐츠 수집,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의 공익적 이용 등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 수준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를 통해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법률 체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제작자, 콘텐츠 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이행 및 협력을 촉구할 수 있음

〈표 VI-4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유통·수집 및 보존의 지원 5. 콘텐츠 제작자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제10조 ②  6. 콘텐츠 수집 및 보존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및 법적 지원 방안 마련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기준 마련 2. 콘텐츠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 마련

## 4.2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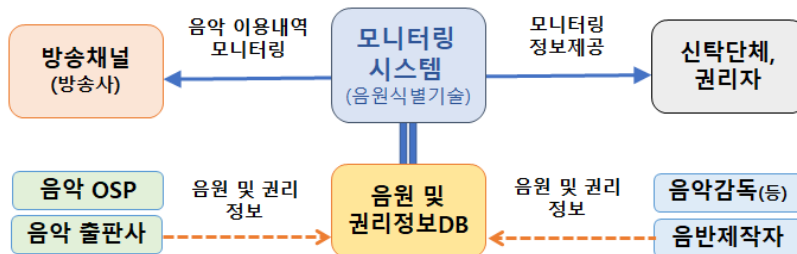
### 1) 국내외 유사사례의 검토

#### ① 국내 사례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기적인 수집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유사 분야의 기존 수집 모델의 적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A. 저작권위원회 음원권리정보통합DB 운영 모델

- 이용자(방송사) 및 권리자(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저작권위원회를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약 1,700만건의 이용허락을 받고, 약 2천여 개의 개별 제작자 또는 유통사(예, 벅스)로부터 이용허락을 승인받은 후 음원을 수집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위원회는 권리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음원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개별 권리자는 본인 저작물 이용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권리자단체는 방송사용료와 보상금 정산·분배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방송사는 방송 음악 큐시트 제공 부담이 줄어드는 등 권리자, 이용자 모두에 원활한 저작권 관리·활용을 담보하는 모델임(박종진, 2022.2.7.)
- <그림 VI-1>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보여줌



〈그림 VI-1〉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sup>15)</sup>

15) 출처: FGI 참여 전문가가 제공

- 이 모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콘텐츠 및 권리정보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B. DDEX(Digital Data Exchange) 모델

- DDEX는 음악 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와 권리정보를 표준화하고 교환하는데 중점을 둔 국제 표준화 기구임. 2006년에 설립되어 주로 음악의 디지털 유통 및 권리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표준이 있음<sup>16)</sup>
- 표준 사용의 예로, 음반사 또는 유통업체는 새로운 음원, 뮤직비디오, 기타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DDEX의 'ERN(Electronic Release Notification) 표준'을 사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DSP)에게 전달함.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는 'DSR(Digital Sales Reporting) 표준'을 통해 음원 사용 내역 및 판매 데이터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전달함
- 이와 같이 DDEX는 음원 자체가 아니라 음원과 관련된 메타데이터와 권리 정보를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둠
- 이 모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한다면, 향후 구축될 UCI 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입수하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자동화 시스템 구축, 메타데이터 표준화, 여러 식별자 간 연결, 작가 전거 데이터 관리, 이용통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UCI는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므로 원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유통사와 CP사들이 적극적으로 원문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저작권을 처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C. KISTI 연구성과물 관리 체제 모델

- R&D 사업들에 대한 전담 기관들은 따로 존재하면서 KISTI에서는 통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연구 검색 서비스 제공 중
- KISTI가 연구성과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16) <https://kb.ddex.net/implementing-each-standard/>

---

## ② 국외 사례

### A. 유로피아나(Europeana) 모델

- 유로피아나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되어 유럽의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포털임<sup>17)</sup>
- 유로피아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기관(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보유한 유럽의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2024년 9월 현재 5,800만점이 넘는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미지 3,200만점, 텍스트 자료 2,500만점, 음향 자료 1,200만점, 동영상 37만점, 3D 자료 6천점이 포함되어 있음
- 유로피아나를 운영하는 유로피아나 재단은 각 콘텐츠 생산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제별 에그리게이터(aggregator)들이 해당 지역이나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수집하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유로피아나 재단에 제출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는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된 각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및 제공기관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 모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한다면, 주제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컨트롤타워로서 수집한 콘텐츠를 관리·보존하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1) 조직적인 측면

- 유로피아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유로피아나 재단(Europeana Foundation)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속한 비영리 기구로 헤이그 본사에 약 20개 국적의 약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유로피아나 재단은 9개 EU 국가의 18개 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속하여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에그리게이터(aggregator)는 개별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로피아나 재단에 전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함. 2024년 9월 현재 43개의 에그리게이터가 있고, 3,100개가 넘는 콘텐츠 제공 기관에서 에그리게이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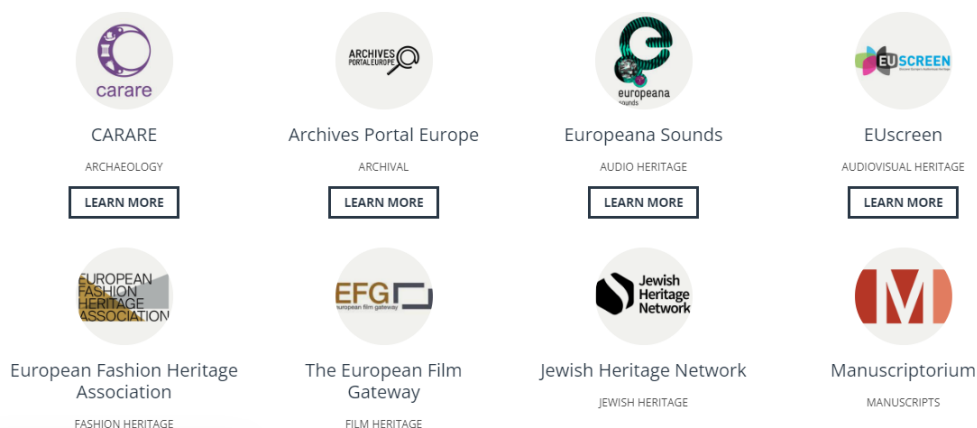
17) <https://www.europeana.eu/en>

고 있음

- 에그리게이터는 30개의 주제 에그리게이터와 13개의 지역 에그리게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주제 에그리게이터는 특정 주제 분야의 기관들로부터 콘텐츠를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 EUscreen은 28개국 34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TV 방송 및 시청각자료 백만건 이상의 레코드를 유로피아나에 제공함. 한편, 특정 국가·지역에 산재하는 여러 기관들을 총괄하는 지역 에그리게이터의 예로, Europeana Local Austria는 오스트리아의 7개 기관으로부터 2만개의 디지털 객체를 수집하였음. 주제 에그리게이터의 사례는 <그림 VI-2>와 같음

## DOMAIN & THEMATIC

Domain and thematic aggregators define their scope by cultural sector (such as museum, archive or library) or by topic and theme (such as fashion). They work with contributors bas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그림 VI-2> 주제별 에그리게이터 예시

## (2) 기술적인 측면

- 유로피아나 재단은 콘텐츠 원문보다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미리보기 파일을 수집함. 유로피아나는 웹사이트에서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본 검색 및 고급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는 검색을 통해 콘텐츠 제공 기관의 서버에 저장된 텍스트를 읽거나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오디오 녹음을 들을 수 있음

- 유로피아나는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인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uropeana Data Model: EDM)을 개발하였고,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메타데이터를 EDM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EDM 매핑 소프트웨어 및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 출판 가이드(Europeana Publishing Guide)는 유로피아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최소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이 가이드는 유로피아나 출판 프레임(Europeana Publishing Frame)을 기반으로 하며, 콘텐츠와 메타데이터의 품질 기준 및 권리 진술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유로피아나 재단은 참여 기관이 더 높은 품질과 개방성 단계를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더 쉽게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에그리게이터는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EDM을 매핑하거나, 매핑되어 제출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하기도 하면서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 (3) 저작권 측면

- 2011년에 유로피아나 라이선싱 프레임워크(Europeana Licensing Framework)를 만들어 권리정보를 구조화하였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로피아나 데이터 교환 협정(Europeana Data Exchange Agreement)으로, 모든 콘텐츠 제공 기관은 반드시 교환 협정서에 서명을 해야 함. 이 협정에는 유로피아나가 기관에서 제공한 메타데이터와 미리보기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는 CC0(Creative Commons Zero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 없이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용자가 접근하게 될 콘텐츠 원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공 기관에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상태를 파악하여 자국의 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짐. 따라서 콘텐츠 제공기관은 먼저 게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맞는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함. 이를 위해 EDM의 'edm:rights' 필드에 <표 VI-44>의 9개 권리설명문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

〈표 VI-44〉 EDM 권리설명문 옵션

연번	권리설명문
1	Public Domain Mark (PDM)
2	No Copyright - Non-Commercial Use Only (NoC-NC)
3	The Creative Commons CC0 1.0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 (CC0)
4	No Copyright - Other Known Legal Restrictions (NoC-OKLR)
5	In Copyright (IC)
6	In Copyright - Educational Use Permitted (InC-EDU)
7	In Copyright - EU Orphan Work (InC-OW-EU)
8	Copyright not evaluated (CNE)
9	Consistency of rights statements

(4) 참여 기관에 대한 혜택

- 유로피아나 재단에서는 콘텐츠 제공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① 통계 제공: 이용 통계 대쉬보드 제공
  - ② 교육 지원: 데이터 준비, 모델링, 라이선싱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 제공
  - ③ 데이터 노출도 향상: 고급검색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적합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Galleries', 'Stories' 메뉴에서 데이터 소개
  - ④ 홍보: Twitter, Instagram, Facebook, Pinterest를 통해 홍보하고 Unsplash와 같은 이미지 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또한, 데이터를 교육 시나리오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API 제공

(5) 유로피아나 재단, 에그리게이터, 콘텐츠 제공기관의 업무

- 유로피아나 재단, 에그리게이터, 콘텐츠 제공기관의 업무를 요약하면 〈표 VI-45〉와 같음

〈표 VI-45〉 유로피아나 재단, 에그리게이터, 콘텐츠 제공기관의 업무

기관	업무 영역	업무
유로피아나 재단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공유를 위한 출판 프레임워크,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라이선싱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li> <li>• 에그리게이터 및 유로피아나 네트워크 연합(Europeana Network Association)과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킹</li> </ul>

기관	업무 영역	업무
	기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li> <li>• API 개발</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관에 대한 교육</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관을 위한 서비스: 이용통계 대쉬보드, 큐레이션 서비스, 홍보 등</li> <li>•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 검색 서비스, API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li> </ul>
에그리게이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가능한 콘텐츠,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작성, 데이터 품질 관리, 저작권과 라이선싱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문</li> </ul>
	기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M 매핑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제공</li> <li>• 메타데이터 지원(매핑, 변환, 유효성 검사, 강화 등)</li> <li>• 유로피아나에 데이터 게시</li> <li>• 메타데이터 혹은 원문 콘텐츠 저장소 제공</li> </ul>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통계 제공</li> <li>• 온라인 전시 등 큐레이션 서비스,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li> <li>• 홍보</li> </ul>
콘텐츠 제공기관	장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선정</li> </ul>
	기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데이터 작성 혹은 EDM으로 매핑</li> </ul>

- 유로피아나 재단: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련 도구 및 API를 제공함. 또한,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로피아나 네트워크 연합(Europeana Network Association) 및 에그리게이터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의 접근성과 활용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에그리게이터: 콘텐츠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메타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자문·교육 및 메타데이터의 매핑·변환 업무를 수행함. 어떤 에그리게이터들은 작은 규모의 컬렉션에 대해 직접 메타데이터를 매핑해하거나 시맨틱 링크를 통해 기존에 제출된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디지털 도서관이 없는 기관들을 위해 콘텐츠 원문을 위한 무료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해주기도 함. 또한, 단순히 데이터를 유로피아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자체 웹사이트에서 큐레이션 서비스, 검색 서비스, 이용통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이 에그리게이터가 콘텐츠 제공 기관에 대한 교육·자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업무도 수행하면서 유로피아나가 수립한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이에 따라 유로피아나는 에그리게이터



- 
- 포럼을 구성하고 에그리게이터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콘텐츠 제공기관: 제공할 콘텐츠를 선정하거나 디지털화하고, 유로피아나의 지침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에그리게이터 기관에 전달함

B.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sup>18)</sup>

- DPLA는 유로피아나 모델의 미국 버전으로, 미국 전역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기타 문화기관이 보유한 5,100만점이 넘는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음향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임. 2년 반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3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DPLA의 운영진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 또한 전략 수립 및 운영에 참여함
- 유로피아나의 에그리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허브(hub)가 콘텐츠 제공기관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DPLA에 전달함. 허브에 따라 디지털화, 장기 보존, 기술 및 도구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2024년 9월 현재 44개 허브가 있으며 서비스 허브(Service Hub)와 콘텐츠 허브(Content Hub)로 구분됨. 서비스 허브는 특정 주 혹은 지역의 기관들을 대표하고 이들로부터 수집한 최소 5만 개의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DPLA에 제공함. 현재 학술기관, 박물관, 주립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등이 서비스 허브로 참여하고 있음. 반면, 콘텐츠 허브는 15만개 이상의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허브 기관으로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유로피아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혜택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음
  - ① 허브로부터 정기적인 메타데이터 입수(1년에 3-6번)
  - ② 허브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이용 통계 및 분석 대쉬보드 제공
  - ③ 기관들이 Wikimedia Commons<sup>19)</sup>에 호환가능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Wikipedia 페이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④ 허브 기관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서 설립한 워킹그룹이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18) <https://dp.la/>

19) 이미지, 음향,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위키 기반 무료 리포지토리

- ⑤ 온라인 전시 등 큐레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⑥ 기관들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음
  - ⑦ 각 허브의 2명씩 허브 네트워크 회원 미팅(Hub Network Members Meeting)에 등록비 없이 무료로 참가
  - ⑧ DPLA 커뮤니티 웹사이트와 위키 참여
  - ⑨ API 제공
  - ⑩ 지리정보 강화, DPLA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정리 작업 등을 통해 메타데이터 품질 향상
  - ⑪ 신규 허브에 대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교육, 품질 검사, 자문 등 제공
  - ⑫ 맞춤형 API 피드와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제공하고 DPLA 로컬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패키지 제공 (아직 서비스 출시 전임)
- DPLA는 수집한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Metadata Application Profile: MAP)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MAP은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DM)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의 문화유산기관의 특성에 맞춰 수정한 것임
- 장서개발 가이드라인(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에서 '포함 원칙'을 내세워서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콘텐츠만 제외하고 최대한 많이 포함하여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VI-46>은 콘텐츠 유형별 장서개발 원칙을 요약한 것임

〈표 VI-46〉 DPLA의 장서개발 원칙

콘텐츠 유형	장서 개발 원칙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저널, 단행본 시리즈와 같은 연속간행물은 제외 대상이 아님</li> <li>• 호 수준이 아닌 전체 시리즈 수준에서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작성해야 함</li> </ul>
학술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위원회나 연구 그룹의 보고서 혹은 백서와 같은 자료 포함</li> <li>• 프리젠테이션, 데이터 세트, 교수 이력서, 학업계획서 혹은 다른 수업 자료들과 같이 비공식적이고 비텍스트 자료들은 지양됨</li> </ul>
태생적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태생적 디지털 자료는 포함</li> <li>• 웹 아카이브 파일이나 에뮬레이션된 인터랙티브 리소스와 같이 접근이나 해석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도구가 필요한 자료는 지양됨</li> </ul>
아카이브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아카이브된 콘텐츠는 DPLA에 적합하고 컬렉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li> <li>• 메타데이터 레코드는 기록철과 같은 집합 수준에서 설명이 제공되고, 전체 컬렉션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집합된 객체에 상응해야 함</li> </ul>

콘텐츠 유형	장서 개발 원칙
시청각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 콘텐츠는 컬렉션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집이 권장됨</li> <li>• 콘텐츠의 최종 소유권과 호스팅 플랫폼 검토 필요. YouTube와 Vimeo와 같은 외부 공개 플랫폼에 호스팅된 객체는 허용되지만, 광고가 없어야 하고 명확한 소유권 진술을 포함해야 함</li> </ul>
과학 또는 특수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로 전문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된 자료는 권장되지 않음. 식물, 동물, 또는 기타 과학적 표본이 과학적인 명칭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도 함께 포함하는 레코드는 허용됨</li> </ul>

## 2) 국립중앙도서관 적용 가능 모델 제안

- 기존 수집 모델들을 검토한 결과, 유로피아나 모델은 후술한 DPLA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공유하기 위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유로피아나 모델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표 VI-47>과 같이 유로피아나와 DPLA는 문화유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이 서비스들을 각각 운영하는 유로피아나 재단과 DPLA 운영진은 에그리제이터/허브 기관으로부터 미리보기 파일과 같은 콘텐츠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음

〈표 VI-47〉 유로피아나, DPLA,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수집 모델 비교

	유로피아나	DPLA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범위	유럽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	미국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K-콘텐츠
콘텐츠 범위	메타데이터 위주 수집	메타데이터 위주 수집	원문 및 메타데이터 수집
콘텐츠 제공 기관 유형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참여 기관 지리적 범위	유럽 전체	미국 국내	국내 및 일부 해외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수집 모델은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문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단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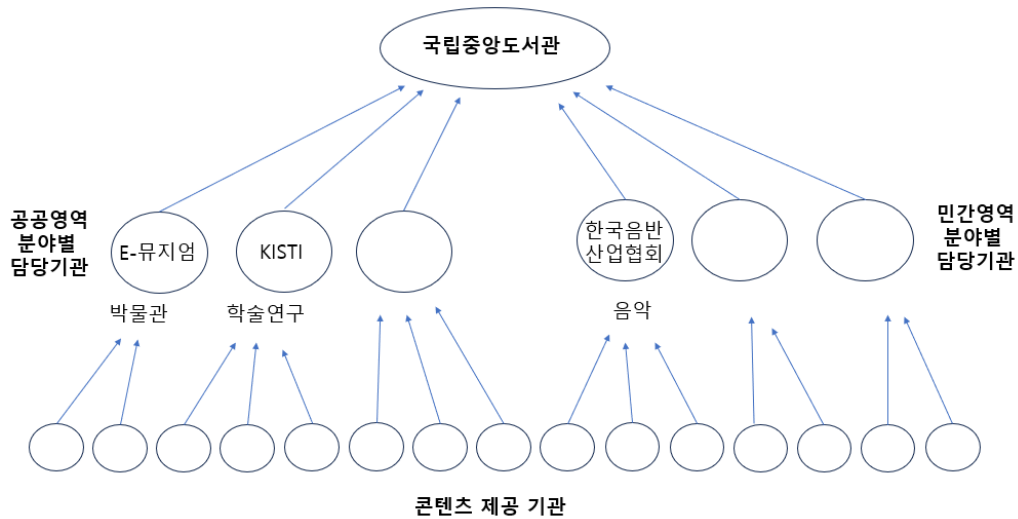
- 유로피아나 혹은 DPLA와 유사하게 국립중앙도서관은 컨트롤타워가 되고 콘텐츠 수집은 장르별 혹은 자료유형별로 분산화하는 수집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음. 즉, 장르별 혹은 유형별로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들이 수집하는 콘텐츠를 이관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콘텐츠 원본에 관한 제공은 저작권의 복제, 전송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에서 저작권법 등의 장애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등의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할 수 있음

- 중장기 모델

-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유산을 넘어서 광범위한 온라인 K-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민간영역의 기관들을 참여시키고,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문 콘텐츠 자체를 수집·보존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 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외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수집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외의 다른 주제 분야의 중앙부처나 관련 주제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궁극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납본제를 강화하여 주제 분야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납본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임
- ② 민간영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출처의 온라인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③ 단순히 메타데이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 원문을 수집하여 보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충분한 고성능 데이터 저장소 및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보존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 ④ 유로피아나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부나 국가도서관이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그리제이터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음. 국내

의 경우, 분야별 담당기관들이 에그리게이터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거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수집 모델의 조직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기관, 그리고 콘텐츠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함(〈그림 VI-3〉참고)



〈그림 VI-3〉 중장기 수집 모델을 위한 조직구조

- 각 참여 기관유형별로 담당하는 업무는 〈표 VI-48〉과 같이 수립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유로피아나 모델과 유사하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 담당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안함

〈표 VI-48〉 기관별 담당 업무

기관	업무 영역	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li> <li>• 참여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li> </ul>
	기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li> <li>• 메타데이터 관리</li> <li>•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 API 개발</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관에 대한 교육</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관을 위한 서비스</li> <li>•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li> </ul>

기관	업무 영역	업무
분야별 담당기관	기술 업무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데이터 제출 • 메타데이터 혹은 콘텐츠 저장
	교육	• 콘텐츠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	• 온라인 전시 등 큐레이션 서비스 등 • 홍보
콘텐츠 제공기관	장서 개발	• 콘텐츠 선정
	기술 업무	• 메타데이터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 전체적인 운영, 보존, 메타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함

- ① 운영: 컨트롤타워로서 전체 수집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책임을 맡음. 콘텐츠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출판 가이드, 라이선싱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함. 또한, 분야별 담당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 이를 위해 분야별로 적합한 담당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한 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마련해야 함
- ②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은 활용보다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 인프라 및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특히 민간기관들은 보안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집한 콘텐츠의 보존용 파일을 만들어 방화벽과 최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서 이용의 제한을 제한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함
- ③ 메타데이터: 유로피아나 모델에서는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유로피아나는 표준적인 메타데이터 모델인 EDM을 개발하고, 에그리게이터가 메타데이터 매핑, 변환, 심지어 기존 메타데이터에 추가 정보를 더하여 메타데이터의 질과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작업까지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통합검색보다 보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야별 담당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수된 메타데이터에 대해 매핑, 변환 등의 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④ 서비스: 콘텐츠 제공기관을 위한 서비스로는 이용 통계 대쉬보드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는 관내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콘텐츠산업 진흥

법』에 따라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함

- 분야별 담당기관: 분야별 담당기관은 공공기관, 위원회·협회, 콘텐츠 유통플랫폼사 등으로 유형과 성격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수행 업무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주제별 아카이브 기관이나 포털의 경우, 수집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이미 단일한 시스템에서 단일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자체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단순히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 외에 수집한 콘텐츠에 대한 검색, 큐레이션, 홍보 등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반면, 다른 담당기관은 여러 콘텐츠 제공기관에서 콘텐츠를 수집하지만 단일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콘텐츠 제공기관: 원문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를 분야별 담당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이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는 원문 콘텐츠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임
- 기타 고려사항: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근거하여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아카이브(OASIS)’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웹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현재 웹사이트 65만건, 웹문서 110만건, 동영상파일 13,700건, 이미지파일 30,864건 등이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업무와 OASIS 사업이 콘텐츠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사업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3)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 ① 분야별 협의체 구성

- 국립중앙도서관은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공공영역에서는 콘텐츠 유형별 콘텐츠관리기관들과 개별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콘텐츠 수집을 강화해야 함. 현재 아래와 같이 협력 관계인 기관들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가 필요함
  - 한국연구재단: 학술자료
  - KISTI: R&D 연구보고서
  -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콘텐츠
-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산출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기관(개인)과 개별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 협약서에 저작권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산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 가능케 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민간영역에서는 단기적으로 UCI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분야별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협의체 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당 분야 콘텐츠의 종합적 수집 및 보존, 협력기관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콘텐츠 수집 활동 독려 및 홍보 지원
  - 협력기관의 역할: 해당 분야 콘텐츠 조사 및 제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활동 지원

## ②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저작권법 개정 및 명확화: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용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함
-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간의 계약 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콘텐츠 납본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콘텐츠 수집을 촉진함
- 저작권 컨설팅 및 분쟁 조정 지원: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콘텐츠 제공자를 위한 컨설팅과 중재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정 의무인 담



---

당자를 두어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무도 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 불법정보 등 신고가 있으면 그 즉시 기록을 남기고 삭제하는 등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 납본 의무화: 법 개정을 통해 웹툰, 웹소설, 음원,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의 납본을 의무화하여, 민간 콘텐츠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을 촉진함
- 납본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납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본 참여 기관에 세제 혜택이나 홍보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③ UCI 발급 및 관리 시스템 연동

- UCI 등록관리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향후 UCI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웹툰과 웹소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임
- UCI 등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함으로써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이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집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UCI 등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되면, 웹툰과 웹소설의 원문까지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④ 경제적·비경제적 보상

- 콘텐츠 제공자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본 보상금 현실화, 세제 혜택,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보상안을 마련하여 참여를 활성화함
- 콘텐츠에 대한 UCI 발급과 동시에 납본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부가세 면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⑤ 협력기관을 위한 서비스

- 기술 지원 및 교육: 협력기관을 위한 관련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예: 디지털

---

화, 메타데이터 작성)을 제공하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 부가가치 서비스: 이용통계 대시보드,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관들이 콘텐츠 활용도를 파악하고, 큐레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조직 및 전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유용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콘텐츠 보존: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콘텐츠를 대신 보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의 장기 보존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부담을 줄임

#### ⑥ 소통 및 협력 강화

-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콘텐츠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추진함

#### ⑦ 홍보 및 인식 개선

- 협력기관 대상 홍보: 콘텐츠 제공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콘텐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며 참여를 유도함
- 대국민 홍보: 온라인 콘텐츠 납본 및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4.3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

#### 1)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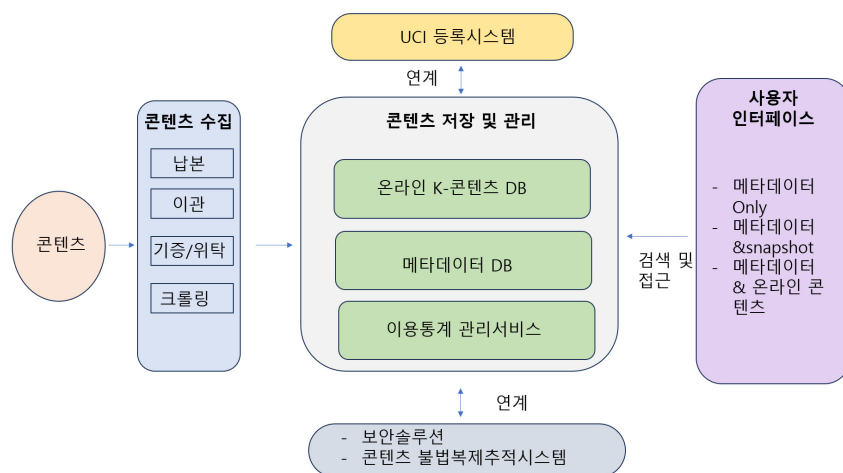
##### ① UCI 등록시스템 연계의 필요성

- UCI(범용 콘텐츠 식별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표준체계로, 온라인 K-콘텐츠의 유통과 관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함. 국립중앙도서관은 2025년부터 연재형 웹툰 등 다양한 웹콘텐츠에 대해 UCI를 발급하고 운영할 예정임
- 이 시스템은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며,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다양한 콘텐츠(동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 등)를 UCI를 통해 고유하게 식별하여,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함
- UCI는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불법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추적할 수 있음
- UCI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기존 시스템(ISBN, ISSN 등)과도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외부 콘텐츠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콘텐츠 관리의 범위를 확대함

## ②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성도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은 UCI 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콘텐츠의 수집, 관리, 저작권 보호 및 접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UCI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됨
- 사용자는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며, 보안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VI-4〉 UCI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성도

- 콘텐츠 제공자
  - 공공 및 민간 콘텐츠 제공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동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 등)를 제공함. 제공된 콘텐츠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으로 업로드됨
- 콘텐츠 수집 및 관리 기능
  - API 및 웹 크롤링 기술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출처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함. 데이터 제공 계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메타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콘텐츠를 저장함
  - 사용자는 대용량 파일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으며, 수동 업로드 방식으로도 콘텐츠 수집이 가능함
- UCI 등록 시스템
  -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UCI가 발급됨. UCI는 콘텐츠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되며, 콘텐츠의 추적 및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함
  - UCI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콘텐츠 저장소, 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콘텐츠 식별 및 관리가 이루어짐
- 메타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 콘텐츠 수집 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가 생성되며, 파일 형식, 생성일, 크기, 저작권 정보 등 주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됨
  - 콘텐츠 생산자와 관리자는 필요한 시 메타데이터를 수동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음
  - 자동으로 수집된 메타데이터 중 중복 요소는 메타데이터 레코드 생성 시 자동으로 통합됨
  - 국제 표준(Dublin Core, MARC, MODS 등)을 준수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함
- 저작권 관리 및 보안 강화
  - UCI와 연동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 복제를 추적할 수 있음
  - 보안 인프라: SSL/TLS 암호화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하며, 무단 접근을 방지함
- 클라우드 기반 저장 시스템 및 자동 스케일링
  - 클라우드 기반 분산 저장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 관리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 복제 및 백업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됨
- 수집되는 데이터양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서버 용량을 확장하여 대규모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검색 시스템
  - 메타데이터 전용 검색: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키워드, 제작일, 저자 등 다양한 조건으로 고급 검색이 가능함
  - 메타데이터 & 스냅샷 검색: 메타데이터와 함께 콘텐츠의 스냅샷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메타데이터 & 콘텐츠 접근 검색: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임
- 콘텐츠 접근 관리
  - 콘텐츠는 공공 접근(모두 열람 가능), 제한적 접근(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 연구목적 제한 접근 등으로 구분되어 계층적 접근이 가능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메타데이터 또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접근 권한은 UCI 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됨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콘텐츠 제공자 및 관리자는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UCI 발급과 메타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이용 통계 대시보드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 관련 서비스 제공

### ③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기대효과

- UCI 기반의 자동화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해 연간 4만 8천 건의 대규모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불법 복제 추적 시스템과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와 자동 스케일링을 통해 저장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UCI 등록시스템 기반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은 콘텐츠 식별, 저

---

작권 보호, 글로벌 확장성을 포함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함.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콘텐츠 수집과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국가 디지털 자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

## 2) 대규모·대용량 데이터 수집·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은 연간 4만 8천 건의 대규모 콘텐츠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간행물 납본수집 용량 평균을 살펴보면, 동영상 1건당 평균 471.835MB, 이미지 1건당 4,695MB, 음성 파일은 1건당 825.647MB에 달하는 크기를 고려하면, 매년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용량은 매우 큼.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 저장소와 빠른 접근 속도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임
- 수집되는 콘텐츠는 동영상, 이미지, 음성 및 음향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며,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와 UCI 레코드도 함께 관리됨
-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없이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고성능 인프라가 필수적임

### ① 클라우드 기반 분산 저장 인프라

- 분산 저장 시스템 도입: 대용량 콘텐츠(동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 등)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함. 이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음. 각 콘텐츠는 다양한 서버에 중복 저장되어 장애 발생 시에도 복구가 용이함
- 계층적 스토리지 관리: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는 고속 SSD 저장소에, 장기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저속의 대용량 HDD에 저장하는 계층적 구조를 도입함. 이를 통해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SSD에 저장하여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오래된 콘텐츠는 HDD로 자동 이동되어 장기 보존됨
- 자동 확장(스케일링):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자동으로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케일링 기능을 도입함. 이는 대규모 콘텐츠 수집에 대응하는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함

-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 콘텐츠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하는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함. 특히, 클라우드 내에서 정기적인 데이터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여 데이터 유실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됨

## ②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최적화

- 데이터 중복 제거 시스템: 동일한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가 여러 번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토리지 자원을 절약함. 이를 통해 저장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임
- 데이터 압축 및 최적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크기를 줄이고, 저장 효율성을 극대화함. 특히,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의 경우 고효율 압축 방식을 적용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장 공간을 절약함

## 3) 콘텐츠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

### ① 메타데이터 품질 관리

- 자동화된 메타데이터 생성 및 검증: 콘텐츠 업로드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는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국제 표준(Dublin Core, MARC, MODS 등)을 준수하도록 자동 검증됨.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함. 또한, 메타데이터의 필수 필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경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음
- 메타데이터 정기 점검: 주기적으로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을 점검하기 위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함. 이를 위해 자동화된 도구와 수작업 검토를 병행하여 메타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피드백 시스템: 콘텐츠 제공자나 관리자가 메타데이터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 오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품질을 높임

### ② 데이터 무결성 및 정확성 보장

- 데이터 무결성 검사: 저장된 콘텐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 체크섬을 생성하고, 데이터 손상 여부를 검토함. 이를 통해 데이터의 손실이

---

나 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콘텐츠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되고 검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함.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됨

### ③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집된 데이터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품질 검토를 거치며,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및 파일 자체의 품질을 점검함. 파일의 크기, 형식, 저작권 정보 등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확인되고 기록됨
- 오류 검출 및 수정 시스템: 콘텐츠 파일이나 메타데이터에서 발견된 오류는 자동으로 검출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정을 제안함. 심각한 오류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AI 기반 데이터 정제: AI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중복된 데이터, 잘못된 메타데이터, 누락된 정보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수정함. 이를 통해 대규모 자료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함

### ④ 교육 및 품질관리 정책 도입

- 콘텐츠 제공자 교육: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교육 내용에는 메타데이터 작성 규칙, 저작권 정보 입력 방법, 파일 형식 준수 등이 포함됨
- 내부 품질관리 정책: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는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팀을 두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콘텐츠 수집, 저장, 관리 전 과정에서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4) UCI 연계 온라인 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및 관리 예산(안)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예산안은 연간 48,0000건의 온라인 K-콘텐츠<sup>20)</sup>,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 UCI 발급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

20)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간행물 납본수집 용량 산정 파일 1건당 평균 크기를 고려하여 산정(동영상 1건당 파일 크기 471,835 MB, 이미지 1건당 파일 크기 4,695 MB, 음성, 음향 1건당 파일 크기 825,647 MB)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검색 시스템 도입 및 개발, 교육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본 예산은 클라우드는 물론, WEB 서버, WAS서버 등의 이중화 솔루션을 통해 상호보완적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예산안은 수집 데이터의 양, 클라우드 선택, 이중화 솔루션 사용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VI-49〉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예산(안)

항목	세부내용	단가	총액
서버 및 이중화 솔루션			
WEB 서버 (2대)	웹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14,720,000원/대	29,440,000원
WAS 서버 (2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14,720,000원/대	29,440,000원
DB 서버 (2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16,230,000원/대	32,460,000원
이중화 솔루션 (3대)	서버 이중화를 위한 솔루션 구축	23,738,000원/대	71,214,000원
스토리지 (Usable 30TB)	콘텐츠 보존을 위한 스토리지	44,055,000	44,055,000원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스토리지 (SSD - 1TB당 1000달러)	동영상, 이미지, 음성 데이터를 위한 고속 저장소	1,320,000원/1TB	21,120,000원 (16TB 기준)
스토리지 (HDD - 1TB당 100달러)	장기 보존용 대용량 스토리지	132,000원/1TB	6,336,000원 (48TB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AWS, Azure, Google Cloud 등 월간 스토리지 요금	1TB당 13,200원	1,152,000원/월 (48TB 기준)
데이터 전송 비용	대규모 데이터 전송 (월 1TB당 1,320원)	1,320원/GB	63,360원/월 (48TB 기준)
자동 스케일링 도입	클라우드 용량 자동 확장 기능	10,000,000원	10,000,000원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	대규모 데이터 전송 지원 (1GB당 500,000원)	500,000원/GB	6,000,000원 (12GB)
SSL/TLS 인증서 도입	데이터 전송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암호화 솔루션	1,000,000원	1,000,000원
불법 복제 탐지 시스템	실시간 불법 복제 탐지 및 대응 시스템	20,000,000원	20,000,000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도입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1,500,000원/월	18,000,000원/년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자동화 메타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	메타데이터 오류 검출 및 일관성 확인 자동화 도구	10,000,000원	10,000,000원
메타데이터 수동 검토 인력	메타데이터 검토 및 오류 수정 인력	50,000,000원/년	50,000,000원
데이터 정제 시스템	중복 데이터 감지 및 삭제 알고리즘	20,000,000원	20,000,000원
검색 시스템 도입 및 개발			
검색 엔진 도입	검색 엔진 시스템 도입	10,000,000원	10,000,000원
통합 색인 구축 및 검색 쿼리 개발	다양한 데이터 통합 색인 및 검색 쿼리 시스템 구축	10,000,000원	10,000,000원
통합 검색 사이트 구축	아카이브용 통합 검색 사이트 구축	30,000,000원	30,000,000원

항목	세부내용	단가	총액
교육 및 유지보수 인력			
콘텐츠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작성 및 콘텐츠 업로드 방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00원/년	10,000,000원
내부 직원 기술 교육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교육	10,000,000원/년	10,000,000원
기술 운영팀 인건비	클라우드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팀 인건비	150,000,000원/년	150,000,000원
데이터 품질 관리 팀 인건비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정제를 담당할 팀 인건비	120,000,000원/년	120,000,000원
계	717,428,520원		

#### 4.4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설명회: 콘텐츠 제공 가능성이 높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활동의 필요성과 취지를 알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진행할 수도 있음
- 포럼 및 워크숍: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감.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콘텐츠 수집 절차를 설명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워크숍을 개최. 또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혜택에 대해 설명하여 콘텐츠 제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의식 고취
- 공동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술기관이나 연구단체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온라인 K-콘텐츠 수집과 관련된 제도 및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기관들과 공유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뉴스레터 발행: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함
- 언론 보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활동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의 참여를 독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함.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5. 온라인 K-콘텐츠 중장기 수집 로드맵

### 5.1 중장기 로드맵 구성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은 수집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특성, 이해관계자, 적용법(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등이 매우 상이하며, 수집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중장기 수집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 온라인 K-콘텐츠의 경우, 공공에 대한 가치와 민간 사업자의 가치의 충돌가능성이 있음. 공공을 위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법제화를 통해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민간 사업자와 창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저작권법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에 유통되는 방대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납본을 통한 수집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선별된 콘텐츠의 원본을 확보함으로써 후세에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보존·활용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대상을 수집 효율성에 따라 민간 콘텐츠 및 공공 콘텐츠로 구분하고 자료 유형 및 기관 유형에 따라 수집전략을 제안하였음
- 다만, 자료 유형 및 기관 유형에 따른 수집 및 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수집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 A. 단기 계획 (1~2년): 기반 환경 구축

##### ① 콘텐츠

- 연간 4만 8천 건의 온라인 K-콘텐츠와 그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수집 목표 설정
- 온라인 K-콘텐츠 우선 수집 대상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공공 콘텐츠, 웹툰, 웹소설 등 우선적 확보
- 공공 콘텐츠 위주 수집함으로, 국가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
- 웹툰 및 웹소설 우선 수집대상을 명확히 하여, 창작물의 보존과 제공을 위한 체계 마련

## ② 법제도

- 온라인 납본 의무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본 절차 간소화
- UCI 등록을 의무화하여 불법 복제 방지 및 콘텐츠 추적성 강화
- 저작권 보호와 더불어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개발

## ③ 기관협력

- 권리신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납본과 수집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
- 콘텐츠 유형별 협의체를 구성(공공콘텐츠, 웹툰, 웹소설 중심)하여 콘텐츠 유형별 수집 및 보상 체계 마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검토하여 납본 및 자발적 제공을 장려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
- 협의체는 콘텐츠 대표 수집기관(관련 제작자, 출판사, 플랫폼 등), 권리신탁단체, 관련 법령기관, 저작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함
- 협의체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역할 정립
- 콘텐츠 유형에 따른 수집 기준 명확화, 우선 수집 기준에 따른 콘텐츠 수집 심사 진행
- 협의체 중심으로 콘텐츠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약 체결 추진
-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

## ④ 시스템

- UCI 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
- UCI 등록시스템과 함께 고용량 콘텐츠 처리를 위한 고성능 서버 및 스토리지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 수집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
-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여 불법 콘텐츠 배포 방지 및 추적 시스템을 적용
-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도입하여 수집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인프라 확장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 프로토콜 개발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마련

---

## B. 중기 계획 (3~4년): 시스템 고도화 및 협력 확장

### ① 콘텐츠

- 공공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 웹툰 및 웹소설 우선 수집 대상 확대함으로써, 웹툰 및 웹소설의 수집 및 보존 강화
- 음원, 영상, OTT 콘텐츠 등 대용량 콘텐츠 대상 우선 수집 대상 선정
- 선택적 수집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수집 범위 확대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 확보

### ② 법제도

-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의 권리 보호
-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와의 저작권 협약을 강화하여 수집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

### ③ 기관협력

- 음원, 영상, OTT 콘텐츠 유형별 협의체를 구성
- 공공콘텐츠, 웹툰, 웹소설 협의체 기반 콘텐츠 수집의 범위 확대 및 심화
-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납본 및 자발적 기증으로 확보
- 민간 콘텐츠 제공자 및 저작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공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④ 시스템

- 수집한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능을 도입하여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증대
-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웹 크롤링 및 고속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확장 적용

---

## C. 장기 계획 (5년~): 글로벌 협력 및 확장

### ① 콘텐츠

- 차세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수집을 확대하여 미래의 디지털 자산을 확보
- 해외 K-콘텐츠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콘텐츠 수집 네트워크를 확장
- 콘텐츠 수집 대상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체계적 수집 및 보존
- 수집 콘텐츠 분석을 통한 온라인 K-콘텐츠 주제 도출
- 주제별(문학, 역사, 예술, 체육 등) 수집전략 수립을 통한 수집 및 보존 확장

### ② 법제도

- 국제 표준 준수와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 UCI 기반 글로벌 콘텐츠 협력 및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하여 글로벌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③ 기관협력

- 기존 협력 강화 및 신규 협력 확대하여 콘텐츠 수집 범위를 넓히고, 민관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
-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하여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 다자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집과 보호를 강화

### ④ 시스템:

-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국가 디지털 자산 장기 보존
- 콘텐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장기 보존 및 고속 처리 시스템을 최적화

## 5.2 단계별 추진 과제

- 앞서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 구성안을 단계(단기, 중기, 장기)별 콘텐츠, 법제도, 기관 협력, 시스템의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VI-50〉 단계별 추진과제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4만 8천 건의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수집 목표 설정</li> <li>- 공공 콘텐츠, 웹툰, 웹소설 우선 수집</li> <li>- 국가적 가치가 높은 공공 콘텐츠 위주로 수집</li> <li>- 웹툰, 웹소설 등 우선 수집 콘텐츠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콘텐츠 수집 범위 확대</li> <li>- 웹툰, 웹소설 외 음원, 영상, OTT 콘텐츠 우선 수집</li> <li>- 선택적 수집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범위 확대</li> <li>-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콘텐츠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수집 확대 (VR, AR 등)</li> <li>- 글로벌 K-콘텐츠 협력 강화</li> <li>-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체계적 수집 및 보존</li> <li>- 수집 콘텐츠 분석을 통한 온라인 K-콘텐츠 주제 도출</li> <li>- 주제별(문학, 역사, 예술, 체육 등) 수집전략 수립을 통한 수집 및 보존 확대</li> </ul>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납본 의무화 확대를 위한 법 개정</li> <li>- UCI 등록 의무화로 불법 복제 방지 및 추적성 강화</li> <li>- 저작권법 개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본 수집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li> <li>-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 법적 지원 강화</li> <li>- 콘텐츠 제공자와 저작권 협약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표준 준수와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li> <li>- UCI 기반 글로벌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li> </ul>
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신탁단체와 협력체계 구축</li> <li>- 콘텐츠 유형별 협의체 구성 및 보상 체계 마련</li> <li>- 콘텐츠 제공자에 인센티브 제공</li> <li>- 협력 모델 구축 및 납본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콘텐츠 제공자와 협력 확대</li> <li>- 음원, 영상, OTT 콘텐츠 협의체 구성</li> <li>-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콘텐츠 제공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및 공공기관과 글로벌 협력 확대</li> <li>-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li> <li>-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li> </ul>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CI 등록 시스템 기반 콘텐츠 관리 플랫폼 구축</li> <li>- 고성능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li> <li>- 보안 솔루션 강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li> <li>-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 프로토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능 도입</li> <li>- 대용량 데이터 안정적 처리 및 웹 크롤링 시스템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장기 보존 시스템 구축</li> <li>- 글로벌 콘텐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최적화</li> </ul>





## VII.

# 결론 및 제언

---



## VII.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자료와 온라인 K-콘텐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 온라인 K-콘텐츠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온라인 K-콘텐츠를 “한국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공공영역의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담긴 자료부터 민간 부문에서 제작된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문자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음성·음향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등에 더욱 집중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정의하였음. 이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영역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국내 온라인 K-콘텐츠 유통 현황 및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수집전략 일반 기준, 공공영역 수집 전략 방향성과 민간영역 수집 전략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에 적용할 모범 사례들을 정리하였음
- 이상을 통해서 연구진이 마련한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 검증 작업을 걸쳐 최종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을 제시하였음.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에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 및 민간영역별 수집 전략
  - 납본 및 자체 수집별 추진 전략
  - 온라인 K-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중장기 로드맵
-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K-콘텐츠 수집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함.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및 납본 제도의 확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 공공 기관 및 민간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 K-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함
  - 납본제도 강화 방안과 더불어, 자체 수집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특히, 웹 크롤링,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아카이빙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 및 보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온라인 K-콘텐츠의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이 연구되어야 함. K-콘텐츠 제공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본의 이점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납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수집된 K-콘텐츠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병행해야 함
- 본 연구의 의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K-콘텐츠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있음. 특히,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 법적·기술적 기반 강화, 납본제도 및 자체 수집 전략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K-콘텐츠의 유실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 참고문헌

---

- 곽승진, 김정택, 박옥남, 최재황 (201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2026).
- 국립중앙도서관 (2024). 국가 지식의 상징,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와 연구를 꽃피우다.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47361&schBcid=normal0302>
- 김규환 외 (2023). 국내 전자출판물 통계조사 기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현식 (2022). [대중문화칼럼] 한류와 K-콘텐츠의 차이, 천지일보.  
출처: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032>
- 노영희, 손애경, 이경선, 장인호, 정영미, 차현주, 곽우정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 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종진 (2022). 음악저작권 활용 상생모델 '방송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전자신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997205>
- 산업자원통상부 (2021a). 키워드로 보는 K콘텐츠, 『통상』, 100, 6-7.
- 산업자원통상부 (2021b). K콘텐츠의 성과와 도전, 『통상』, 108, 18-19.
- 손애경, 이은호, 이건웅 (2021).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 이응규, 김용완 (2024). 지방소멸에 대응한 K-콘텐츠 중심의 위케이션 정책추진 방향 연구. 한국과 세계. 6(2), 217-240.
- 이지연, 백원근, 이연희 (2022).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 콘텐츠 산업 진흥법. 법률 제19592호.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

- 
- 육관광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3). 2023 2분기 만화·웹툰 유통 통계 자료. 경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이슈보고서. 2022-이슈-6.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2024).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세종: KDI 경제정보센터.
- 한국전자출판학회 (2024). 전자책 시장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a). 2023 K-콘텐츠 해외진출 현황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b). 2022 지역 콘텐츠 기업 현황 창작자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a).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b).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Retrieved from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11-13114>
- BL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 Chambers & Schallier (2010). Bringing research libraries into Europeana: Establishing a library-domain aggregator. *Liber Quarterly*, 20(1), 105-118.
- DNB - Our Collection Mandate. Retrieved from [https://www.dnb.de/EN/Professionell/Sammeln/sammeln\\_node.html](https://www.dnb.de/EN/Professionell/Sammeln/sammeln_node.html)
- EU Legal Deposit Scheme. Retrieved from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970ecec-e222-11ec-a534-01aa75ed71a1>
- Georgi, Alexandrov. (2018). Transformation of Digital Legal Deposit in Terms of Legislation and Public Access. *Knygotyra*.

- 
-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Policy Statements. Retrieved from  
<https://www.loc.gov/acq/devpol/cpsstate.html>
- Library of Congress Digital Collections Strategies 2022-2026. Retrieved from  
<https://inkslib.nl.go.kr/IN/contents/I50402020000.do?schM=view&id=42281&schBcid=inkslibInterIssues&lang=>
- Marietjé, De, Beer., Marieta, Van, der, Merwe., Liezl, H., Ball., Ina, Fourie. (2016).  
Legal deposit of electronic books - a review of challenges faced by national  
libraries. Library Hi Tech, 34(1), 87-103.
- Narges, Neshat. (2022). A global view on digital legal deposit: what could be learned?.  
Alexandria: Journal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Issues, 32(1), 38-58.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Retrieved from  
[https://www.nla.gov.au/sites/default/files/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revised\\_2\\_july.pdf](https://www.nla.gov.au/sites/default/files/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revised_2_july.pdf)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Web Archive. Retrieved from  
<https://natlib.govt.nz/collections/a-z/new-zealand-web-archive>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What's legal deposit?. Retrieved from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legal-deposit/whats-legal-deposit>
- U.S. Copyright Office. Mandatory Deposit of Serials Published Only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copyright.gov/cad/index.html>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17~2023). 운영결과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 국립중앙도서관 (2023).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안).
- 국립중앙도서관 (202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 국립중앙도서관 (2024). 공공간행물 발간기관 디렉토리 통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24). 공공간행물 자체수집 목록 통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24). 공공간행물 자체수집 수집현황 통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24). 공공기관 웹툰 현황 통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2024). 문체부 웹진현황 통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2024). 일반 전자책 외 기타 콘텐츠 수집 현황 통계 자료.

국회도서관 (2023). K-콘텐츠 한눈에 보기.



## [부록 1] FGI 질문지

### 온라인 K-콘텐츠(웹툰, 웹소설, 전자책, 동영상 등) 수집 및 보존 전략 수립: FGI 질문지

#### I. 온라인 K-콘텐츠 유통 생태계

##### 1. 현재 온라인 K-콘텐츠 유통 구조

- 현재 온라인 K-콘텐츠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가?
- 유통 경로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2. 유통 플랫폼별 특성

- 주요 유통 플랫폼(예: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유튜브, OTT 등)의 특징은 무엇인가?
- 각 플랫폼별 콘텐츠 유형 및 주요 이용자 층은 어떤가?

#### II.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필요성

##### 1. 수집 필요성 인식

- 온라인 K-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및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 2. 수집 대상 콘텐츠 유형

-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유형의 온라인 K-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가?
- 수집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 III. 수집 방법 및 전략

#### 1. 민간 콘텐츠 수집 방법

- 민간 콘텐츠의 수집 방식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웹 크롤링, OpenAPI, 직접 업로드 등)
- 민간 기관과의 협력 방식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2. 공공 콘텐츠 수집 방법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수집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 공공 아카이브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 3. 기술적 지원 및 인프라

- 민간 및 공공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어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 수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IV. 민간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의 입장

#### 1. 부정적 입장의 이유

- 국립중앙도서관의 K-콘텐츠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 콘텐츠 제공에 따른 주요 우려사항은 무엇인가?  
예: 저작권, 수익 감소, 독점적 권한 등

#### 2. 협력 방안 모색

- 부정적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가?
-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면 협력에 긍정적인지 수 있는가?  
예: 보상, 저작권 보호, 홍보 지원 등

---

### 3. 긍정적 사례 및 기대 효과

- 타 기관과의 협력 사례 중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있는가?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이 K-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V. 참여 유도 및 활성화 방안

### 1. 참여 동기 유발

- 민간 및 공공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콘텐츠를 납본하거나 기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2. 보상 및 인센티브

- 콘텐츠 납본 및 기증 시 제공할 수 있는 보상 또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 이러한 인센티브가 기관의 참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 3. 홍보 및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
- 관련 기관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은 무엇인가?

## VI. 추가 의견 및 제안

### 1. 기타 제안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 전략에 대한 기타 제안 사항이 있는가?
-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부록 2]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안) 검증 질문지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 1. 온라인 K-콘텐츠 수집전략 방향성

본 절은 자료유형별 수집전략 방향성을 작성한 방법입니다. 수집 일반원칙, 수집 콘텐츠 유형, 수집방식,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 ① 1.2 ‘공공영역’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 ② 1.3 ‘민간영역 - 웹툰’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 ③ 1.3 ‘민간영역 - 웹소설’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 ④ 1.3 ‘민간영역 - 음원’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⑤ 1.3 ‘민간영역 - 동영상’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⑥ ‘민간영역 - OTT’에 대한 수집전략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2. 온라인 K-콘텐츠 수집대상 선정(안)의 적절성**

온라인 K-콘텐츠를 수집하는데 있어 납본 측면과 자체수집 측면에서의 수집대상 기준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적절성 및 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2.1 납본 측면**

**① ISBN 발급콘텐츠 중 미납본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납본 요청**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②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간행물팀 수집 현황을 기반으로 다수 수집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 요청(pp.53-55)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③ 공공누리 참여기관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순으로 연계콘텐츠가 많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며, 문자자료는 웹툰 및 웹소설에 한정하고 이미지, 영상 등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설정(pp.56-58)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기관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적극적 납본 실시(pp.58-60)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 2.2 자체수집 측면

① 도서관법 제22조 온라인 자료 의무납본 이전 2014~2016년 기준 ISBN을 다수 발급받은 기관 중 미납본 상위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 실시(p.61)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

② UCI 발급기관 중 원문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UCI발급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 실시(pp.62-64)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③ 콘텐츠 산업별(출판, 영화, 만화 등)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의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체수집 실시(pp.64-71)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④ 신탁관리단체를 단체 중 저작물 관리 건수가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납본 실시(pp.71-73)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2.3 온라인 K-콘텐츠 정의 및 수집 대상 선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흐름)의 적절성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참고사례 등)을 자문해 주십시오)

---

2.4 온라인 콘텐츠 정의와 수집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문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3.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마련 3)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본 절은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소통방안 등을 작성한 부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에 대한 적절성 및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 및 민간 참여 유도방안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 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에 대한 적절성

-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 

### 4. UCI 등록시스템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

본 절은 UCI 등록시스템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집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에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① ‘UCI 등록시스템 기반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적절성**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5. 중장기 수집 로드맵**

중장기 수집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콘텐츠, 법제도, 기관협력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콘텐츠, 법제도, 기관협력 방안에 대해 적절한지, 혹시 단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① ‘중장기 수집 로드맵’에 대한 적절성**

☐ 적절하다(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면 자문해 주십시오.)

☐ 적절하지 않다(구체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십시오)

**6.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연구진

- 연구수행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 연구원 : 김 규 환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 연구원 : 김 수 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 옥 남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대 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연구 보조원 : 최 현 주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장 수 현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최종보고서

## 온라인 K-콘텐츠 수집 전략 연구

인 쇄 : 2024년 10월 12일

발 행 : 2024년 10월 14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90-0500

누리집 : <https://www.nl.go.kr>

연구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6513-463-1(93020) [비매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비매품/무료  
93020



9 791165 134631  
ISBN 979-11-6513-463-1